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문학석사 학위논문

죄의식과 정체성의 변주:

『위대한 유산』의 주인공 핍의 내적 성장

2020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영어영문학과 문학전공

전예섬

국문 초록

본 논문은 찰스 디킨스의 『위대한 유산』의 주인공 핍이 지닌 죄의식과 자아 정체성을 다루면서 그것들이 그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결과와 의미는 무엇인지, 나아가 그것들이 그의 내적 성장과 어떻게 결부되어 있는지에 대한 연구이다. 죄의식은 주인공의 내면 세계를 지배한 동인이고 그의 삶을 관통한 심리 현상이며, 무엇보다 그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토대가 된다. 따라서 죄의식이야말로 그의 인격과 삶은 물론 소설 전체를 이해하는데 필수불가결한 렌즈라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핍의 죄의식을 인간 심리의 보편적인 현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당대의 사회적 영향과 결부되어 있으면서도 그가 놓여있었던 삶의 특수한 정황들과 경험들 때문에 기인한 것으로 보면서, 그것의 심리적 특수성을 분석한다.

2장에서는 핍의 죄의식을 발생하게 한 요인들을 규명하려고 한다. 그의 죄의식은 원천적으로 주변 어른들에 의해 부여된 것으로, 스스로를 무가치하다고 여기는 부정적 자의식의 형태로 등장한다. 그리고 이러한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원형적 죄의식'은 구체적이고 윤리적인 잘못에 기인한 '도덕적 죄의식'으로 변모해 간다. 도덕적 죄의식의 결과로 인해 핍은 우선 실재를 왜곡하는 상상을 하게 되고, 나아가 타인에 대해 '이상화'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가 이상화하게 되는 두 대상은 에스텔라와 조인데, 전자에 대해서는 이상화된 자아 이미지를 투영하는 방식으로, 후자에 대해서는 선한 인격자를 이상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에스텔라의 경우가 죄의식에서 비롯된 부정적 자의식으로 점철된 어두운 과거로부터의 탈출구로서의 이상화였다면, 조의 경우는 훌륭한 인격자인 그를 본받고 싶은 삶의 지향점으로 여기는 이상화이다.

3장에서는 핍이 죄수와 신사라는 상호 모순되어 보이는 두 가지 자아 정체성을 가지게 됨을 주목하였다. 자신이 죄수들과 연루되어 있다는 의식, 그리고 그들과 자신의 처지가 다르지 않다는 자의식은 핍에게 어릴 적부터 죄수라는 자아 정체성을 심어준다. 나중에 핍은 신사가 되었기에 그러한 정체성의 굴레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사회가 강요한 속물성에 예속된 죄수와 다름 없는 상태에 놓이고 도덕적 실패를 겪게 된다. 그는 유산의 출처가 밝혀짐에 따라 속물성뿐만 아니라 해비샴, 매그위치라는 또 다른 감옥이 자신을 감금하고 있다는 자의식을 갖게 되고, 동시에 자신의 비윤리성에 대해서도 분명한 자각을 하기 시작한다. 핍은 상징적인 죽음을 겪고, 자신에게 잘못한 바 있는 이들을 비롯한 주위 인물들에게 속죄의 행위를 함으로써 죄의식을 해소하고 죄수와 신사라는 자아 정체성의 굴레에서 벗어나 도덕적 성숙을 이루면서 이상적인 인간상, 인격자로서의 새로운 신사 정체성을 확립해나가는 것이다.

죄의식에 시달리므로 도리어 깊이가 더 있어진 주인공의 심리에 대한 분석 및 그의 의식과 행동에 대한 통찰은 인간의 내면 세계와 성격 형성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심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찰스 디킨스, 『위대한 유산』, 죄의식, 정체성, 죄수, 신사, 속물성, 성장
학 번: 2017-26575

목 차

국문초록 i

1. 서 론 1

2. 핍의 죄의식의 근원과 전개 9
2.1 핍의 죄의식의 형성 요인 9
2.2 원형적 죄의식에서 도덕적 죄의식으로 22
2.3 죄의식의 결과: 실제를 왜곡하는 상상 26
2.4 타인 이상화의 국면들: 에스텔라와 조의 경우 29

3. 정체성의 혼재와 성장 42
3.1 죄수 핍: 엮임과 갇힘 43
3.2 탈출구로서의 신사상 45
3.3 신사 정체성과 죄수 정체성의 혼재 51
3.4 진정한 신사 정체성의 확립과 인격적 성장 59

4. 결 론 74

인용문헌 81

Abstract 87

1. 서 론

찰스 디킨스(Charles Dickens)에 대해 헨리 제임스(Henry James)를 위시한 일부 비평가들은 종종 그가 소설 속 등장인물들에게 심리적 깊이를 제대로 부여하지 못한 작가라는 비판을 해왔다. 특히 제임스는 『우리 모두의 친구』(*Our Mutual Friend*)에 대한 서평에서 우리는 "그를 피상적인 소설가 중에서 가장 대단한 자라고 불러야 할 것"(call him the greatest of superficial novelists; 787)이라고 비판하면서, "그가 인간의 성격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아무 것도 보태준 것이 없다"(He has added nothing to our understanding of human character; 787)고 지적했다.[1] 이러한 비판과 궤를 같이 하는 조지 오웰(George Orwell)은 단적으로 "디킨스의 캐릭터들에는 정신적 삶이 없다"(Dickens' characters have no mental life; 69)고 말하면서, 그의 캐릭터들이 지닌 과장되고 왜곡된 측면만을 부각시킨다. 물론 디킨스의 작품에 등장하는 일부 캐릭터들은 그런 면이 있지만 적어도 『위대한 유산』(*Great Expectations*)의 주인공 핍(Pip)만큼은 이러한 비난을 피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디킨스는 핍을 죄의식 등 내면에 복잡한 의식을 지닌 인물로 설정하고 그 심리의 변화 과정에 대한 치밀한 묘사를 통해 인간 심리에 대해 깊이 있는 통찰을 하고 있다. 이 작품에서 핍은 고아로 태어나 많은 사람들과 부대끼고 살아가는 파란만장한 삶의 과정을 통해 심리적 깊이와 복잡성을 지닌 캐릭터로 그려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핍의 내면에는 한가지 뚜렷한 심리적 특징이 보이는데, 바로 그의 삶을

[1] 이러한 비판은 디킨스의 후기작에 집중되고 있는데, 제임스는 그의 캐릭터들이 기계적이며 자연의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듯한 기이함의 집합체라고 말하면서 그 중 어느 하나도 실존하는 인간의 모습으로 분류되기 어렵다고 말한다. 즉, 디킨스는 인간형(figure)을 창조했을 뿐이기에 훌륭한 관찰자이자 유머 작가일 지는 몰라도, 인류(men)나 사람(man)을 아는 '철학자'는 아니라는 것이다(787). 제임스가 『위대한 유산』의 캐릭터들은 거론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 모두의 친구』와 비슷한 시기에 쓰인 이 소설의 주인공 핍은 디킨스가 이러한 비판을 받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핍은 보편적인 인간형으로 그려지기보다는 어릴 적의 특수한 경험으로 인해 지니게 된 죄의식이라는 트라우마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치는 인물로 그려진다. 이는 마치 현대 심리학의 트라우마 연구를 예고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것으로, 디킨스가 핍이 죄의식에 반응하는 태도와 의식의 변화, 그리고 그것의 변주로 인해 생긴 다양한 심리 현상을 같이 그려냈다는 점은 그가 단순히 사회 비평가나 제임스의 비판처럼 자신이 무엇에 대해 쓰고 있는지 모르는 도덕주의자(moralist)가 아니라, 심리적 복잡성을 지닌 캐릭터를 창조하고 있다는 자의식을 지닌 '사유하는 작가'임을 드러내 보인다.

관통하고 있는 죄의식이다. 죄의식의 문제는 그의 인격과 삶을 이해하고 성장의 과정과 계기, 그리고 의미를 파악하는데 결정적인 단서가 되며, 나아가 이 소설 전체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행간에 숨겨진 핵심어라고 할 수 있다. 죄의식은 그것과 함께 핍의 심리를 특징짓는 열등 의식, 수치심 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 열등 의식은 수치심을 낳으며, 이 수치심은 나중에 자신의 속물성을 자각한 핍에게 죄의식과 직결되는 같은 성격의 심리이다. 넓은 의미에서 보면 열등 의식과 수치심은 죄의식의 원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죄의식은 이런 모든 심리적 현상을 아우르는 것으로 그의 심리는 물론 성격이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한 열쇠가 된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무엇보다 먼저 핍의 죄의식이 발생한 요인들과 그것의 변화 과정을 추적해보고, 이어서 그것의 변주로서 타인에 대한 이상화라는 그의 관점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그의 자아 정체성 형성에 얼마나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는지를 고찰하고, 결론적으로 그것의 해소와 함께 주인공 핍이 내적 성장으로 나아간다는 점을 규명해보고자 한다. 즉, 죄의식이 삶의 총체적인 국면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출되고 있는지를 심도 있게 논구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기존의 관련연구들을 살펴보면, 국내 학계에서도 『위대한 유산』 에 대한 비평적 연구는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는데, 이러한 연구들은 크게 네 가지 갈래로 분류될 수 있다. 첫째는 핍의 신분 상승과 신사 개념에 주목하는 연구(이인규, 박금희, 문상화), 둘째는 바흐친의 이론을 도입한 텍스트 해석(김명진, 강석진), 셋째는 젠더의 관점에서 논의하는 방식(문상화), 그리고 마지막 넷째는 탈식민주의적 접근(성은애, 장남수) 등 이다.

본고의 주제와 관련하여 비교적 주목할 만한 연구의 방향은 처음 두 가지이다. 첫 번째 연구방향은 이 주제에 대한 국내 연구의 핵심 축을 이루어 온 것으로 주인공 핍의 신분 상승과 연관된 신사 개념을 논의하는 동시에 그의 도덕적 성장에 주목하는 비평이다. 특히 이인규는 신사라는 개념을 재점검하면서 디킨스가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진정한 신사란 어떤 존재인가 라는 새로운 정의가 아니라, 신사의 이상 자체에 대한 해체와 파기였다고 주장한다. 문상화는 디킨스에게서 진정한 신사라는 개념은 물질적 가치를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인본적인 가치에

기초한 개념이며, 그러한 가치관은 핍이 자신의 태생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겸허히 받아 들일 때 비로소 찾아온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인규처럼 디킨스가 제시하는 것이 신사 이상 자체에 대한 해체와 파기라는 주장을 하기 보다는, 주인공 핍이 자신을 타락으로 유인했던 신사 정체성에서 벗어나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하며 성장하는데 초점을 맞추면서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주안점을 두려 한다. 이러한 연구 경향에 비추어 볼 때, 필자의 접근방식은 문상화의 관점과 유사하지만, 본 연구는 그렇게 성장으로 나아가는 과정 속에 나타나는 핍의 심리에 대한 규명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그것과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별성이 유의미한 이유는 내적 성장을 논함에 있어 심리의 변화를 추적하는 것이야말로 필수불가결한 작업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본고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핍의 정체성 확립과 성장이 내면의 열등 의식, 수치심, 죄의식 및 그것들의 극복을 통하여 어떻게 빚어져 가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 소설에 대한 국내 연구의 또 다른 핵심 축은 미하일 바흐친(Mikhail Bakhtin)의 이론을 도입해서 『위대한 유산』을 해석하는 연구들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김명진은 바흐친의 내적 대화 개념으로 소설 속에 나타난 다양한 군소 캐릭터들의 심리적 복잡성을 규명하면서 그들의 의식이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 사람처럼 이중의 목소리(double-voiced)를 내재하고 있기에 사회적 함의와 복잡성을 가지고 있다고 읽는다. 그는 디킨스 소설의 캐릭터들이 사회적으로, 심리적으로 복잡한 캐릭터임을 밝히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연구를 시작했다고 밝힌다. 본 연구 또한 주인공 핍의 심리적 복잡성에 주목하고 있으므로, 연구 의도의 측면에서 그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이 논문에서는 바흐친의 이론을 도입하지 않기 때문에 주인공 핍의 의식이 다양한 사회적 함의들의 투쟁이 벌어지는 공간이라고 읽기보다는 죄의식에 시달리는 자아가 자리잡고 있는 곳으로 보고, 주인공이 보이고 있는 다양한 심리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 그것의 다양한 변주와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려고 한다. 그 밖에 젠더의 관점을 도입한 국내 연구로는 문상화가 에스텔라(Estella)의 여성성 및 섹슈얼리티에 주목해 그것과 소설에 드러난 남성성 사이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가 있고, 탈식민주의의 관점을 도입한 연구로는 성은애와 장남수가 『위대한

유산』 과 그것을 죄수의 관점에서 되받아 쓴 소설들을 비교하며 이 소설을 재해석한 연구들이 있다.

이처럼 『위대한 유산』 에 대해 국내학계에서도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지만, 정작 소설에 나타난 주인공의 심리를 추적하면서 그 핵심에 놓여 있는 죄의식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거의 없다. 하지만 해외학계에서는 핍의 죄의식 문제를 다룬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왔다.

리비스(F. R. Leavis)는 1940년에 발표한 『위대한 전통』(*The Great Tradition*)에서 디킨스가 천재적인 엔터테이너일뿐 창조적인 예술가가 지닌 심오한 책임은 가지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그는 다만 하나의 예외로 『어려운 시절』(*Hard Times*)을 들면서, 이 소설은 '평소의 반복적인 과장과 느슨한 포괄성'(the usual repetitive overdoing and loose inclusiveness; Leavis 29-30)에 의해 손상되지 않았다고 말한다. 이러한 평가에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간에, 리비스는 20세기의 첫 60년 동안 디킨스를 둘러싼 비평가들의 핵심 쟁점이 '느슨한 포괄성'과 '반복적인 과장'을 둘러싼 것이었음을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쟁점들에 있어 그래도 디킨스의 작품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려는 경향은 앞서 살펴본 리비스의 『어려운 시절』에 대한 평가부터 시작하여 신비평가들, 대표적으로 힐리스 밀러(J. Hillis Miller)로 이어진다. 그들에 의해 『위대한 유산』은 비교적 완전한 형식성과 탁월한 언어적 암시성을 구비한 작품으로 각광을 받는다.

그런데 1960년대 이후, 다양한 이론들의 등장으로 인해 급변한 독해 관행에 따라 디킨스의 소설은 구조주의, 해체주의, 역사주의, 라깡과 마르크스주의 이론 등으로 해석되기 시작한다. 특히 역사주의와 마르크스주의의 렌즈로 디킨스를 읽는 이들은 그의 작품 세계를 사회-역사적인 맥락에서 해석하는데, 이를테면 레이먼드 윌리엄스(Raymond Williams) 같은 평자들이 이러한 부류에 속한다. 그는 디킨스가 군중과 도시, 현대적인 사회 규범과 제도, 그리고 산업주의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그를 기존의 비평으로부터 구하려는 시도를 하기보다는 모더니티와 연결 짓는다. 윌리엄스는 헨리 제임스부터 내려온 디킨스에 대한 평가에 동의하면서, "그가 심리적 과정의 세부 사항을 제시하지 않고

완성품, 즉 사회적이고 심리적인 결과물들만 제시한다"(He offers not the details of psychological process but the finished articles: the social and psychological products; 31)고 평한다. 본 논문에서는 『위대한 유산』의 핍이 서술하고 있는 심리적 과정을 추적하므로 한편으로는 윌리엄스의 이러한 평가로부터 디킨스를 변호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디킨스야말로 당대 사회의 어두운 심연을 꿰뚫어 보던 인물이었음을 부각시키고자 한다.

1970년대까지는 『위대한 유산』의 내용에도 초점이 맞추어져 작품의 의미를 다양하게 해석하려는 시도들이 나왔는데, 특히 이 작품이 성장 소설로서 갖는 사회적, 심리적 함의에 대한 해석들이 많이 나왔다. 1980년대부터는 탈구조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은 비평가들이 텍스트로서의 작품이 지닌 해체적 성격을 밝혀내고자 했다. 이는 존 조던(John O. Jordan)처럼 작품을 메타픽션적 텍스트로 분석하거나, 또는 피터 브룩스(Peter Brooks)처럼 작품의 통일성 아래 감춰진 균열을 찾아내거나, 아니면 제레미 탬블링(Jeremy Tambling)처럼 푸코의 이론을 적용해 포스트모더니즘의 주체 문제로 소설을 읽어내려는 시도 등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신역사주의나 탈식민주의 그리고 여성주의적 관점을 도입한 해석들도 적지 않는데, 이러한 비평 경향들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이 중에서도 『위대한 유산』 의 평자들에게 핍의 죄의식은 20세기 중반부터 연구의 핵심 주제로 자리잡아 왔다. 이러한 기존 연구들에서 비평가들은 핍의 죄의식을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해보려고 시도했는데, 이를테면 형이상학적, 상징적, 심리학적-정신분석학적, 그리고 사회적-역사적 관점 등이 그것이다. 1950년대에 『위대한 유산』 에 나오는 죄의식의 문제를 처음으로 다루면서 이것을 중요한 연구주제로 부각시킨 로버트 스탠지(Robert Stange)와 도로시 반 겐트(Dorothy Van Ghent) 같은 이들은 주인공의 죄의식을 사회의 본질 문제와 결부시키거나 그것의 보편적인 의미에 천착함으로써 다소 관념적이면서 형이상학적인 결론에 도달한다. 이들은 핍의 죄의식을 모든 인간에게 공통적인 보편적 죄의식으로 보려고 하고, 심지어 이를 기독교의 원죄론(doctrine of original sin)과 결부시키기까지 한다. 그리고 1960년대에 접어들어 핍의 죄의식을 보편적인 것으로 읽는 이 두 비평가에 대한 비판 작업의 일환으로 줄리안 모이나한(Julian

Moynahan)은 상징적인 관점으로 접근한다. 그는 핍의 죄의식을 개별적인 것으로 읽고 그 심리적 특수성에 주목하면서 올릭(Orlick)이 핍의 더블(double)이면서 그와 죄의식으로 합일되어 있는 인물이라고 주장한다. 이후에는 핍의 죄의식을 정신분석학적 관점에서 읽는 시도들이 나왔는데, 일례로 잭 롤린스(Jack P. Rawlins)는 핍의 죄의식이 자아와 거짓 초자아를 통합하려는 시도의 결과라고 해석한다. 그는 소설 속 문제들의 원인이 타락한 세상으로부터 핍에게로 돌려지면서 그가 잘못을 떠맡고 참회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슐리 바르질라이(Shuli Barzilai)는 스스로를 혹독하게 비판하는 핍의 기질이 죄책감으로 인해 자신이 처벌 받아야 한다고 느끼기 때문이라고 보면서, 이를 프로이트의 도덕적 마조히즘(moral masochism)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려고 한다.[2] 이후에는 소설에 심리적으로 접근하면서도 정신분석학적인 관점을 도입하지 않고 핍의 죄의식이라는 심리 현상 자체에 주목한 연구들이 나왔다. 일례로, 버나드 파리스(Bernard J. Paris)는 핍의 죄의식을 자기 경멸과 같은 선상에 놓이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것이 어른들에 의해 부여된 '무가치함'이라는 부정적 자기 인식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는데, 이러한 접근은 본 연구에서 다뤄질 죄의식에 대한 해석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파리스의 주장에 동의하면서도 이러한 자기 인식이야말로 내면 깊숙이 자리잡아 그의 의식 세계와 삶의 과정에서 다양한 변주로 나타날 죄의식의 근간이 된다고 본다.

21세기에 나온 관련 연구들 가운데는 핍의 죄의식을 사회적-역사적 맥락에서 해석하려고 시도한 데이비드 헤네시(David Hennessee)의 연구가 주목할만하다. 그는 핍의 죄의식을 이상적 신사상(gentlemanly ideal)의 내면화 및 그것의 구현에 대한 실패와 연결 지으면서 19세기 중반 영국 사회의 계층 의식이라는 사회적 맥락에서 접근하고 있다. 죄의식 형성에 대한 이러한 원인 분석은 기존에 나온 형이상학적, 상징적인 접근방식에 비해 훨씬 더 설득력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된다. 이는 핍이 죄의식을 갖게 된 것도 당대의 사회적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고,

[2] 필자 또한 핍이 도덕적 마조히즘을 보이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바르질라이는 핍에게 제2의 아버지인 매그위치가 에스텔라의 부친임이 밝혀짐에 따라, 신분 상승 및 사랑의 이상인 그녀가 근친적 욕망의 대상이 되고, 이에 따라 화자가 주인공 핍의 경험을 전부 죄의식과 처벌의 필요성으로 물들인다고 말하는데, 이러한 설명은 이 소설에 대한 정신분석학적 환원주의 해석의 대표적 예라고 보여진다.

무엇보다 그가 죄를 저지르게 된 것은 근본적으로 사회가 빚어낸 계층 의식과 속물 의식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적, 역사적 해석이 주인공의 의식을 이해함에 있어 상당히 의미 있는 시도이지만, 이런 접근에만 머문다면 핍에게 죄의식을 야기시키고 그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다양한 요인들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지 않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 될 것이다. 나아가 이런 차원에만 머문다면 핍의 죄의식을 사회의 일반적인 현상으로 환원시키면서 자칫 그것을 낳게 한 핍 개인의 특수한 성장 환경 및 독특한 심리 현상들을 간과할 위험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헤네시가 주장한대로 핍이 당대의 이상적 신사상을 내면화한 것이 그의 죄의식을 만들어낸 중요한 요인이었다는 점을 수용하면서 동시에 그것이 그의 고유한 성격과 심리 작용, 그리고 그가 처해 있던 독특한 가정 및 삶의 환경과도 직결되어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결과적으로, 필자는 헤네시처럼 핍의 죄의식을 신사 이상 실현의 실패와 연결 짓기보다는 도리어 그것이 그의 성장에 어떻게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는가에 주목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위대한 유산』 에 심리학적으로 접근하면서도 프로이트 계열의 정신분석학적인 관점을 도입하지 않고 핍의 죄의식이라는 심리 현상 자체에 주목한 연구들의 주제 의식을 이어받고자 한다. 특히 필자는 모이나한의 해석처럼 핍의 죄의식을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것으로 보고, 그것이 형성되는 독특한 생성 배경은 물론, 그것의 심리적 특수성을 심층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독법은 삶의 일반적 정황에서 비롯된 인간 심리의 보편적 성격에 대한 이해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특수한 환경에 놓여 있었던 한 개인이 어떻게 죄의식이라는 심리 현상을 갖게 되었고, 이러한 특정한 심리 현상이 어떻게 그의 의식을 지배하고, 행동을 장악하며, 나아가 삶의 전 과정을 관통하고 있는지를 들여다 보게 하는 것이다. 특히 핍의 죄의식은 본 연구에서 주목할 타자관 내지 대인관, 그리고 정체성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한편으로는 죄의식이 형성되는 근원적인 요인들을 살피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이 인간관계나 삶의 과정에 다양하게 펼쳐지는, 죄의식의 변주와 그 결과들을 추적해보면서 성장 소설로 분류되는 이 소설에서 핍에게 성장이란 무엇이며,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

본 논문은 서론과 결론을 제외하고는 두 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장에서 다루어질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2장에서는 핍의 죄의식의 형성 요인들을 규명해 보고자 한다. 그의 죄의식이 자신의 존재를 무가치하다고 여기는 '원형적 죄의식'에서 시작하여 구체적이고 윤리적인 잘못에 의해 정당화되는 '도덕적 죄의식'으로 변모해 가는 과정을 추적해 보고, 죄의식의 결과로 인해 핍이 어떻게 실재를 왜곡하는 상상을 하고 있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나아가 핍의 죄의식이 만들어내는 타인에 대한 태도 가운데 '이상화'를 대표적인 특징으로 주목하면서 그 이상화의 양상이 에스텔라에게서는 이상화된 자아 이미지를 투영하는 방식으로, 또 조에 대해서는 선한 인격자로 이상화하는 방식으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3장에서는 핍이 죄수와 신사라는 상호 모순되어 보이는 두 가지 정체성을 가지게 됨을 주목하면서, 이 두 정체성이 어떻게 생성되었는지 살펴보고, 다음으로는 이 두 정체성이 어떻게 변화되고 혼재하게 되는지를 논의해 보려고 한다. 그리고 이어서 그가 어떻게 이러한 정체성들의 굴레로부터 벗어나 도덕적, 인격적 성숙을 통해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하는지에 대해 고찰하려고 한다.

이렇게 본고는 『위대한 유산』 의 주인공인 핍이 지닌 죄의식과 정체성의 다양한 변주들을 주목하기 때문에, 자칫 과장이 많이 사용된 평면적인 소설, 혹은 단순히 사회 비판으로 점철된 소설로 읽힐 수 있는 이 작품을 심리적으로 복잡한 내적 자아를 지닌 주인공 화자가 자신의 정체성을 언어로 표현하는 소설이라는 새로운 시각에서 다시 읽게 하고, 나아가 작가인 디킨스를 재평가하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죄의식으로 인해 어쩌면 깊이가 더 있게 된 주인공의 내면세계에 대한 분석과 그의 행동 및 삶에 대한 이러한 통찰은 인간의 내면 세계와 성격 형성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2. 핍의 죄의식의 근원과 전개

2.1 핍의 죄의식의 형성 요인

주인공 핍의 죄의식이 형성되는 과정을 논의하기 전에 우선 본 장의 주제인 죄의식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를 개념적으로 정리해보고자 한다. '죄의식'이라는 개념은 종교적 의미나 심리학적 의미 등 다양한 뜻으로 사용되는데, 우선 기독교에서는 원죄(original sin)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coram Deo) 근본적으로 죄인'이라는 신앙적 의식으로서 존재적 의미가 강한 반면, 『미국심리학회 심리학 사전』(*APA Dictionary of Psychology*)에 따르면 죄의식(guilt)은 "무언가 잘못된 행동을 했거나 아니면 그렇다고 생각하는 고통스러운 감정으로 특징지어진 자의식적 정서"(a self-conscious emotion characterized by a painful appraisal of having done (or thought) something wrong; "guilt")를 의미한다. 이러한 정의를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죄의식'을 실제 잘못의 유무와 상관없이 자기에게 어떤 잘못이 있다는 죄책감이 내면화된 것으로,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부정적인 자의식을 뜻하는 것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통상적으로는 '죄의식'이 '죄책감'과 동의어처럼 쓰이기도 하지만, '죄책감'이 감정적인 부분이 강조되면서 주로 잘못으로 인해 생긴, 타자에 대한 죄스러운 마음의 상태를 의미한다면, 죄의식은 그것을 포괄하는 의식 전반에 관계된 것으로 이러한 죄스러움이 마음의 깊은 곳에 자리잡아 내면화된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죄의식은 한마디로 근본적으로 부정적 자의식의 일종이다.

그러면 핍의 죄의식에 대한 여러 비평가들의 다양한 해석들을 살펴보면서 그것을 어떠한 맥락에서 이해하고, 어떠한 관점으로 접근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우선 핍의 죄의식이 갖는 성격과 의미에 대한 논의에서, 로버트 스탠지는 보편주의적 입장을 표방하며 결정론적 해석을 한다. 그는 순수해 보이는 에스텔라가 죄수인 매그위치(Abel Magwitch)와 살인을 저지른 여인인 몰리(Molly)의 자식이라는 사실, 그리고 뉴게이트 감옥이 온실이고 죄수들은 웨믹(Mr. Wemmick)이 기르는 식물들이라는 비유가 범죄성(criminality)이 삶의

보편적인 조건임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16). 도로시 반 겐트 또한 핍의 죄의식을 해석할 때 사회적 차원에서 출발하지만, 결국 그것을 기독교적 기원을 지닌 원죄와 연결시킴으로써 다소 형이상학적인 해석을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스탠지와 반 겐트처럼 핍의 "죄/죄의식을 인간의 조건"(guilt for the condition of men; Van Ghent 136)으로 보는 것은 핍의 개인적인 죄의식을 보편적인 차원으로 확대시키고, 그를 일종의 만인(everyman)으로 보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고아로 태어나 학대를 당하는 가정 환경에서 자랐고 자기를 일절 가치 없는 존재로 대한 주변 환경 속에서 형성된 그의 죄의식을 인류의 근원적이고 보편적인 죄의식으로 해석하기에는 분명히 무리가 있는 것이다. "핍의 타락이 미리 결정된 사건들의 결과"(Pip's fall was the result of predetermined events; 17)라는 스탠지의 주장은 핍이 처해있던 당대의 여러 가지 사회구조적인 측면을 고려하면 의미 있는 통찰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는 한 걸음 나아가, "핍이 인류 공통의 죄의식에 자신이 연루되었음을 받아 들일"([Pip] accept[s] his own implication in the common guilt; 17) 때 핍이 진일보하게 된다고 말하는데, 핍의 죄의식을 인류 공통의 그것과 연루되어 있으며 미리 결정된 사건들의 결과라고 보는 것은 과잉된 해석임이 분명하다.

데이비드 헤네시는 앞서 언급한 평자들과 마찬가지로 핍을 사회의 문제를 드러내는 보편적 성격의 한 인간으로 보고 있다. 즉, 헤네시에 따르면 누구든지 이상적 신사상을 내면화 하게 되면 핍처럼 죄의식을 가지게 되므로 그는 필연적 귀결인 이상적 신사상 구현의 실패를 보여주는 만인(everyman)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보편화는 개인의 문제를 사회적 조건에 너무 귀착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개인의 깊은 내면 속에 형성된 죄의식을 너무 시대적 영향으로 단순화시키는 환원주의적 논리로 다가온다. 물론 주인공의 심리 저변에 죄의식이 형성되는 것에는 사회적 영향을 무시할 수 없고, 특히, 그가 말한 바대로 당대의 이상적 신사상의 내면화와 결부된 점이 없지 않지만, 핍이 놓여있던 특수한 삶의 환경, 그리고 그의 독특한 성격과 심리 작용 등이 이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원형적 죄의식의 발생 과정과 달리, 핍이 속물 의식을 가지고 죄를

저지르게 된 것은 그가 당대의 신분 사회적 구조와 그것에 따른 신사상 및 계층 의식을 내면화 했기 때문이다. 나아가 그가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느끼는 것은 여러 상징적인 감옥이 그를 구속하며, 또한 실제 감옥과 죄수들이 계속해서 그의 삶과 의식을 유령처럼 따라다니고 있기 때문이기도 했다. 이렇게 볼 때 핍이 죄를 짓는 것이나 죄인이라는 자기 의식을 갖는 데에는 근본적으로 위와 같이 사회적 힘들이 작용하는 것이다.

실로 개인과 사회는 뗄 수 없으며 사회적 배경, 영향력, 힘들의 작용을 바탕에 두고 개인적인 경험이 펼쳐지는 것이기에, 핍의 경험 또한 그러한 맥락에서 읽어야 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디킨스가 그려낸 핍의 개인적인 경험을 살피고 심리를 추적해 나가면서 일면 그것을 빚어낸 사회의 힘을 읽어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면서도 핍의 죄의식을 앞서 언급한 평자들처럼 단순히 보편적인 것으로 보는 것을 지양하고 핍의 독특한 경험과 심리가 갖는 특수성을 주목하려고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필자는 이 소설을 사회의 분위기와 영향 속에 함몰되지 않고 주체성을 회복해 가면서 죄의식으로부터의 출구를 찾고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함을 통해 성장하는 주인공의 심리적 깊이를 드러내 보여주는 것으로 읽는다. 그렇게 핍이 갖는 죄의식과 그것의 다양한 발현 양상들을 살피면서 그의 성장 여부를 논할 것이다.

『위대한 유산』 에서는 어린 핍이 감내하기가 쉽지 않았던 이러한 까닭 없고 막연한 죄의식이나 소설 속 인물들과의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이 종종 과장되고 코믹하게 그려지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어려서부터 타율적 요인에 의해 야기된 그의 죄의식은 심리의 기저에 남아 그의 성장과정에 깊은 영향을 주고, 결국 그것의 해소가 그를 새로운 정체성과 인격적 성숙의 단계로 이끄는 등, 이 주제는 화자의 해학적인 톤에도 불구하고 매우 심각한 것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처럼 죄의식의 문제를 간과하고서는 작품 속 주인공의 독특한 심리와 행동, 인간관계의 양상, 그리고 성장소설로서 이 소설이 갖는 의미와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이제 한 젊은이의 내면세계를 줄곧 사로잡고 그의 삶에 긴 그림자를 드리운 이 어두운 심리 현상에 논의의 초점을 맞춰보고자 한다.

핍의 삶을 줄곧 따라다닌 내면의 죄의식이 애당초 어디에서 기인하는가에 대한 논의에서 잭 롤린스는 핍이 지니게 된 원초적인 부정적 자아관을 지적한다. 그에 의하면 핍의 죄의식은 근본적으로 범죄 행위에서 유발된 것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자기에 대한 타인들의 시각을 내면화하면서 받아들인 자기 존재에 대한 부정 내지 폄하에 기인하고 있다는 것이다.[3] 따라서 롤린스는 이러한 부정적 자아관을 극복하지 못하는 한 실제로 핍의 죄의식은 완전히 해소될 수 없는 것이라고 본다(675). 이러한 부정적 자아관은 스스로의 존재 의미를 미미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아니면 아예 부정하는 자의식으로 핍도 자신이 무엇을 잘못 했는지도 모른 채 그냥 막연히 자신의 존재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면 롤린스가 핍의 죄의식의 근원으로 지적한 그의 부정적 자의식은 도대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 우선 어려서 생긴 대부분의 심리 현상들이 그러하듯이 핍의 경우에도 이것은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 의해 발단된다. 핍의 주변 어른들은 그가 살 가치가 없는 존재이고, 문제투성이인 아이이며,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이라고 막무가내로 비난한다. 특히 핍처럼 예민한 감수성을 지닌 소심한 아이에게 가족과 주변인들이 이렇게 대하는 것은 그의 내면에 크나큰 상흔을 남긴다. 오늘날의 시각에서는 정말 심각한 아동 학대에 해당하는 주변인들의 이러한 언행들로 인해 핍은 스스로를 '존재할 가치가 없는 자'로 간주하게 되었고, 나아가 '죄인'이라는 자기인식까지 갖는다. 일례로 웝슬 씨(Mr. Wopsle)가 펌블추크(Mr. Pumblechook)의 집에서 『조지 반웰의 이야기』(*The History of George Barnwell*)라는 극을 공연할 때, 그는 주인공의 행위가 핍의 짓인 것처럼 표현하면서 그를 최악의 모습으로 보이게 하려고 한다. 펌블추크 또한 마치 핍이 잘못을 저지른 것인양 그를 노려보면서 "교훈으로 삼거라, 교훈으로 삼아!"(Take warning, boy, take warning; 117)라는 말을 반복하는데, 이를 들은 핍은 "반웰이 잘못된 길을 가기 시작했을 때, 단언하건대 나는 꼼짝없이 깊은 죄책감을 느껴야 했다"(When Barnwell began to go wrong, I declare that I felt positively

[3]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버나드 파리스는 핍이 타인이 자기에게 보이는 태도를 누나에게서 습득한 자기 이미지에 근거해 받아들인다고 설명한다(122). 롤린스는 이렇게 형성된 핍의 성향이 그에게 잘못 대한 어른들의 행동을 현명한 것으로 포장하는 동시에 잘못의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게 한다고 주장하는데(675), 필자는 이러한 주장의 예시로 핍이 조, 매그위치와 맺는 관계를 드는 것은 후자의 두 캐릭터의 성격을 오독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apologetic; 117)고 토로한다. 그리고 연극이 끝난 후, 집으로 돌아간 핍은 누나가 공격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는데, 그 공격에 사용된 무기가 자신이 도와준 죄수의 줄칼이라는 것을 채 알기 전부터 그는 "조지 반웰의 이야기가 머리에 가득 차 있던 참인지라 나는 처음에, 바로 **나 자신이** 누나가 공격당한 일에 상당한 역할을 했음에 틀림없다는 믿음에 사로잡혔다"(With my head full of George Barnwell, I was at first disposed to believe that *I* must have had done some hand in the attack upon my sister; 120; emphasis original)고 고백한다. 이렇게 연극이라는 수단을 통한 어른들의 날 선 힐난으로 인해 핍은 막연하게 자신이 그 끔찍한 범죄에 가담한 죄인이나 다름 없다고 여기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핍이 타인의 시각을 내면화 하여 자신을 경멸하는 부정적 자아 인식을 갖는 것이야말로 그의 죄의식을 형성시키는 주요 원인이다.

이와 관련된 텍스트 분석을 통하여, 핍의 죄의식을 형성시킨 구체적인 요인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핍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조 부인(Mrs. Joe)의 태도이다. 하나뿐인 누이가 그의 존재를 부정한 것은 핍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다가왔다. 나아가 혈연적 소속감을 느끼는 동시에 보호받고 인정받아야 할 유일한 안식처와 같은 가정에서 그는 도리어 배척을 당하는 것이다.

핍의 고백에 따르면 조 부인은 자신을 마치 "태어나자마자 출산 담당 경찰에게 체포된 뒤 그녀의 손에 넘겨진 소년 범죄자"(young offender whom an Accoucheur Policeman had taken up (on my birthday) and delivered over to her; 23)처럼 여긴다. 그래서 핍은 그녀로부터 자기가 "이성과 종교와 도덕이 명령하는 것을 거역한 채, 그리고 가장 가까운 내 친구들이 강력히 만류하는 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태어나기를 고집한"(insisted on being born, in opposition to the dictates of reason, religion, and morality, and against the dissuading arguments of my best friends; 23) '죄인'인 것처럼 취급당한다고 느낀다. 허블 부인(Mrs. Hubble)이 조 부인에게 "이 녀석은 당신에게 정말 골칫거리였지요"(He was a world of trouble to you, 27)라고 말할 때, 핍의 고백에 따르면 조 부인은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인다.

그러더니 그녀는 내가 저지른 잘못 탓인 모든 질병, 내가 자지 않고 버틴 모든 행위들, 내가 굴러 떨어진 모든 높은 장소들과 기어 들어간 모든 낮은 장소들, 내 잘못으로 내가 입은 모든 상처들, 그리고 죽어 없어졌으면 하고 그녀가 바랬지만 내가 반항적으로 그러길 거부했던 모든 경우 등, 그 무시무시한 목록들을 죄다 늘어놓기 시작했다.

And then entered on a fearful catalogue of all the illnesses I had been guilty of, and all the acts of sleeplessness I have committed, and all the high places I had tumbled from, and all the low places I had tumbled into, and all the injuries I had done myself, and all the times she had wished me in my grave, and I had contumaciously refused to go there. (27－28)

이렇게 조 부인은 무시무시한 목록을 늘어놓음으로써 철없는 아이로서 핍이 저지른 사소한 행위들은 물론, 그가 세상에 존재하는 사실조차도 마치 그의 잘못인양 몰아간다. 자기의 잘못된 행위는 그렇다 치더라도 본인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자기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누나의 태도는 핍에게 자기는 엄청난 잘못을 했고 문제투성이라는 의식을 심어주었던 것이다. 이는 일찍이 그녀가 질문을 하는 핍에게 “죄수들이 언제나 처음 시작하는 짓은 바로 질문을 해대는 것이야”([Convicts] always begin by asking questions; 15)는 말을 하면서 그의 의식 속에 범죄자라는 자기 이미지를 확고하게 가지게 했던 것의 연장선상에 있다. 여기서 화자 핍은 자신이 받은 학대적 언사에 대해 희화화하는 식으로 표현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위의 인용문에서 화자는 명사구의 나열을 통해 독자들이 핍의 처지에 대해 가질 수 있는 감상적인 느낌을 방지하고 있다(성은애 224). 이러한 톤은 화자가 독자들로 하여금 후에 서술할 그의 잘못에 주목하게 만들고, 나중에 자기 집안에 수치심을 가지게 되는 그의 태도를 문제시하기 위해 자신이 당한 부당한 처우를 희석시키고 가볍게 처리하려는 장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주인공의 심리 형성에 관여된 사건 및 환경의 영향력을 직시하기 위해서 독자는 이러한 화자의 톤과도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

그런데 조 부인이 핍에게 못되게 구는 데에는 그녀의 성격적 내지는 인격적 측면도 작용했겠지만 그녀의 가정사도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녀는 부모와 다른 형제들이 모두 일찍 세상을 떠나면서 어린 동생 핍을 젊을 때부터 손수 기르면서 부모 역할을 해야 했다. 따라서 그녀가 핍을 구박한 것은 적어도 결혼할 때까지는 자기가 가장으로서 가정의 모든 것을 책임져야 했던 압박감과 삶의 무게 때문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나아가 조 부인이 핍에게 그렇게 대한 것은 당대의 사회적 분위기와 무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녀가 가정에서는 핍과 조에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지만 펌블추크를 비롯한 마을 사람들에게는 한결같이 친절하게 대한다는 점은 이러한 점을 시시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녀가 위선으로 점철된 신분 사회의 분위기에 편승하여 당대의 계층 의식을 가지고 부유층과 하층민을 대하는 태도에서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인은 하층민임에도 불구하고 상류층에게는 순응적 내지는 우호적인 반면, 정작 하층 계급에 속한 자기 가족들에게는 비하와 배척의 태도로 일관했고, 특히 동생 핍에 대해서 더욱 그러했던 것이다.

그러면서 그녀는 종종 자신의 신세타령을 하곤 했는데, 이러한 모습에서 조 부인의 사회적 열등감 내지 피해의식을 엿볼 수 있다. 가정의 잡무를 담당하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피해 의식은 “내가 대장장이의 아내가 아니라면, 그리고 (결국은 똑 같은 얘기지만) 앞치마를 결코 벗지 못하는 노예가 아니라면, 틀림없이 나는 캐럴을 들으러 갔을 거야”(Perhaps if I warn’t a blacksmith’s wife, and (what’s the same thing) a slave with her apron never off I should have been to hear the Carols; 22; emphasis original)라는 조 부인의 말에서 엿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조 부인의 행패는 어쩌면 그 자신의 처지에 대한 분노의 표현이다. 그녀는 이러한 자기의 열등감을 동생에게 전가하여 이제 핍으로 하여금 자기 존재에 대한 열등감 내지 피해의식을 지니게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핍이 새티스 하우스(Satis House)에서 겪는 경험 이전에 이미 그에게는 열등감과 피해의식을 가지게 될 심리적 바탕이 마련되어 있었으며, 뒤에 살펴보겠지만, 이러한 열등감 내지 피해의식은 넓은 의미에서 핍의 타락을 촉발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결국, 핍에게 죄의식이 생기는 일차적인 원인은 그 자신이 무엇을

잘못해서라기보다 자신의 출생마저도 문제시함으로써 살 가치가 없는 사람으로 치부해 온 조 부인의 태도였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마을 어른들의 핍에 대한 학대와 폭력적 언행이다. 부모가 없는 고아를 마을 어른들은 사랑으로 대하고 보호해 주기는커녕 갖은 말들로 업신여기고 배척한다. 특히 서로 축복하고 덕담을 나누는 자리인 크리스마스 만찬에서 그들은 그의 누이 못지않게 말로 핍에게 상처를 주면서 그의 막연한 죄의식을 불러일으킨다. 만찬에 참석한 모든 어른들이 일제히 그에게 이러한 언행을 퍼붓는데, 핍의 회상에 따르면 "허블 부인은 고개를 가로젓더니, 내 인생이 좋지 못한 결과로 끝날 거라는 슬픈 예감이라도 든 듯이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어린애들이 도무지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은 대체 뭣 때문일까요?'"(Mrs. Hubble shook her head, and contemplating me with a mournful presentiment that I should come to no good, asked, "Why is it that the young are never grateful?"; 26) 라고 말했고, 그때 허블 씨(Mr. Hubble)는 한 수 거들어 그를 염두에 두고 어린이들이 "'태생적으로 악하기'" ("Naterally wicious"; 26) 때문에 감사하지 않는다고 대답한다. 핍의 소심하고 예민한 성격은 그로 하여금 허블 부인의 표정이 자기의 미래를 비관하는 것이고, 그녀와 허블 씨의 말이 바로 자기를 향한 것이었다고 확신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나아가 어른들은 감정 표현을 못하게 억압하는 것이 자신들임에도 불구하고 핍이 적극적으로 감사 인사를 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그의 죄의식을 유발하는 것이다.

이렇게 핍에 대해 학대행위를 하는 마을사람들 가운데 특히 펌블추크가 그 중심에 있다. 그는 핍을 "어른들이나 더 높은 사람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누리거나 그들과의 대화를 통해 자신을 향상 시키는 등 온갖 호사를 누리며 뒹구는"(enjoying himself with elders and betters, and improving himself with their conversation, and rolling in the lap of luxury; 27) 존재로 규정하고 있다. 자신을 포함한 어른들을 핍이 상종하기 어려운 "더 높은 사람들"(betters; 27) 로 정의하고, 조 부인이 '가치 없는' 것으로 규정한 그의 삶을 두고는 "호사"(luxury; 27)라는 대조적인 키워드를 사용하고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핍으로 하여금 그가 자기 분수에 도저히 맞지 않는 대접을 받고 있다는 자각을 불러일으킴은 물론 그

자신의 가치 없음에 대한 인식을 강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펌블추크의 언행이 끼친 영향은 그가 핍이 돼지 새끼로 태어났으면 어떻게 도살 당했을지를 핍에게 생생하게 묘사함으로써 정점에 달한다. 이렇게 펌블추크를 위시한 마을어른들의 물리적, 감정적 학대는 핍으로 하여금 자신이 잘못했으며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는 심리를 갖게 한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핍은 도둑질을 하기 전날 다음과 같은 꿈을 꾼다.

> 그날 밤 내가 만약 잠을 잤다면, 그것은 단지 거센 조수에 실려 강물을 따라 감옥선을 향해 떠내려가는 내 모습에 대한 상상에 불과했을 것이다. 이 상상 속에는 해적 유령이 나왔는데, 그는 교수대를 지나는 나에게 강가에 올라와서 즉시 교수대에 목 매달리는 게 차라리 나을 테니 망설이지 말고 어서 오라고 확성기로 크게 소리쳤다.

> If I slept that night, it was only to imagine myself drifting down the river on a strong spring tide, to the Hulks; a ghostly pirate calling out to me through a speaking-trumpet, as I passed the gibbet-station, that I had better come ashore and be hanged there at once, and not put it off. (15)

핍은 도둑질이 실상은 자신을 학대한 조 부인의 음식을 훔쳐 불쌍한 죄수를 먹여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즉 법적으로는 죄이지만 사회적으로 용인된 어른들의 학대와 달리 자비의 행위라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꿈이라는 무의식의 차원에서 자신이 처형당할 것이라고까지 생각한다. 이처럼 조 부인과 마을 어른들은 줄곧 핍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극단적인 언행을 일삼았는데, 그들의 이러한 부정적 언어와 태도가 그의 내면에 죄의식을 만든 요인이 되었던 것이다. 이로 인해 예민한 핍은 그렇게까지 심각하지 않은 일에도 예사로 극심한 죄의식을 가지게 되었고, 나아가 심각한 처벌을 예상하게 되었던 것이다.

셋째, 핍에게 죄의식이 생기는 데에는 그의 삶의 주위 환경도 어느 정도 역할을

한다. 여기서 핍의 죄의식이 사회적 환경과도 밀접히 연결되어 있음이 드러난다. 소설의 배경 설정에 따르면 핍의 고향 마을의 늪지대에는 감옥선이 정박해 있었으며, 후에 런던으로 간 핍의 주위에도 뉴게이트 감옥(Newgate Prison)이 도사리고 있다. 『위대한 유산』 에서 디킨스는 그의 다른 소설에 비해 감옥에 대한 직접적인 묘사는 덜 하지만 이 소설에서 감옥은 거듭 환기되는 대상이다. 감옥선과 감옥의 존재는 비록 그것들이 자기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었다고 할지라도, 부지불식간에 그에게 죄수들의 존재에 대한 의식을 불러일으키고 각인시킨다. 푸코(Michel Foucault)는 판옵티콘(Panopticon)이 인간을 감시할 수 있는 모든 시설에 적용되는 거대한 새로운 통치수단이라고 밝히면서 "그것이 죄수를 교화하는 효과뿐 아니라, 병자를 간호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광인을 가두고, 노동자를 감시하며, 걸인이나 빈둥거리며 게으른 자들을 일하게 만드는 효과를 거둔다"(it serves to reform prisoners, but also to treat patients, to instruct school children, to confine the insane, to supervise workers, to put beggars and idlers to work; 205)고 말한다. 즉, 그에 따르면 공장, 학교, 군대, 그리고 병원 등이 감옥을 닮아 있으며, 이러한 "판옵티콘은 언제든지 개입할 수 있고, 결함이나 과오, 범죄가 저질러지기 전부터라도 지속적인 **압력**을 행사한다"(it is possible to intervene at any moment and because the constant *pressure* acts even before offence; Foucault 206; my emphasis)고 주창한다.[4] 이런 푸코의 말처럼, 실제적이거나 상징적인 감옥들의 존재는 핍이 어디로 가든지 그를 끊임없이 따라다니며 감시하므로 실로 판옵티콘과 같은 위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압력'으로 인해 고통받고 스스로를 감시하며 죄의식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다. 즉, 이러한 체제는 핍의 내면에 죄인이라는 자의식 내지는 자신의 죄에 대한 의식을 강화시키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핍은 실제로 타인에 의해 계속해서 감시 당하는 존재로 그려진다. 핍의 외출에는 주로 매부가 동행하며, 둘이서 교회에 가는 모습은 동정심 있는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된다. 런던에 간 이후에도 핍을 향한 감시는 계속된다. 웨믹은 핍에게 그가 감시당하고 있음을 알려 주는데, 실제로 그는 매그위치를 보호하면서 "나는

[4] 푸코는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이 체제가 완력을 쓰지 않고 자발적으로, 소리 없이 운용되면서, 개인에게 직접 작용하며, 정신에 작용하는 권력을 정신에 부여한다고 말한다(206).

감시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I could not get rid of the notion of being watched; 380)고 토로하며, "그러한 느낌을 받은 이후로는 그것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괴롭힌다"(Once received, it is a haunting idea; 380)고까지 말한다. 나아가 법이라는 사회 제도도 핍에게 구속력을 행사하는데, 이와 관련해 허버트(Herbert Pocket)와 싸우고 난 직후에 핍이 하는 일련의 생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상류층 사람들의 집을 헤집고 다니며, 열심히 공부하는 영국 소년을 심하게 두드려 팬 촌놈이 엄혹한 징벌을 받지 않고 시골을 마음대로 활보하고 다닐 수 없는 것만은 분명해 보였다. 나는 심지어 며칠 동안 집 안에 틀어박혀 지내면서, 심부름 가기 전에 아주 조심스럽게 떨리는 마음으로 부엌문 앞에서 밖을 살펴보곤 했다. 혹시 지역 감옥의 교도관들이 나를 덮쳐서 잡아 가지나 않을까 하고 말이다. 그 창백한 어린 신사의 피로 인해 내 바지는 얼룩이 졌는데, 나는 한밤중에 일어나 내가 지은 그 죄의 증거를 씻어 내려고 시도하기도 했다.

> it was clear to me that village boys could not go stalking about the country, ravaging the houses of gentlefolks and pitching into the studious youth of England, without laying themselves open to severe punishment. For some days, I even kept close to home, and looked out at the kitchen door with the greatest caution and trepidation before going on errand, lest the officers of the County Jail should pounce upon me. The pale young gentleman's nose had stained my trousers, and I tried to wash out that evidence of my own guilt in the dead of night. (93-94)

핍은 "지역 감옥의 교도관들이 나를 덮쳐서 잡아 가지나 않을까"(lest the officers of the County Jail should pounce upon me; 94)하는 생각에 "며칠 동안

집 안에 틀어박혀 지내게"(kept close to home; 94) 될 정도로 법이라는 사회 제도는 그에게 두려움을 자아내며 그의 의식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핍의 죄의식은 "창백하고 어린 **신사**"(pale young **gentleman**; 93; emphasis mine)를 다치게 했다는 계층 의식과도 결부되어 있다. 이렇게 볼 때, 핍의 죄의식을 발생시킨 배경에는 개인적인 삶의 환경의 기저에 사회적인 요인들이 놓여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푸코는 "감옥체계의 보편성은 사회의 구석구석에까지 작용하고 교정술과 처벌권을 끊임없이 뒤섞음으로써, 처벌받는 것이 자연스럽고 받아들일만하도록 기준을 낮춰 놓는다"(By operating at every level of the social body and by mingling ceaselessly the art of rectifying and the right to punish, the universality of the carceral lowers the level from which it becomes natural and acceptable to be punished; Foucault 303)고 주장한다. 이와 같이 어릴 적 목격한 감옥선부터 이후 뉴게이트 감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감옥들이 계속해서 삶의 물리적, 심리적 반경 안에 들어오면서 핍은 법과 감옥이라는 제도의 영향력과 위력을 계속 떠올릴 수 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 그는 앞의 인용구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스스로의 행동에 대해 극심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핍을 계속해서 감시하는 판옵티콘 같은 감옥체제는 그 자신이 감시자가 되어 스스로를 감시하며 구속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상의 세 가지 요인들은 핍이 죄의식을 갖는데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는데, 앞의 두 가지가 그가 죄의식을 가지게 된 가장 근본적이고 직접적인 요인들이라고 한다면, 마지막 요인은 다소 부차적이고 간접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마지막 요인은 죄의식의 형성보다는 다음 장에서 다룰 '갇혀 있는 죄수'라는 핍의 자아 정체성 문제와 더 직결되어 있는 것이기도 하다.

핍이 지닌 죄의식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의식 가운데 하나가 열등 의식이다. 이런 열등 의식이 생기는 데에도 개인적인 요인과 사회적인 요인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디킨스가 그린 당대 사회는 신사의 자격이 물질이나 외양으로 결정되고 따라서 그것만 갖추고 있으면 누구나 신사로 인정받고 행세할 수 있는 사회로, 그렇게 만들어진 신사 계층에게는 존대를, 하층민은 멸시하는 부조리한 계층

의식이 퍼져 있는 사회였다. 이렇게 계층 의식은 사회가 개인에게 강요하는 것으로, 새티스 하우스에서 핍은 에스텔라의 경멸 어린 태도를 직면한 후, 열등 의식을 가지게 된다. 이는 새티스 하우스라는 환경과 핍 자신의 민감성 및 소심함이 결부되어 생긴 것이다. 핍은 "그 이전에는 내 거친 손과 투박한 구두에 대해 괴로워한 적이 한 번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것들을 비천한 종속물로 여기며 괴로워하게 되는"([my coarse hands and my common boots] had never troubled me before, but they troubled me now, as vulgar appendages; 62) 것이다. 그는 위에 언급한 성격 탓에 자신이 받은 충격을 있는 그대로 흡수한다.

나아가 핍은 "비참한 심정이 너무나 사무치고 형언할 수 없는 상처가 너무나 쓰라려서 뭔가 중화 작용이 나한테 필요했다"(so bitter were my feelings, and so sharp was the smart without a name, that needed counteraction; 63)고 하는데, 이는 그가 자신의 열등 의식을 개선하려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며, 그러한 과정에서 자기와 자기의 집에 대해 경멸하게 될 것임을 암시한다. 핍의 열등의식은 수치심을 배가시키는 동시에 이러한 경멸을 품게 만들어 종국에는 죄를 낳게 하였고, 또 그의 내면에 죄의식을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자신이 처한 열악한 환경에 대한 경멸은 그래도 그런 환경을 견딜만하게 만들어준 조에 대한 경멸까지도 포함하는 것이 되므로 후에 그러한 자신의 폄하에 대한 죄의식을 야기시키게 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역으로, 열등감이 죄의식을 만드는 게 아니라, 원형적 죄의식이 자기에 대해 부정적인 의식을 가지게 함으로써 열등의식과 수치를 강화시키고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말하자면 열등의식과 죄의식은 원인과 결과가 교환되는 상호작용의 관계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다.

로버트 뉴섬(Robert Newsom)은 "'수치'는 보통 잘못된 행동이나, 경멸을 불러일으키는 결점이나 상황에 대한 느낌이나 의식"("Shame" is in most senses a feeling or awareness of guilty conduct or some other shortcoming or occasion for conduct; 5)을 일컫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처럼 수치는 인간이 다양한 상황에서 느끼는 부끄러운 감정과 그것이 의식 속에 내면화된 상태를 포괄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수치심은 그것이 발생하는 이유와 성격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것은 첫째로 부끄러워할 만한 자신의 잘못된 태도나 행동에 대한 것이요,

둘째로 자기 경멸을 불러일으킬 만한 자신의 결점이나 스스로가 처한 상황에 대한 것이다. 이 가운데 에스텔라와의 대면 장면에서 핍이 갖는 수치심은 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자기 자신과 모든 천박한 대상에 대한 모멸감으로서의 수치심이다. 핍에게 이것은 신분이나 물질적 소유 등 주로 외양에 관한 것으로서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은 자기 비하라고 할 수 있다. 반면 후자와 달리 전자는 자신의 잘못이나 실수를 깨닫는 도덕적 감수성에 의해 발생하는 부끄러움으로 그런 행동에 대한 반성을 통해 인격적 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긍정적인 성격의 것이다. 이 두 가지 모두 결국은 자기 혐오를 발생시키는 배경이 되며, 이러한 자기 혐오는 유산을 상속받고 신사가 됨으로써 일시적으로 해소되었다가 나중에 죄수 매그위치와의 엮임, 그리고 조와 비디(Biddy)에 대한 죄의식으로 인해 재발한다.

2.2 원형적 죄의식에서 도덕적 죄의식으로

이렇게 핍의 죄의식은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조 부인이 만드는 가정 환경, 그를 업신여기고 배척하는 마을 환경, 이들의 의식에 직, 간접으로 영향을 준 당대 신분 사회의 계층 의식, 그리고 소설이 설정하고 있는 핍 주변의 죄수와 관련된 환경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생긴 심리 현상이다. 이러한 요인들은 그로 하여금 윤리적인 잘못이라고 할 수 없는 사소한 일에도 법적인 처벌을 예상하게 하는 죄책감을 갖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어 자기 자신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존재요, 심지어 존재가치가 없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었던 부정적 자의식과 죄의식을 갖게 한다. 이러한 죄의식은 어린 핍의 뇌리에 하나의 잔상으로 남아 그의 의식을 줄곧 장악했던 죄의식이며, 성장한 핍의 서사에서 나타나는 죄의식과는 결이 다른 것이다. 전자에 대해 화자는 별다른 코멘트를 하지 않지만 후자에 대해서는 그것이 주인공 핍에게 생기기 전부터 진작에 그가 가졌어야 하는 것인 양 이야기하며, 주인공에게 그것이 어렴풋이 생긴 이후에도 그것에 대해 한층 강조하는 코멘트를 덧붙인다. 일례로, 런던으로 찾아온 조가 그의 홀대를 받고 떠난 뒤 핍은 처음 얼마 동안은 회한의 감정에 사로잡혀 자신이 조의 집에서 며칠 묵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는 이내 블루보어 여관(The

Blue Boar)에서 숙박해야 할 갖가지 변명들을 생각해내는데, 이를 두고 화자 핍은 주인공을 두고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기꾼”(self-swindlers; 225)이라고 서술하며 자신의 잘못에 대한 죄의식을 억누르는 동시에 그것을 속죄하지 않는 주인공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태도를 취한다.

어린 핍의 의식을 강력히 장악했던 죄의식은 형식상으로는 자율적이고 비판적인 사고가 형성되기 전부터 타인에 의해 주어진 자기 부정에 따라 강요된 죄의식이기에, 주체가 이유도 모르게 생긴 막연한 죄의식이요, 타자에 의해 촉발된 ‘피동적’ 죄의식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용상으로는 본인의 어떤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잘못’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단지 ‘잘못 되었다’ 내지는 ‘잘못했다’는 본인의 막연한 느낌에 근거한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것이다. 나아가 성격적으로는 어려서부터 막연하게 심리의 저변에 자리잡은 이후 삶의 전 과정을 따라다니면서 그의 사유와 행동, 의식과 관점에 영향을 주고 그것들을 결정 짓는 ‘무의식적’인, 그리고 ‘원형적’인 것이다.

그런데 스토리가 진행됨에 따라 핍의 죄의식도 그것에 상응하는 구체적인 근거들을 가지게 되면서 원형적이고 관념적인 형태에서 현실적이고 ‘법적인 잘못’, 그리고 그 다음으로 ‘윤리적 잘못’에 기인하게 되는 형태로 전개된다. 그것은 자율적이고 비판적인 사고가 형성되고 난 이후에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근거해서 생긴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으로 스스로의 잘못을 인지하면서 생긴 ‘의식적’인 죄의식이다. 도덕적 죄의식이 원형적 죄의식에 의해 촉진되고 영향을 받는다면, 원형적 죄의식은 도덕적 죄의식을 통하여 그 관념성, 추상성을 벗고 실제적 근거가 있는 죄의식으로 구체화 된다.

우선 이렇게 막연하고도 관념적인 원형적 죄의식을 법적인 잘못에 근거한 죄의식으로 만들어주는 결정적인 행위가 바로 그가 매그위치를 위해 하는 도둑질이다. 핍은 도둑질을 하는 자신을 두고 ‘유죄’(guilty; 13, 17)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한다. 이는 핍의 도둑질이 원형적 죄의식에 구체적인 내용을 부여해 이것이 그의 의식 속에 실제적 근거를 가지고 고착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그런데 매그위치를 위한 도둑질은 결과적으로는 사회가 죄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이기는 했지만, 동기적 측면에서 볼 때는 윤리적인 잘못이라기보다는

도리어 그의 자비로운 행위로 간주될 수가 있는 것이었다. 그리고 조 또한 매그위치에 대해 “우리는 불쌍하고 가련한 동료 인간인 당신이 그것 때문에 굶어 죽도록 만들지는 않았을 것이오”(we wouldn’t have you starved to death for it, poor miserable fellow−creatur; 40)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그가 핍의 도둑질을 알게 되더라도 그것을 윤리적인 잘못이 아니라 도리어 곤경에 처한 사람을 도우려는 의로운 행동이라고 간주하면서 그의 행위에 동의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핍의 죄의식이 아직은 본인의 ‘윤리적인 잘못’에 기인한 형태에 이르지 않은 것임을 볼 수 있다.

하지만 핍은 뒤에 ‘윤리적인 잘못’을 저지르게 되면서, 그것에 근거한 죄의식의 단계가 곧 전개되는데 이것의 계기는 사회적 신분 상승 욕구의 발휘와 결부되어 있다. 이러한 단계는 자기가 이상으로 삼은 에스텔라에게 인정 받기 위해 그녀의 관점을 내면화하면서 사회 속 자신의 위치를 상승시키려고 한 열망을 가지면서부터 전개된다. 사실 핍의 정신세계에 놓여있는 두 가지 근본 의식 가운데 하나가 죄의식이라면, 다른 하나는 사회적 신분 상승 욕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둘은 그의 내면에서 대척점에 놓여 있다. 왜냐하면 핍은 사회적 상승 욕구를 추구함으로써, 조와 비디를 향한 죄의식을 억누르려고 해왔기 때문이다. 사회적 신분 상승을 향한 그의 욕구는 자신도 부유하고 세련된 상류층의 신사가 되어 그 동안 자기의 존재를 폄하하고 자기의 인격을 짓밟으며 줄곧 괴롭혀 왔던 마을 어른들에게 달라진 자신의 모습을 과시하면서 그들 위에 군림하고 싶은 욕망에 정초 되어 있다. 특히 이는 그가 새티스 하우스에서 자신의 존재가치를 평가 절하 당한 것을 회복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마을 어른들이 핍에게 부여한 ‘무가치함’이라는 자기 인식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들이 핍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데서 기인하는데, 이러한 근원적인 부정은 사실 빠져나갈 출구나 극복할 방법을 거의 찾기 어려운 근본적인 문제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새티스 하우스에서 당한 평가 절하, 즉 핍에게 신사의 속성이 없고 “그가 조야 하다는 점은 (그가 전혀 어찌할 수 없는) 그의 정체성의 본질적 부분이라고도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그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할 그 어떤 것이 아닌 것”(His coarseness is neither an essential part of his identity nor something for which he is responsible; Paris

125)이다. 이는 그 자신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 개선하고 극복할 길을 찾을 수 있는 지적들이었다. 그의 무지함은 공부를 함으로서 극복될 수 있는 것이고, “그의 거친 손과 평범한 부츠”(coarse hands and [his] common boots; 62)는 얼마든지 가꾸고 바꾸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어른들 위로 올라서고자 하는 핍의 욕망은 새티스 하우스에서 발견한 자신의 무가치함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상상한 것이다(Paris 126). 이러한 사회적 상승 욕구의 실현은 ‘무가치함’이라는 자기 인식과 직결된 ‘원형적 죄의식’을 어느 정도 해소 시켜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른들의 범죄자 취급으로 형성된 ‘죄인’이라는 정체성까지 말소되게끔 해주는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사회적 상승 욕구는 핍으로 하여금 조와 비디를 비롯한 사회의 하층민을 홀대하는 윤리적인 잘못을 저지르게 함으로서, 이러한 ‘윤리적인 잘못’에서 기인하는 새로운 죄의식을 가지게 한다. 핍은 새티스 하우스에 다녀오면서 조의 관점과 에스텔라의 관점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며 심란해 하지만, 점차 에스텔라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게 되면서 문맹이고 세련되지 못한 조와 자신의 집안에 불만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점차 자기가 이전에 당했던 평가 절하를 그대로 타인에게 돌려주게 된다. 따라서 핍의 신분 상승 및 그에 따른 사고 방식의 변화와 관련해 ‘숙녀’ 에스텔라가 어린 핍에게 행사하는 영향력이 지배계급이 사회의 모든 다른 구성원에게 행사하는 정신적 주도권의 일환이라는 백낙청의 통찰은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169). 이러한 관점의 변화는 실제적 잘못에서 기인하는 죄의식을 낳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동하고, 이러한 관점들 간의 간극에서 느끼는 수치심은 그의 죄의식을 심화시키기도 하는 것이다.

핍은 런던으로 떠나는 장면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나의 배은망덕함을 좀 더 분명히 깨닫고 후회하는”(more sorry, more aware of my own gratitude; 160) 마음을 가지기도 하지만, 곧 이러한 후회를 떨쳐버리고 런던으로 향한다. 그렇게 런던으로 간 핍은 허영과 자만심에 차서 자기보다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멸시하는 태도를 보이는데, 이것이 큰 잘못이라는 사실을 후에 자신의 지난날을 되돌아보면서 깨닫게 된다. 무엇보다 자기에게 한결같이 잘 해주었던 주변 사람들에게 잘못한 것은 그의 도덕적 죄의식을 더욱 강화시킨다. 핍은 “고통받는

동료들"(fellow-sufferers; 8)로서의 조를 냉대하며 저버리고, 매그위치에 대해서는 혐오감을 가지고 무시했는데, 그의 이러한 행동들이야말로 스스로를 용서하기 어려운 비도덕적 행동이었음을 깨닫는 것이다. 화자 핍은 당시에 "나는 그저 조를 짜증스럽게 여겼고 그에 대해 화만 냈다"(I felt impatient of him and out of temper with him; 222)고 회상한다. 그러면서 그는 "그 때는 이 모든 것이 전부 내 잘못이라는 것과, 그리고 내가 조를 좀 더 편하게 대했다면 조도 나를 좀 더 편하게 대했을 거라는 것을 깨달을 만한 양식이나 지각이 없었다"(I had neither the good sense nor the good feeling to know that this was all my fault, and if I had been easier with Joe, Joe would have been easier with me; 222)고 고백하는데, 화자 핍과 주인공 핍의 사이의 심리적 거리는 이 시기에 정점에 달하며, 이후 주인공 핍이 조와 비디에게 깊은 죄의식을 느끼게 되면서 그 간극은 서서히 좁혀지기 시작한다.

이처럼 핍의 죄의식은 그가 속물근성에 사로잡혀 그보다 사회적 위치가 낮은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그들의 존재가치를 인정하지 못했다는 반성적인 자의식을 지니게 되면서, 특히 그의 유일한 지지자였던 조와 비디를 냉대했다는 진솔한 자기 인식에 다다르면서 정점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행동은 윤리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죄라고 할 수 있기에 그의 죄의식은 이제 단순히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잘못'에 근거한 것이 되면서 실체화 된다. 이러한 죄의식은 이전에 타인으로부터 주어졌던 피동적 죄의식이 아니라 자신이 실제로 잘못을 했다는 의식에서 비롯된 주체적 죄의식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어릴 적에 막연하게 주어진 원형적 죄의식과 달리, 성장한 본인이 스스로의 잘못을 깨달으면서 자의식적으로 가지게 된 도덕적 죄의식이다.

2.3 죄의식의 결과: 실재를 왜곡하는 상상

다음 장에서 핍의 죄의식이 어떻게 그의 대인관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논의하기 전에, 여기서는 그가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죄의식 때문에 실재를 왜곡하는 상상을 하게 된다는 점을 살펴 보려고 한다. 이는 그의 대인관을 특징

짓는 타인 이상화와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실재 왜곡의 상상은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는데, 즉 죄의식으로 인해 자신이 직접적으로 하지 않은 것도 했다고 상상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실제로 한 행동을 두고 의식 속에서 다르게 왜곡하는 식이다. 핍에게서 이러한 두 가지 형태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하나는 자신이 한 행동 때문에 상대 어른이 죽고 말 것으로 상상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어른이 당한 공격에 가담하지 않았는데도 자신이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상상하는 것이다.

핍의 내면에는 그에게 원형적 죄의식을 심어준 어른들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자리잡고 있었다. 그는 크리스마스 만찬 장면에서 "웝슬의 매부리코를 힘껏 잡아당겨 그를 울부짖게 만들고 싶었다"(I should have liked to pull [Mr. Wopsle's Roman nose] until he howled; 28)고 말하는데, 이처럼 어른들을 향한 핍의 분노는 억압되어 상상 속에서 그들에게 복수하는 식으로 나타난다. 핍은 자기가 이러한 마음을 가졌다는 자의식과 또 그로 인해 생긴 죄의식 때문에 그는 자신이 그들에게 한 사소한 행동들조차도 무언가 큰 잘못을 실제로 한 것이라고 느끼는 것이다.

실재를 왜곡하는 핍의 모습은 일찍이 그가 매그위치를 위해 먹을 것과 줄칼을 훔쳤을 때 나타난다. 도둑질을 한 후 들판을 지나갈 때 그는 어린 아이처럼 왜곡된 상상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는 법적인 잘못을 저질렀다는 죄의식으로 인해 무생물들이 사람처럼 자신을 정죄하고 꾸짖는다고 생각한다. 그는 도랑과 강둑들이 "다른 사람의 돼지고기 파이를 훔쳐가는 소년이다! 잡아라!"(A boy with Somebody-else's pork pie! Stop him; 17) 라고 소리친다고 느끼는 동시에, 소들도 "어이, 꼬마 도둑놈!"(Holloa, young thief; 17)이라고 말하며 자기를 부르는 것 같다고 느끼는 것이다. 여기서 이러한 핍의 느낌이 죄의식에서 비롯된 두려움과 결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서 화자 핍이 독자들로 하여금 후에 서술할 자신의 잘못에 주목하도록 하기 위해 자신이 당한 학대를 코믹한 톤으로 서술하면서 그것을 가볍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러한 작업이 반대의 효과를 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장면에서도 핍의 실재 왜곡과 과도한 반응이 비교적 코믹하게 표현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화자 핍은 독자들이

죄의식을 가지고 있던 소년 시절 자신의 모습을 잘 이해하고 그것에 공감하면서 연민의 감정이 우러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실재를 왜곡하는 핍의 또 다른 상상은 크리스마스 만찬 장면에서 펌블추크에게 행한 일과 결부되어 있다. 그에 앞서 핍은 매그위치를 위해 훔친 럼주를 보충하기 위해 타르를 섞어 넣었는데, 펌블추크가 자신이 변질시킨 럼을 마셨기 때문에 죽고 말 것이라는 상상을 하는 것이다. 처음에 그는 자신이 럼주에 타르를 섞어 넣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물을 넣었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행위가 발각될까 두려움에 떤다. 그래서 "펌블추크가 그것이 묽다는 것을 알아차릴 것이고, 그럼 분명히 그렇게 말할 테고, 그럼 나는 끝장인 것"(He would find it was weak, he would say it was weak, and I was lost; 28)이라고 생각하며 두려워한다. 그런데 정작 펌블추크가 발작을 일으키자 핍은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몰랐지만 아무튼 내가 뭔가 잘못해서 그를 살해하게 된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I didn't know how I had done it, but I had no doubt I had murdered him somehow; 28)한다. 이처럼 막연하게 핍은 자신이 그를 죽인 것인 양 상상을 하며 실재를 왜곡하는 것이다.

더 비중 있는 다른 예는 16장의 첫 장면에 나타난다. 이 장면에서 핍은 누나가 공격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자신이 누나를 향한 공격에 직접적으로 연루되었다는 의식을 갖는다. 실제로는 본인이 이 일과 아무런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데도 자신이 공격에 가담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물론 누나를 공격할 때 쓰인 도구가 핍이 도와준 죄수의 족쇄라는 점이 밝혀지기는 한다. 하지만 핍 자신이 직접적으로 그 족쇄를 무기로 제공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자신이 "무기를 **제공했다**"(*provided* the weapon; 121; emphasis mine)고 생각하며,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기가 거의 불가능 했다"(I could hardly think otherwise; 121)고까지 말한다. 핍이 죄수를 도와 족쇄를 풀어주었다는 사실과 그 족쇄가 누나를 폭행한 범행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사실 사이에 직접적으로는 상관관계가 없을 뿐 아니라, 그가 공격 당시에 현장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있었는데도, 그는 누나를 향한 복수 욕망과 그로 인해 생긴 죄의식 때문에 실제적인 책임 관계를 명백하게 왜곡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향한 누나의 학대에 분노를 표출하고 반항하는 대신, 자신이 누나의 부상에 책임이 있다는 의식을 가진다. 죄의식은 이렇게 실제 사실을

왜곡하는 상상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실재를 왜곡하게 하는 불안감의 해소야말로 그의 성장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예민함과 학대로 인해 생긴 핍의 부정적 자의식은 그로 하여금 심각하지 않은 일에도 예사로, 쉽게 죄의식을 가지게 해왔다. 특히 누나의 살인에 가담했다는 비이성적 죄의식은 소설의 후반부에 올릭의 살해 협박을 받으면서 해소된다. 자신이 조 부인을 공격했다는 올릭의 말을 듣자, 그에게는 그 사건에 대한 책임 문제가 분명하게 해소되는 것이다. 이러한 비이성적 죄의식의 해소는 핍의 심리적 정상화에 매우 중요한데, 왜냐하면 그것이 해소되고 나서야 비로소 그가 도덕적 감수성을 찾을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죄의식에 근거하여 실재를 왜곡하는 핍의 상상은 인간관계를 맺을 때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하고 나아가 이상화하는 경향까지 갖게 하는 것이다.

2.4 타인 이상화의 국면들: 에스텔라와 조의 경우

앞장에서 살펴본 바대로 어려서부터 핍의 내면 세계에 자리잡은 죄의식은 그의 삶의 전 과정에서 그를 줄곧 따라다니며 그의 인격 형성과 사고 방식 등 삶의 전반에 걸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이것은 특히 그의 의식이나 관점에 지대한 영향을 주어 세상을 바라보는 그의 시각, 그리고 대인 관계에서 타인을 대하는 방식, 나아가 자아 의식에도 결정적인 작용을 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내면의 죄의식으로 인해 그가 다른 이들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죄의식의 결과로 인해 핍은 전반적으로 부정적 자기 인식을 갖는 반면, 다른 이들, 특히 주변인물들인 에스텔라와 조에 대해서 이상화하는 경향을 보인다. 자기 자신을 타인에 견주어 보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심리에서 잘 드러나듯이, 핍의 이러한 두 가지 심리적 경향은 상호 간에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 런던에서 신사로 행세할 때, 즉 자신의 처지가 우월하다 싶을 때는 자신보다 못하다고 생각되는 상대를 하대하고, 반면에 자기 존재에 대해 부정적인 의식을 가지고 형편이 좋지 않을 때는 자기보다 나아 보이는 상대를 우러러 보게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핍의 심리는 열악한 처지에 대한 자각에 앞서 그의 가슴 맨 밑바닥에 놓여 철저히 부정적 자아의식을 심어준 죄의식이 단초가 된다. 죄의식으로 인해 철저히 자기가 잘못했거나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던 핍이었으므로 상대는 자기보다 낫다고 여기는 심리를 지니게 되었던 것이다. 나아가 이런 핍의 죄의식은 그로 하여금 타자를 이상화하는 데까지 나아가도록 한다.

새티스 하우스에서 당한 경멸 때문에 핍은 사회적 상승을 향한 강한 욕구를 갖게 된다. 이는 어린 시절 어른들로부터 강요된 '무가치함'이라는 자기 인식을 재정의하고 그것으로 인해 생긴 죄의식을 극복할 수 있는 탈출구를 찾는 몸부림인데, 이러한 극복의 과정에서 그는 에스텔라를 이상화 하게 된다. 그래서 핍은 그녀가 자기를 완전히 무시하는 데에서 비롯된 자기 경멸과 자기 혐오 같은 부정적 자기 인식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녀를 세련된 숙녀와 같은 이상적 인간형으로 간주하면서 자신을 그녀의 기준에 맞추려고 노력한다. 그는 "내 소년기를 괴롭게 만들었던 돈과 신분에 대한 그 모든 비참한 동경들, 그리고 내게 집과 조에 대해 처음으로 창피함을 안겨주었던 그 모든 빗나간 갈망들로부터 그녀의 존재를 분리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Truly it was impossible to dissociate her presence from all those wretched hankerings after money and gentility that had disturbed my boyhood—from all those ill-regulated aspirations that had first made me ashamed of home and Joe; 235—236)고 말한다. 이처럼 핍은 에스텔라를 이상화하고 그녀의 가치를 좇으면서 자기 존재의 무가치함을 벗어 던지려고 했다. 이를테면 에스텔라는 핍에게 원형적 죄의식으로부터 벗어나는 탈출구요, 도피처였다.

에스텔라에 대한 핍의 이상화는 그가 그녀를 자신의 의식 속에서 이미지화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앞서 인용한 문장에서, 에스텔라의 존재는 그의 소년기를 괴롭게 만든 '비참한 동경들'과 '모든 빗나간 갈망들'을 안겨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핍은 그러한 측면을 애써 의식하지 않으려 하며 그녀를 조금도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다. 나아가 핍은 에스텔라가 해비샴의 지시 하에 자신에게 온갖 수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그녀에게 아무런 적의도 갖지 않는다. 이처럼 새티스 하우스의 인물들과 맺는 현실 관계에서 느낄 법한 감정과 무관하게 핍은

에스텔라를 이상화 하는데, 이러한 이상화의 조짐은 8장에 나타난 에스텔라에 대한 그의 환상에서도 여실히 표출된다. 이 환상에서 그는 에스텔라가 “가벼운 철제 계단을 올라가더니, 머리 위 높은 곳에 있는 난간을 통해 마치 하늘로 올라가듯이 밖으로 나가는”(ascend some light iron stairs, and go out by a gallery high overhead, as if she were going out in to the sky; 64) 장면을 본다. 이 장면은 핍이 그녀로부터 받은 무시와 상처로 인해 심한 모멸감을 느끼고 매우 힘들어 했음에도 불구하고 에스텔라를 마치 천상의 존재처럼 보고 있음을 암시한다. 그에게 에스텔라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사랑의 관계를 맺고 싶은 상대라기보다는 우러러보고 지향하고 싶은 대상인 것이다.

이와 관련해 버나드 파리스는 핍에게는 에스텔라에게서 사랑을 얻는 것보다 상위의 여성인 그녀로부터 승인을 얻고 그녀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했다고 주장한다(126) [5] . 필자는 이러한 주장에 공감하면서 그것에 덧붙여, 신사가 되겠다는 핍의 열망 자체가 그 당시 그에게는 실현할 길이 전혀 보이지 않던 판타지와 같은 것이었으므로 그러한 열망과 직결된 에스텔라와의 관계에서도 그는 현실적 관계를 무시한 이미지화를 통해 상상적 관계 맺기를 했다고 지적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핍은 에스텔라를 자신의 환상 속에서 이상적인 모습으로 이미지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관계에 대한 상상적 이미지화를 통해서 핍은 그녀의 고유한 주체성을 부정하고 그녀의 정체성을 왜곡한 채 그녀를 오로지 자신의 이상적 자아 이미지와 직결된 이상화 대상으로 삼는다. 즉, 그에게 있어 에스텔라는 교양과 세련됨 등을 갖춘 자신의 이상화된 자아 이미지가 투영된, 또는 그것이 구현된 인물인 것이다.

이러한 이상화는 그녀의 관점을 내면화하는 것이기도 하므로 핍은 신분상 비천한 자기 주변의 사람들에게 대한 경멸의 태도를 갖게 된다. 이러한 핍의 태도는 그의 내면에서 한편으로는 속물 의식이 형성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도덕적 죄의식을 유발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는 신사가 되면서도 이러한 에스텔라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게 되기 때문에 죄의식을 계속해서 억누르며,

[5] 파리스는 이 점과 관련해 핍에게는 에스텔라가 그보다 우월한 상태로 남아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는데, 이는 그래야만 그가 그녀에게 받아들여짐을 통해 자신이 하찮다는 의식을 누그러뜨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127).

그녀를 이상으로서 붙들려 한다.

그런데 이렇게 에스텔라와의 관계에 대한 상상적 이미지화를 하는 핍이 실제로는 그녀를 어떻게 대하는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유산을 상속받고 난 후 핍은 다시 새티스 하우스로 돌아가 에스텔라를 대면한다. 이 때 핍은 "그녀가 지닌 것 외에는 다른 어떤 속성도 그녀에게 부여하지 않았다"(I did not . . . invest her with any attributes save those she possessed; 232)는 말을 통해 자신이 그녀가 표상하는 것이 아닌 그녀 자체를 사랑하고 있으며, 그것이 "한 남자의 사랑"(the love of a man; 232)이라고 고백한다. 그런데 핍은 곧바로 자신과 에스텔라의 관계가 '이상화와 경멸'이라는 어린 시절의 관계로 돌아감을 느끼면서 직전에 한 자신의 고백은 더 이상 의미가 없음을 인식하게 된다. 그는 그녀의 변화를 칭송하는 반면에, 자기 자신을 두고는 "나는 나아진 점이 전혀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녀를 바라보는 순간, 나는 아무런 가망이 없이 또다시 거칠고 상스러운 소년으로 되돌아가고 말았다는 생각이 들었다"(that I seemed to have made [no such wonderful advance]. I fancied, as I looked at her, that I slipped hopelessly back into the coarse and common boy again; 235)고 토로한다. 이러한 절망적인 표현을 보면 에스텔라를 이상화 하는 경향이 역으로 자학적인 자기 인식으로 인해 자신의 모습을 초라한 것으로 왜곡하는 경향과 맞물려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처럼 핍은 에스텔라를 향한 그의 사랑이 실은 어릴 적 관계의 패턴을 따르고 있음을 자각하게 되는데, 이는 그가 자신의 사랑을 "그녀를 완벽한 인간으로 열렬히 믿었을 경우보다"(than if I had devoutly believed her to be human perfection; 232) 덜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에서 잘 암시된다.

이렇게 에스텔라에 대한 핍의 이상화는 그것이 관계 속에서 드러날 때는 그녀에 대한 사랑이라는 탈을 쓰고 표출되어 왔다. 실제로 에스텔라에 대한 이상화는 욕망 내지 사랑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핍의 '사랑'은 본래 해비샴의 기획이 시발점이 된 것이었다. 해비샴은 핍에게 "진정한 사랑은 맹목적인 헌신이고 절대적인 겸손이며, 완전한 복종이고 너 자신과 세상 전체를 거스르는 신뢰와 믿음이며, 네 온 마음과 영혼을 네게 해를 끼친 자에게 바치는 것"([real love] is blind devotion, unquestioning self-humiliation, utter submission, trust

and belief against yourself and against the whole world, giving up your whole heart and soul to the smiter; 240)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그녀가 그에게 느끼라고 가르치는 사랑을 그는 에스텔라와의 관계에서 그대로 경험한다. 그리고 그가 신사가 된 후에는 그녀와 붙어 지내면서 이 관계의 왜곡된 측면을 알게 되지만, 그래도 이것이 그녀를 향한 핍의 감정에는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이는 핍이 어릴 적부터 에스텔라와 맺어오던 관계의 패턴이 그의 뇌리에 너무 강하게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 패턴은 '사랑으로 위장된 이상화'와 '그에 대한 반응으로서 경멸당하는' 패턴으로서 핍은 이러한 틀에서 벗어나는 데 큰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것이다.

한편, 에스텔라는 핍이 자신에 대해 이상적 이미지화를 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자신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그에게 납득시키려고 애쓴다. 그녀는 핍에게 "네 말은 내 가슴 속에 어떤 반응도 일으키지 못해. 나는 네가 말하는 것에 아무런 관심이 없어. 이것에 대해 나는 이미 너에게 경고 하려고 해왔어"(You address nothing in my breast, you touch nothing there. I don't care for what you say at all. I have tried to warn you of this; 362)라고 냉정하게 말하면서 그가 "환상에 빠진 아이"(visionary boy; 364)라고 공박한다.

이렇게 자기의 자존심을 무너뜨린 사람의 기준에 자신을 맞춰 가면서라도 상상적 이미지화를 통해 자아 이상을 확보하려 했던 핍의 시도는 어쩌면 자기 자신에 대한 자학적인(masochistic) 이미지화였다고 할 수 있다. 에스텔라와 핍의 미묘한 내적 관계는 어쩌면 핍과 매그위치의 관계와 유사한 점들이 있다. 그녀가 핍의 모든 아름다운 상상 속에 있었던 것처럼, 핍 또한 매그위치가 오스트레일리아에 있을 때 그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던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에스텔라가 핍에게 신사가 되려는 삶의 목표를 부여한 인물이었다면, 핍 또한 매그위치에게 삶의 목표를 만들어 준 사람이었다. 나아가, 매그위치가 핍을 신사로 만들었기에 자신이 그의 소유주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핍 또한 에스텔라를 자신의 의식 속에 이미지화해 이상형으로 붙들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에스텔라에 대한 이상화를 핍은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가? 그것은 무엇보다 매그위치가 자신의 후견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는 것이 단초가 된다. 이

사실이 밝혀지자 핍은 에스텔라가 자신을 위해 예비된 사람이 아님을 깨닫는다. 죄수인 매그위치가 자신을 신사로 만들었기 때문에 핍에게 있어 신사 정체성과 이상화된 자아 이미지가 파기되며, 따라서 그는 에스텔라를 더 이상 자신의 그러한 자아 이미지가 투영된 인물로 볼 필요가 없게 된다. 나아가 그는 자신의 속물적인 관점을 빚어 왔던 새티스 하우스의 사람들이 자신을 '도구' 내지 '수단'으로 사용해왔음을 깨닫게 되므로 자신이 실제로 그리고 상상적으로 맺어온 에스텔라와의 관계 또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음을 인식하는 것이다.

> 나에 대한 미스 해비샴의 그 모든 의도는 단지 하나의 꿈에 불과했다. 에스텔라는 내 짝으로 예비된 것이 아니었다. 나는 하나의 편리한 도구로서만, 탐욕스러운 친척들에게 고통을 주는 수단으로서만, 다른 연습감이 없을 때 연습 도구로 사용할, 기계적인 심장을 지닌 인형 같은 존재로서만 새티스 하우스에 용인되었던 것이다. 이런 것들이 내가 맨 먼저 느낀 아픔이었다.

> Miss Havisham's intentions towards me, all a mere dream; Estella not designed for me; I only suffered in Satis House as a convenience, a sting for the greedy relations, a model with a mechanical heart to practise on when no other practice was at hand; those were the first smarts I had. (323)

이러한 사건들과 내면 변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핍은 에스텔라를 이상화하는 데서 벗어나게 되고, 더 이상 그녀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지 않게 된다. 그리고 남을 하대하고 경멸했던 자신의 과오를 뼈저리게 느끼면서 그 동안 억누르던 죄의식 또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다.

이렇게 핍은 에스텔라에 대한 이상화를 극복하면서 이제 그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자 한다. 이는 핍이 에스텔라에게 자신이 그 동안 그녀를 이상화해 왔음을

솔직히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의 열변에서 암시되고 있다. 그는 에스텔라의 경고를 줄곧 무시해온 것에 대해 지금까지는 “네가 진심으로 그 말을 할 리 없다고 생각했고 또 그러길 희망 했기”(I thought and hoped you could not mean it; 362) 때문이라고 털어 놓는다. 나아가 그는 그녀에게 자신이 좇아야 할 모범적 이상형이라는 이미지를 부여해왔기 때문에 그녀의 실체를 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한 개인으로서의 인격성과 주체성을 온전하게 직시하지 못했다는 점을 실토한다. 그러면서 그녀가 자신의 “모든 우아한 상상의 화신”(the embodiment of every graceful fancy; 364)이었음을 솔직하게 고백한다. 그러면서 핍은 이제 그녀를 천상적인 존재와 같은 이상적인 인간이 아니라, 그 자신처럼 실수할 수 있는 인간으로 보려는 시각을 드러낸다. 그는 에스텔라가 “내 안의 얼마 안 되는 좋은 면의 일부이자 나쁜 면의 일부”(part of the little good in me, part of the evil; 364)라는 사실을, 즉 그녀가 자신의 타락을 빚어낸 인물이면서도 동시에 자신의 이상화된 자아 이미지를 표상하는 인물이었음을 인정한다. 이렇게 핍은 에스텔라를 이상화하는 과정에서 그녀의 주체성을 부정하고 정체성을 왜곡해 온 것을 바로잡고자 노력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가 “이 이별의 순간에 너를 오직 좋은 것하고만 연결짓겠어. 그리고 언제나 충실하게 그것에 비추어 너를 기억하겠어”(in this separation I associate you only with the good, and I will faithfully hold you to that always; 365)라고 말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녀로 인해 자신의 삶에 드리워진 어두운 그림자를 애써 외면하고 그녀를 미화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에스텔라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여전히 어려운 것임을 시사하는 말이기도 하다. 물론 이러한 태도는 핍이 도덕적으로 성숙해졌기 때문에 내비치는 태도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핍의 전반적인 태도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 즉, “그녀를 오랫동안 둘러싸고 있던 어떤 낭만적 관심의 후광”(some rays of the romantic interest that had so long surrounded her; 408)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는 사실이 에스텔라의 비천한 혈통이 밝혀졌는데도 핍이 환멸을 느끼지 않고 그녀를 계속해서 놓지 못한다는 점을 설명해주는 것이다.

에스텔라에 대한 청년 핍의 태도에서는 소년 시절의 이상화와는 대비되게 그녀를

성적 매력을 지닌 이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는 시각이 엿보인다. 마리아 아이오아누(Maria Ioannou)는 에스텔라에게 몰리로부터 물려받은 집시의 섹슈얼리티와 해비샴에게 배운 상류층 여성의 품위가 공존한다고 주장한다(145). 에스텔라가 야성적이고 '동물적인' 드럼믈(Bentley Drummle)과 결혼한다는 사실은 핍이 세련됨의 화신으로 여기는 그녀의 내면 깊숙이 그것과는 상반되는 다른 본성이 웅크리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나아가 계속해서 핍을 경멸하던 에스텔라는 그가 허버트와의 주먹다짐에서 이기자 그에게 키스를 허락하는데, 이러한 사실은 그녀가 핍이 육체적인 강인함을 내비칠 때에야 비로소 그에게 반응한다는 점을 드러내 보여준다.

핍의 경우에서 디킨스가 빅토리아조 영국 사회는 죄인과 신사 간에 어떤 분명한 경계가 없을 정도로 이 두 가지 대립적인 인간상이 범벅이 되어 있는 사회임을 그려냈다면, 에스텔라의 경우를 통해서도 디킨스는 빅토리아조 사회가 그렇게 구분 지으려고 했던 순결함과 불순함이라는 카테고리들이 엄격하게 구분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에스텔라 이상화에 대한 논의의 결론으로 핍이 진정으로 사랑한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져보고자 한다. 힐러리 스코어(Hilary Schor)는 이 물음에 의미심장한 답을 던진다. 그녀는 핍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은 에스텔라가 아니라 실상은 그의 자기도취적인(narcissistic) 자아 이미지라고 주장한다(Schor 546). 이러한 그녀의 주장은 핍이 "너는 내 존재의 일부고, 나 자신의 일부야"(You are part of my existence, part of myself; 364)라고 에스텔라에게 말한다는 점에서 설득력을 얻는다. 이러한 주장은 상당히 일리가 있지만, 보다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핍이 진정으로 사랑한 것은 에스텔라에게서 보이는 자신의 '이상화된' 자아 이미지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초라한 자신과 대비되는 세련됨의 결정체로 그에게 처음으로 열등의식을 심어주면서 그의 뇌리에 강하게 남은 에스텔라는 신분 상승을 꿈꾸게 된 그가 좇아야 할 모델이자 삶의 목표로 삼아야 할 이상이었고, 이러한 의미에서 그녀는 그의 이상화된 자아상이 투영된 대상이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에스텔라에 대한 핍의 이상화는 결국 욕망적 자기 이상화의 이미지 만들기로 치환된다.

핍의 이상화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우선 자신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어떤 영웅 같은 인물을 떠받드는 형태가 아니라 자신과 가장 가까이 있는 인물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고, 다음으로는 그것이 그의 내면에 놓인 죄의식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에스텔라의 경우에는 이상화가 우선은 '무가치함'이라는 자기 인식에서 비롯된 원형적 죄의식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한 심리적 기제로 나타나는 것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새로운 도덕적 죄의식을 불러 일으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반면 조의 경우에는 이상화가 그에 대한 도덕적 죄의식의 결과로 나타난다. 핍이 에스텔라에게 행했던 이미지화를 통한 이상화는 이제 조에 대한 인격적 이상화의 단계로 나아가게 된다.

핍은 죄수인 매그위치가 자신의 후견인임이 밝혀지면서 신사라는 이상화된 자아 이미지의 실현이 수포로 돌아가자 이러한 자아 이미지를 가지게 했고 또 그것이 투영되었던 에스텔라를 더 이상 이상화하지 않고, 그 대신 이제 조를 이상화 하기 시작한다. 이처럼 조에 대한 핍의 이상화는 유산의 출처가 밝혀짐에 따라 죄수인 매그위치를 위해 그를 버렸다는 사실을 깨닫고 막대한 죄의식을 가지게 되면서 싹트게 된 것이다. 핍은 한결 같은 "순박함과 충실함"(their simplicity and fidelity; 323)을 지닌 조와 비디와는 극명하게 대조되는 자신의 외면과 배신의 행위를 떠올리면서, 한편으로는 깊은 죄의식과 자기에 대한 경멸감을 가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역으로 그들을 도덕적 이상형으로 우러러 보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조에 대한 이상화는 그가 조에게 가졌던 막대한 죄의식을 속죄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이 이상화는 죄의식에 대한 반작용, 즉 죄의식에서 벗어나기 위한 심리적 기제라고 할 수 있다.

사실 핍이 어릴 때는 조를 자기 또래의 덩치 큰 아이처럼 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조의 간호로 열병에서 회복한 후 조에 대해 "그 옛날 내 눈에 비친 모습 그대로, 그는 내 눈에 여전히 그렇게 비치고 있었다. 오직 충실할 뿐이며 오직 올바를 뿐인 그 모습 그대로 말이다"(Exactly what he had been in my eyes then, he was in my eyes still; just as simply faithful, and as simply right; 467)라고 말한다. 이는 핍이 확실히 조를 재평가하게 되었음을 보여주며, 이제는 그를 한결같이 도덕적이고 선한 인격자라고 여기며 이상화하게 되었음을 잘 드러내

보여준다.

에스텔라라는 이상이 핍으로 하여금 속물 의식을 가지게 했다면, 그가 그 다음으로 이상화하게 되는 조가 표상하는 가치는 그 자체로 하나의 이상으로서 유효한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다. 핍이 타인을 이상화 하는 경향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그가 누군가를 늘 우상화하고 타인의 권위에 의존하는 삶을 영위하고 있음을 보여주지만, 그 이상이 정말로 보편타당한 가치가 있고 또 누구나 따를만한 것이라면 그것을 이상화하고 좇는 삶 또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바대로 핍은 자기를 외면해 온 에스텔라의 기준에 부응하기 위해 신사가 되려고 해왔다. 그런데 핍은 배은망덕했던 자신이 몸져누워 있는 동안 간호해 준 조를 두고 "그리스도인다운 고결한 인간"(gentle Christian man; 462)이라고 칭한다. 이 표현에서 유의할 만한 것은 핍이 '신사'(gentleman)라는 합성어를 구성하고 있는 두 단어를 따로 떼어 내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이인규 135). 이는 지금까지 핍이 되려고 욕망했던 '신사'는 도덕적 요소가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라 물질적 부요, 세련된 외양과 태도, 그리고 적당한 교양 등으로 만들어진 그럴듯하게 포장된 신분 개념이었다면, 이제 조에게서 발견하는 '고결한 사람'(gentle man)은 순박함과 훌륭한 덕성을 지닌 진정한 인격자임을 가리킨다. 이렇게 볼 때, 조에게서 핍은 에스텔라에게서 이미지화했던 이상적 존재와는 전혀 다른 이상적 존재를 발견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전의 에스텔라에 대한 이상화가 그녀의 주체성을 부정하는 동시에 스스로도 속물 의식을 갖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면, 조와 비디에 대한 이상화는 핍에게 "내 인격에 일어날 좋은 방향으로의 변화"(the change for the better that would come over my character; 477)를 가져다 주는 것이다.

이제 핍은 조를 자신이 따르고 닮아가야 할 이상으로 삼게 되면서 기존에 자신의 이상화된 자아 이미지였던 계급적 의미에서의 신사상을 더 이상 꿈꾸지 않고, 반면에 도덕적으로 성숙한 인격자이자 이상적인 인간상로서의 신사가 되려고 한다. 이전에 꿈꾸었던 '신사'는 지양해야 할 속물적 신사상이 되고, 이제 그 가치를 재평가하게 된 '고결한 사람'은 핍이 추구해야 할 새로운 신사상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어릴 적 핍이 자신과 동등한 존재로 여겼던 조는 이제 이상적인 인간상을

구현하고 있는 인물로 완전히 재평가되고 있는 것이다. 조는 리비스(Q. D. Leavis)와 개리스(Robert Garis)를 비롯한 몇몇 비평가들로부터 종종 그저 '선하지만 무식한 호인'정도로 평가받아 왔는데, 조에 대한 이러한 평가는 단면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조가 비디로부터 글을 읽고 쓰는 법을 배워 어느 정도 교양을 갖추기 전부터 여러 가지 점에서 현명함을 종종 보여왔기 때문이다. 그가 정규적인 교육과정을 밟지 않아 가진 지식은 빈약하다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삶의 실천적 지혜라고 할 수 있는 현명함은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는 소설의 행간에서 충분히 읽을 수 있는 것이다.

조의 이러한 모습은 9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핍과의 대화 장면에서 엿보인다. 이 대화에서 조는 핍에게 어른들이 흔히 하는 단순한 덕담 같은 말을 하는 듯이 보이지만, 그 말의 행간을 보면 그가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금방 감지할 수 있다. 그는 먼저 핍에게 "나는 천하거나 평범하다는 것에 대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as to being common, I don't make it out at all clear; 71)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그는 모든 사람이 전적으로 천하거나 평범할 수는 없는 것이며, 사람은 누구나 어떤 면에서는 비범하다는, 그가 인생경험에서 얻은 지혜로운 깨달음을 핍에게 전한다. 그러면서 그는 핍을 향해 "너에게도 비범한 점이 여러 가지가 있다"(You are oncommon in some things;) 고 말하며 비범한 학자와 연관시켜 그의 비범함을 지적한다. 물론 이제 글을 겨우 쓰고 있는 핍을 두고 학자라고는 칭할 수 없겠지만, 조는 평범함과 비범함에 대해 계층의 관점을 초월하여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그가 핍에게 "비범한 학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에 앞서 먼저 평범한 학자부터 되어야 하는 법"(you must be a common scholar afore you can be a oncommon one, I should hope; 71)이라고 가르치는 장면은 핍의 마음가짐에 대한 좋은 교훈을 던지는 것으로, 단순히 덕담 수준의 대화가 아닌 그의 교육적 영민함이 번득이는 대목이다. 나아가 계층의 관점에서 조의 이 말을 해석해보면, 그는 평범함이 학습을 통해 비범함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인식 속에, 노력을 통해 얼마든지 계층 상승을 이룩할 수 있다고 핍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그는 상승을 향한 핍의 욕망을 인정하면서도 "네가 만약 똑바른 길을 가는 걸로 비범하게 될 수 없다면, 비뚤어진 길을 가는 걸로는 더더욱 그렇게

될 수 없을 거다"(If you can't get to be oncommon through going straight, you'll never get to do it through going crooked; 72)라고 그에게 교훈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그는 도로시 반 겐트가 지적한 "막대한 유산의 부정적 잠재력"(negative potential of Great Expectations; Van Ghent 133)을 간파하고 있으면서도, 핍이 유산을 받고 난 뒤 겪게 될 인생 행로를 예견하며, 독자가 알고 있는 그의 미래에 정확히 걸맞는 충고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조를 핍은 비디와 더불어 "한결같은 신의와 분명한 일상의 지혜를 입증해 보였던 내 영혼의 안내자"(a guiding spirit at my side whose simple faith and clear home-wisdom; 477)라고 여기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조는 이제 핍에게 존경받는, 그리고 본받아야 할 이상화된 인물의 이미지로 다가온다. 따라서, 에스텔라의 경우가 하층계급이라는 자신의 낮은 신분 및 죄의식에서 비롯된 부정적 자의식으로 점철된 어두운 과거로부터의 탈출구로서의 이상화였다면, 조의 경우는 훌륭한 인격자인 조를 긍정하고 본받고 싶은 인물로, 혹은 삶의 지향점으로 여기는 이상화이다.

그런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작가가 핍의 입을 빌려 조의 사람됨을 극도로 찬양하는 것이 핍 자신의 죄의식과 감사의 마음이 겹친 찬사라는 점이다(백낙청 170). 나아가 조가 속죄하는 핍을 용서할 수는 있지만 사회적 상승을 추구하지 않고 자신의 환경을 수용하며 인내해 온 그가 핍이 신분 상승을 이루려 했던 복잡한 동기와 예민한 그의 죄의식을 불러일으킨 여러 요인을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 더해 이미 상류층의 삶을 경험한 핍에게 조가 자신이 그대로 본받아야 할 모델이 되기에는 현실적으로 분명한 한계가 있다. 이제는 교양과 예절, 품위와 더 풍족한 삶을 경험한 핍이 어릴 적처럼 조와 대장간 생활로 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다. 디킨스는 소설의 마지막에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한 핍이 11년 동안이나 조와 비디는 물론 영국 자체를 떠나 외국에 정착하여 독립적으로 스스로의 인생을 개척해 나가고 있음을 그림으로써 이러한 점을 드러내고 있다. 핍의 미래 인생 행로에서 조가 '현실적인 삶의 인도자' 내지는 '모델'의 역할을 수행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소설이 조에 대한 핍의 이상화로 끝나지는 않지만, 조는 여전히 그의 마음 속에서 "내 곁에 있는 영혼의 안내자"(a

guiding spirit at my side; 477)로 남아 있게 된다.

3. 정체성의 혼재와 성장

『위대한 유산』 에는 핍이 지니는 두 가지 자아 정체성이 비교적 뚜렷하게 드러나는데, 하나는 죄수 정체성이요, 다른 하나는 그것의 극복 과정과 연관되어 나타나는 신사 정체성이다.

우선 죄수 정체성과 관련하여 소설 속에 빈번하게 등장하는 감옥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많은 비평가들은 감옥의 상징적인 의미 내지 기능에 초점을 맞춰왔다. 줄리안 모이나한은 핍이 감옥을 대면하는 것이 “그와 범죄 폭력 세계 사이의 깊은 친연성”(deep affinity between him and a world of criminal violence; Moynahan 60)에 대한 의식을 강화시킨다고 말하며, 힐리스 밀러는 감옥이 소설 속 죄의식과 구원의 드라마에 속하며, 그것의 끈질긴 되풀이는 핍이 “항상 그를 유령처럼 따라다닌 죄의식을 받아들이도록”(accept the guilt that has always haunted him; Miller 274) 강요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독해는 감옥이야말로 그의 정신적 불안을 유발하는 핵심적인 요인으로서 죄수를 위해 도둑질을 한 소년이 그것의 얼룩을 지울 수 없고 줄곧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계속해서 환기시키는 장치로 읽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읽기가 의미있는 이유는 실제로 핍의 내러티브가 감옥이 자신의 삶을 불구로 만들었음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이다. 데이비드 트로터(David Trotter)의 글은 이러한 예전의 비평 경향을 반영하면서, 핍의 죄의식은 “점차 강화되는 도덕적 실패에 대한 인지라기보다는, 범죄행위와의 깊고 미스테리한 친연성 때문”([is] less gradually intensifying recognition of moral failure than a deep mysterious affinity with criminal conduct; viii)이라고 말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기존 연구들의 연장선상에 있지만, 핍이 상징적인 감옥에 갇혀있음을 밝히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종류의 상징적인 감옥에 감금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릴 적부터 신사가 된 이후의 삶에 이르기까지 그에게 어떠한 자아 정체성을 갖게 하는지를 살피는 데에 초점을 두려고 한다. 트로터가 주창한 바대로 범죄 행위뿐만 아니라 범죄자와의 친연성이 핍에게 ‘죄수 정체성’을 심어주는 것으로 보면서, 신사가 된 핍이 도덕적 실패를 겪게 된 것도 그가 속물성에 예속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읽고자 한다. 나아가 핍은

이처럼 상징적으로 감금되어 있는 죄수와 방불한 자신의 상태 및 그것과 결부된 자기의 비윤리성에 대한 분명한 자각을 하고 그것에 대한 속죄의 행위를 함으로써 죄수와 신사라는 자아 정체성 모두에서 해방되면서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해나가는 것이다.

3.1 죄수 핍: 엮임과 갇힘

텍스트는 핍이 어려서부터 죄수라는 자아 정체성을 가질 수 밖에 없었음을 여러 갈래로 시사하고 있다. 이미 2장에서 원형적 죄의식과 자신의 존재가 무의미하고 무가치하다는 부정적 자아관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인식이 비롯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그의 내러티브에 따르면 핍은 자기가 잘못했고, 심지어 자기 존재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여 자기가 죄인이라는 막연한 의식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실제로 구속되어 꼼짝하지 못하게 갇힌 죄수와 같다는 자의식을 지녔음이 드러난다.

우선, 핍은 아주 어릴 적부터 감정을 비롯한 어떠한 자기 표현도 하지 못하게 하는 집안에 갇혀 있었다. 핍은 누나가 “새 옷을 한 벌 맞춰 주러 나를 데리고 갔을 때조차도 양복점 주인에게 옷을 일종의 소년원 제복처럼 지으라고, 그래서 내가 손발을 절대로 자유로이 움직일 수 없도록 하라고 주문을 하곤 했다”(Even when I was taken to have a new suit of clothes, the tailor had orders to make them like a kind of Reformatory, and on no account to let me have the free use of my limbs; 23)고 말하는데, 이는 그를 언어, 행동 등 모든 차원에서 억압하는, 조 부인의 통치 하에 있는 감옥 같은 집안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드러내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 장면에서 핍은 누나가 지어주는 옷에서 죄수가 겪어야 하는 ‘묶여 있음’의 감각을 처음으로 체험한다.

그리고 새티스 하우스에 처음으로 가기 전에 들린 펌블추크의 집에서 핍은 “꽃씨와 구근들이 감옥들에서 탈출하여 꽃을 활짝 피우는 화창한 날을 항상 꿈꾸지 않을까”(whether the flower-seeds and bulbs ever wanted of a fine day to break out of jails, and bloom; 53) 라고 생각하며, 씨앗들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그것들의 꿈을 공유하고자 한다. 핍은 자신을 끊임없이 죄인이라고 매도하는 펌블추크와 그의 집에서 벗어나고 싶었고, 나아가 자신의 의지와 상관 없이 다른 집으로 보내지는 강제적 상황으로부터 마치 죄수가 감옥에서 벗어나듯이 탈출하고 싶어한 것이다.

위의 두 장면에서 핍이 자신의 모습을 투옥되어 갇혀있는 죄수의 상태와 동일시함을 읽을 수 있었다면, 계약으로 인해 조의 도제가 된 핍은 이제 실제로 조에게 '묶임'을 경험한다. 그는 자신이 "마침내 도제로 '묶이게' 되었다"(I was "bound"; 105)고 고백하는데 여기서 '묶임'은 도제 계약을 지칭하는 법률적 용어로 쓰인 동시에 그러한 계약에 수반되는 일상에서의 종속이라는 의미까지 아우르는 관용어로 쓰인 것이다. 핍은 그 동안 조가 자신에게 자애롭게 대해 준 것을 알고 있기에 불만을 노골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으며, 화자는 이것이 "그 시절과 관련해서 내가 나 자신에 대해 기쁘게 기억하는 거의 유일한 사항"(It is about the only thing I **am** glad to know of myself in that connexion; 107; emphasis original)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조와 그러한 관계로 묶여있는 것이 그의 마음에 구속처럼 느껴지는 것은 어찌할 수 없는 것이었다. 특히 새티스 하우스에서 좀 더 고상한 사람들의 삶을 목도하고 온 이후로는 그렇지 않아도 조의 생활 방식에 불만이 생긴 상황에서 그와 도제 관계로 묶인다는 것은 더더욱 구속처럼 느껴지게 된 것이다. 이에 핍은 도제 생활에 대해 "대장간의 모루가 깃털에 불과하게 여겨질 만큼 무거운 돌이 내 매일매일의 삶을 짓누르고 있다"(that I had a weight upon my daily remembrance to which the anvil was a feather; 107)고 토로한다.

이런 식으로 핍에게 생긴 갇혀 있다는 의식, 그리고 묶여 있는 존재라는 의식은 매그위치와의 관계에서 더 발전되고 공고해지면서 본격적으로 죄수라는 자아 정체성을 만들어 낸다. 실제로 핍의 어린 시절은 매그위치의 어린 시절과 유사한 점이 많다. 매그위치처럼 핍도 고아이며, 자의식을 처음 가지기 시작할 때부터 부정적인 자아관을 갖는다. 나아가 둘 다 절망적인 처지에 놓여 있었고, 주위 환경 혹은 당대 사회에 의해 억압 당하고 고통받은 바 있다. 이처럼 자신과 닮아 있는, 탈옥한 죄수인 매그위치를 도와주고 난 이후, 핍은 그와 공모를 했다는 생각을 지니게 된다. 그리고 이는 자신이 매그위치와 엮여 있다는 의식으로 이어지는데,

이러한 의식은 그 이래로 마치 유령처럼 핍을 줄곧 따라다니게 된다. 이는 핍이 유산을 상속받아 런던으로 가는 것이 확정된 상황에서도 "나는 전에도 종종 내가 그 도망자와 한 패라는 사실에 대해 수치심과 결부된 심정으로 생각하곤 했다(I had often thought before, with something allied to shame, of my companionship with the fugitive; 147)고 말하는 데서 여실히 드러난다. 이렇게 자신이 매그위치라는 죄수와 엮여 있다는 점은 여러 가지 실제 상황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그의 뇌리에 환기되면서 그에게 죄수 정체성을 강화시키고 있다. 마을 술집에서 핍은 매그위치의 돈을 전달하는 메신저와 처음 대면하는데, 핍은 "그가 마치 보이지 않는 총으로 나를 특별히 겨냥이라도 하고 있는 듯"(as if he were expressly taking aim at me with his invisible gun; 76) 느낀다. 메신저는 계속 핍만을 바라보면서, 그가 보는 앞에서 매그위치의 줄칼로 럼을 젓는데, 핍은 "그가 나 말고는 아무도 줄칼을 보지 못하도록 이 행위를 했다"(He did this so that nobody but I saw the file; 77)고 말한다. 이같이 교묘한 메신저의 암시로 인해 핍은 그가 매그위치와 연관이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에 대한 생각과 그 때문에 떠오른 "죄수들과 은밀한 공모 관계에 있다는, 그 죄지은 듯하고 비천하고 상스러운 사실"(the guilty coarse and common thing it was, to be on secret terms of conspiracy with convicts; 79)에 대한 생각 때문에 고통 받는다. 메신저의 외양 및 태도와 그가 지닌 줄칼은 핍에게 자신과 매그위치가 엮여 있음을 상기시키고, 자신이 여전히 그의 영향 아래에 있고 그의 시야 안에 들어와 있다는 생각을 하게 함으로 공포에 떨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핍은 범죄자와 연루되어 있다는 의식이나 소외되고 쫓기는 듯한 자신의 처지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된 죄수 정체성을 갖게 되었으며, 여기서 벗어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비춰질 정도로 이러한 정체성은 그를 옥죄여 온다.

3.2 탈출구로서의 신사상

한편 핍이 갖는 두 번째 정체성인 신사 정체성은 죄수 정체성에서의 해방과 결부되어 있다. 핍은 새티스 하우스에서 겪은 경험 때문에 신사가 되려는 열망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그곳에서 심한 모욕과 폄하를 당하게 되자, 그는 열등감과 자기를 무가치하게 치부하는 그런 환경으로부터 벗어나고자 신사가 되고 말겠다는 야망을 품게 된다.

앞서 살펴본 바대로, 죄수처럼 묶여 있다는 그의 자각은 한편으로는 죄의식과 결부된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의 대척점에 놓여있는 신사가 되려는 열망과도 연결된다. 핍에게 '묶여 있는 죄수'라는 자아 이미지는 신사가 되려는 열망을 강화시켜 주는 동시에, 그러한 열망의 동인으로 작용하기도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펌블추크의 집에서 자신도 씨앗처럼 일종의 감옥에 갇혀 있다고 간주한 핍의 자기 인식은 새티스 하우스에서 에스텔라와 해비샴을 대면하게 된 후 생긴 계층 상승에 대한 그의 열망을 강화시킬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갖게 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핍은 새티스 하우스와 그것이 표상하는 고상함이 이렇게 죄수 정체성으로부터 벗어나게 해 줄 탈출구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런데 핍이 신사가 되려는 것은 죄수 정체성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인 동시에, 대장간에 묶인 하층 계급이라는 정체성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우선, 핍은 새티스 하우스에 다녀온 후 "처음부터 미스 해비샴과 에스텔라를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게 하기를 꺼리게 된 내 마음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강력해졌다"(that shrinking from having Miss Havisham and Estella discussed, which had come upon me in the beginning, grew much more potent as time went on; 96)고 말한다. 새티스 하우스의 실체에 대해 핍은 마을 사람들에게 처음에는 과장하거나 왜곡해서 말하다가, 나중에는 아예 화두로 삼지조차 않으려고 하는데, 이는 자신이 이상화하고 동경하는 영역의 실체와 그에 비해 초라한 자신의 현실 사이의 괴리를 느끼고 확인하지 않으려는 심리에서 기인한 태도로 볼 수 있다. 말하자면 꿈꾸는 이상에 비해 초라한 현실이 주는 자괴감과 절망감을 회피하기 위해 두 영역을 분리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이처럼 핍은 새티스 하우스에 다녀온 뒤부터는 자신을 감옥처럼 가두었던 누나의 집과 새티스 하우스의 영역을 분리시키려 하고, 나아가 후자와 조의 대장간 및 도제 생활까지도 분리시키려 한다. 핍은 조와 일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한 것을 자신이 죄수처럼 묶이게 된 사슬로 간주하면서, 이렇게 자신이 갇혀 있는 대장간을 포함한 집의 "모든 것이 조야하고

천박했으며, 어떤 일이 있어도 미스 해비샴과 에스텔라한테 이런 것을 보여 주고 싶지 않았다"(it was all coarse and common, and I would not have had Miss Havisham and Estella see it on any account; 107)고 토로한다. 이러한 그의 말에서 핍에게는 묶여 있고 갇혀 있는 죄수 정체성과 미스 해비샴과 에스텔라가 표상하는 신사 정체성이 결코 화해될 수 없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핍은 자신이 현재로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신사 정체성을 탈출구로 삼으면서 매그위치와의 연결고리에서 벗어나고자 했다. 핍은 "조의 도제라는 길에 들어섬으로써 내 눈 앞에 펼쳐진 인생 행로를 보았던 이 때만큼 그 장막이 무겁고 막막하게 내리 덮친 적은 결코 없었다"(Never has that curtain dropped so heavy and blank, as when my way in life lay stretched out straight before me through the newly-entered road of apprenticeship to Joe; 107)라는 자기의 고백에서 잘 드러나듯이 핍은 자신의 인생이 천하고 절망적이라는 통렬한 자각을 하고 있었다. 거기에다 핍은 은연 중에 해비샴이 자신을 위해 무언가 예비해두었다는 생각을 가져 자신이 에스텔라와 어울리는 세련된 신사가 될 것이라는 꿈을 자연스레 꾸게 되며 새티스 하우스가 표상하고 있는 가치를 획득하는 것을 삶의 우선적인 목표로 삼는다. 이에 따라 핍은 자신의 삶의 일부가 새티스 하우스에 걸쳐져 있다고 느끼기 시작한다.

> 나는 미스 해비샴에 집에 있을 때 "하곤 하던" 것들을 돌이켜 생각하다가 잠이 들었다. 마치 그곳에 가 있었던 게 몇 시간이 아니라 몇 주 또는 몇 달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이다. . . .
>
> 그날은 나에게 잊지 못할 중대한 날이었다. 그것은 그날이 나에게 커다란 변화를 일으킨 날이었기 때문이다. . . . 이 글을 읽는 그대 독자여,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라. 철과 금, 가시와 꽃으로 된, 현재의 그 긴 쇠사슬이 당신에게 결코 묶이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것을. 어느 잊지 못할 날에 그 첫 고리가 형성되지 않았더라면 말이다.

I fell asleep recalling what I "used to do" when I was at Miss

Havisham's; as though I had been there weeks or months, instead of hours. . . .

That was a memorable day to me, for it made great changes in me. . . . Pause you who read this, and think for a moment of the long chain of iron or gold, of thorns or flowers, that would never have bound you, but for the formation of the first link on one memorable day. (72)

그는 자기 집의 천박함에 대해 생각하다가도 마치 새티스 하우스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던 마냥 그곳에 있을 때에 "하곤 하던"(used to do; 72) 것들을 돌이켜 생각하다가 잠이 드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핍이 그가 비록 그 시절에는 천한 삶을 살고 있더라도 그 자신은 결코 매그위치가 처해있던 그런 가련하고 비참한 상태에 있다고 생각지 않으려 했고, 나아가 그런 상태에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 다짐하고 있었음을 볼 수 있다. 핍은 죄수 정체성에서 자유하게 되는 길로 신사 정체성을 붙들려고 한 것이다.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자신의 처지로부터의 탈출구로 생각한 새티스 하우스의 해비샴 또한 핍을 구속하는 인물이다. 그녀는 우선 에스텔라를 이용해 핍으로 하여금 신사가 되어야겠다는 환상을 갖게 하고, 다음으로 핍이 자신으로부터 무엇인가 혜택을 얻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게 하며, 마지막으로 핍이 물려받게 된 유산이 자신이 제공한 것이라는 착각 속에 그를 가두는 것이다. 핍은 신사가 되면 자신이 무가치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원형적 죄의식, 그리고 세련된 새티스 하우스와 투박한 자신을 비교하면서 생긴 열등 의식과 스스로에 대해 갖던 수치심으로부터 벗어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는데, 이 또한 환상임이 드러난다. 핍은 이후 신사가 되고도 윤리적인 잘못을 함으로써 또 다른 죄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행위를 부끄러워하면서 또 다른 수치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그로 하여금 이러한 일련의 환상들을 갖게 한 새티스 하우스를 어린 핍은 "음울하고 쇠창살이 굉장히 많이 달린 저택이었다. 창문들 중 어떤 것들은 담이 둘러쳐져 있었다. 그리고 나머지 창문들 중 아래쪽에 있는 것들은 전부 녹슨 쇠창살이 쳐져

있었다"(dismal, and had a great many iron bars to it. Some of the windows had been walled up; of those that remained, all the lower were rustily barred; 55)라고 묘사한다. 이처럼 새티스 하우스는 어린 핍에게 마치 감옥 같은 인상으로 다가왔는데, 실로 그 속에 살던 에스텔라 또한 해비샴에 의해 관리되고, 그녀의 완벽한 통제 하에 있는, 어쩌면 죄수와 같은 처지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화자 핍은 후에 자신을 신사로 만든 죄수의 유산을 "금사슬과 은사슬"(gold and silver chains; 322)이라고 표현하는데, 위의 인용문에서 드러나듯이 신사가 되겠다는 욕망에 핍을 가두는 해비샴과 새티스 하우스는 그를 묶는 또 다른 사슬인 것이다. 새티스 하우스에 처음 방문한 "어느 잊지 못할 날에 그 첫 고리가 형성되지 않았더라면 현재의 그 긴 쇠사슬이 당신에게 결코 묶이지 않았을 수도 있다"([the long chain] would never have bound you, but for the formation of the first link on one memorable day; 72)는 화자 핍의 말은 핍에게는 신사가 되기 위한 수단을 제공한 매그위치의 사슬보다 신사가 되려는 욕망과 속물적인 삶의 기준을 제공한 해비샴의 사슬이 더 구속력이 있는 것이었음을 시사한다.

결국 어린 핍은 이러한 사실에 대한 자각 없이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막대한 유산이 생김으로 인해 신사가 되는 꿈이 현실적으로 가능해지는 운명을 맞게 되는데, 이때도 자신의 후견인이 해비샴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유산을 상속받고 부유해져 신사가 될 일만 남은 그에게 자신이 지금껏 죄수와 연루되어 있었다는 기존의 인식은 별 의미가 없는 것이 되었다. 지금까지 도망 다니던 죄수를 떠올리거나 그와 연관된 것을 볼 때마다 극심한 공포와 수치를 느꼈던 핍은 이제는 "무덤을 바라보다가 문득 다리에 죄수의 상징인 쇠고랑을 차고 누더기를 걸친 채 벌벌 떨고 있던 그 비참한 죄수가 다시 떠올랐을 때"(when the [graves] recalled the wretch, ragged and shivering, with his felon iron and badge; 147)에도 결코 이전과 같은 반응을 보이지 않고, 대신 "그는 이제 나에게 죽은 존재나 다름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미 죽었을지도 모른다"(he was dead to me, and might be veritably dead into the bargain; 147)고 생각하게 된다. 이처럼 그는 이전까지 자신을 두려움에 떨게 하고 괴롭히던 문제를 생각하면서도 그 속에서 스스로 위안을 찾을 수 있게 되는데, 이는 그가 이전에 자신을 유령처럼 따라다니던 "나와

도망자 사이의 유대"(my companionship with the fugitive; 147)를 파기된 것으로 여길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핍은 더 이상 죄수와 엮여 있다는 의식, 그리고 자신이 비참하게 소외되고 쫓기는 처지에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죄수라는 자의식에서 벗어나는 듯 보인다. 그리고 실제로 외형상으로는 죄수 정체성에서 벗어나 신사 정체성으로 진입하게 되는 듯 했다.

그런데 유산을 상속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다음 날부터 핍과 비디 및 조의 관계는 달라진다. 핍은 학대를 당하고 자신의 처지에 대한 불만을 가지게 되는 와중에도 비디와 조에게는 절대적인 애정을 잃지 않았었다. 일례로, 올릭이 비디에게 구애하는 듯한 태도를 보일 때에도 핍은 이를 신경 쓰며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비디에게 토로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제 핍은 조의 예절에 대해서 운운할 때 비디가 맞받아치자, "너는 날 시기하는 거야, 비디, 그래서 까탈을 부리는 거야. 너는 내게 큰 행운이 온 것 때문에 못마땅한 거야"(You are envious, Biddy, and grudging. You are dissatisfied on account of my rise in fortune; 149)라며 그녀를 나무란다. 나아가 핍은 "조와 비디가 자신에 대해 뭔가 불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불쾌하게 느낀다"(I felt offended: as if they were expressing some mistrust of me; 144). 이처럼 갑자기 굴러 들어온 큰 유산은 그 자체만으로도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는 핍의 시각과 도덕적 감수성을 왜곡시키는 것이다. 조와 비디에게 잘못했다는 의식은 런던에 간 이후부터 어렴풋이나마 핍에게 떠오르기 시작하지만, 그는 매그위치가 자신의 후견인임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이러한 의식을 최대한 억누른다. 하지만 화자 핍은 바로 앞의 인용구에 "그들이 어떤 말이나 표시로도 전혀 그러질 않았건만 말이다"(Though Heaven knows they never did by word or sign; 149)라는 말을 덧붙이는 등, 이제 주인공 핍의 태도가 잘못되었음을 지적하면서 그와 점차 거리를 두기 시작한다. 즉, 화자 핍은 재거스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난 직후 자신의 태도가 무언가 잘못된 것이었고, 그것이 이후에 일어날 자신의 과오와 직결되는 것이라는 판단에서 상기의 서술들을 펼쳐간다. 이처럼 화자와 주인공 사이의 거리는 핍이 런던으로 가면서 점점 더 뚜렷해지지만 그가 신사가 된 이후에 자신의 과오에 대해 어렴풋한 인식을 하기 시작함에 따라 그 거리는 점차 좁혀진다.

3.3 신사 정체성과 죄수 정체성의 혼재

핍이 살았던 빅토리아조 영국 사회는 외면상으로는 신사처럼 보이는 이들이 실제로는 죄수나 범죄자와 다름 없는 경우가 허다한 세상이었다. 즉, 신사들의 윤리적 타락 내지 범죄와의 친연성 때문에 두 가지 대립적인 인간상이 범벅이 되어 있는 사회였던 것이다. 디킨스는 이러한 점을 통찰한 작가로 『위대한 유산』 에서 이를 부각시키면서 핍의 정체성 문제 외에도 여러 가지 면에서 범죄 세계와 신사 세계를 밀접하게 연결시키고 있다. 이는 우선 핍에게 신사가 되려는 열망을 안겨준 에스텔라를 죄수인 매그위치의 딸로 설정한 것이나, 나아가 핍을 실제로 신사로 만든 것도 죄수인 매그위치의 돈이라고 설정한 점 등에서 잘 드러난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범죄 세계와 신사 세계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의 예시인 전자와 후자에 대한 핍의 깨달음은, 각각 핍으로 하여금 죄수 정체성, 그리고 신사 정체성에서 벗어나게 하는 계기가 된다는 사실이다.

작품 속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도 소설의 무대인 당대 사회가 신사 세계와 범죄 세계와 연결되어있는 사회였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일례로 벤틀리 드럼믈은 폭력이 늪지대와 감옥의 세계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교양 있는 런던 사회에서도 존재함을 온몸으로 드러내 보여주는 인물이다. 디킨스는 특히 재거스(Mr. Jaggers)라는 인물을 통해 두 세계의 연결을 잘 그려내고 있다. 죄수들을 상대하며 돈을 버는 재거스는 상류층인 해비샴과 죄수인 매그위치를 동시에 대변하는 인물이다. 나아가 그는 죄수의 딸을 새티스 하우스의 주인에게 입양되게 함으로써 두 세계가 연결되게 만드는 장본인이다. 재거스는 자신의 권력은 과시하면서 상대는 죄인으로 취급하는 데서 만족을 얻는 사람인데, 그의 사무실이 위치한 곳은 공교롭게도 '작은 영국'(Little Britain)이라고 불리는 거리이다. 이름에서도 암시되듯이, 재거스의 사무실이 위치한 '리틀 브리튼'은 영국 사회 내지 핍이 신사가 되기 위해 찾은 런던 사회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다. 디킨스가 이 거리명을 통해서 폭로하는 빅토리아조 영국 사회는 사회적 불평등과 모순으로 가득 찬 사회였다. 실제로 소설에 그려진 대로 당대 영국 사회는 겉모습만 신사인 악당

컴페이슨(Compeyson)은 가벼운 처벌을 받게 하고 매그위치 같은 하층민에게는 중형을 받게 하는 부조리한 사회였다. 이러한 사회에서의 신사 개념은 도덕적 요소가 배제된 사회적 신분 개념으로 통용되는데, 이는 매그위치가 컴페이슨을 두고 "저 악당 놈은 놀랍게도 신사라오"(He's a gentleman, if you please, this villain; 37)라고 말하고 있는 장면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신사라는 명칭이 감옥선으로 돌아가야 하는 악당과 동일시된다는 것은 그 호칭이 인격자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사회계급적 개념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로빈 길모어(Robin Gilmour)에 따르면 빅토리아조 초기에 자신의 위치를 사회 속에서 확립하고자 하는 신흥 계층의 열망 때문에 '신사다움'은 열띤 논쟁의 주제가 되었다(2). 이러한 주제가 전례없이 대두된 것은 급격하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사람들이 신사라는 계급을 쉽게 획득할 수 있을 만큼 부를 축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사다움'이 내포하고 있는 도덕적 요소와 사회적 모호함으로 인해 '신사'라는 개념을 정의하기가 쉽지 않았으며, 이런 정의의 불확실성은 사람들로 하여금 더욱 신사의 지위를 얻고 싶어하게 만들었다(Gilmour 3). 한편, 헤네시는 신사다움에 있어서 도덕적 요소의 강조가 신사적 이상을 민주화 시켰지만, 여전히 신사적 이상은 계급적이었기에 신사의 속물성은 지위 향상의 어쩔 수 없는 부산물이라고 지적한다(Hennessee 309)[6]. 신사적 이상이 계급적으로 남은 이유는 중산 계층들이 신사의 자격 범위를 확장시키면서도 그 계급의 사회적 자부심을 만들어내는 배타성을 버리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주인공 핍이 살고 있는 사회는 신사의 자격이 물질이나 외양으로 결정되고 따라서 그런 요건들만 구비하고 있으면 누구나 신사로 인정받고 행세할 수 있는 사회인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신사 계층에게는 존대를, 하층민은 멸시하는 그야말로 위선과 부조리로 가득 찬 사회였다. 핍의 사회적 위치 내지 재산 정도에 따라 그를 대하는 태도를 싹 바꾸는 펌블추크와 트랍(Mr. Trabb) 같은 인물들에게서 이런 사회에 사는 인간들의 전형을 찾을 수 있다. 재거스로부터

[6] 헤네시는 핍의 죄의식 역시 계층 이상의 피할 수 없는 부산물인 속물 의식 때문에 생긴 것이며, 이렇게 죄의식을 느끼는 것은 사회적 약자들과의 실제 세계에서의 연결을 죄의식을 통해 그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내적 판타지로 대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310). 따라서 이는 실제 관계의 복잡성을 단순화하는 것으로 (계층을 뛰어 넘는) 사회적 동료애를 만들어내는 신사 이상의 사회적 목표를 해치는 것이다. 필자는 핍이 극심한 죄의식을 느끼면서도 조에게 일찍이 사죄하지 않는 이유를 이러한 주장이 설명해준다고 생각한다.

유산을 상속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들은 다음 날부터 핍은 “잘 있거라, 내 어린 시절의 지루한 친구들이여, 이제부터 나는 런던에 가서 위대해질 몸이시다”(farewell, monotonous acquaintances of my childhood, henceforth I was for London and greatness; 147)라고 독백하며 막연한 우월 의식을 가진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인물들과의 관계 속에서 신분적 우월감으로 인한 속물 의식이 그에게 싹트기 시작하는 것은 펌블추크의 달라진 태도를 직면하면서부터다. 핍을 두고 예전에는 “네 발 달린 꽥꽥거리는 돼지 새끼”(four-footed Squeaker; 27)와 같다고 막말을 내뱉곤 하던 펌블추크는 이제 그를 “친애하는 내 젊은 친구”(my dear young friend; 153)라고 부르기 시작한다. 나아가 그는 핍을 “내가 항상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자 나의 특별한 친구”(how he had ever been my favourite fancy and my chosen friend; 155)로 간주하고 있었음을 그에게 각인시켜 주려고 한다. 이에 주인공 핍은 “내가 그 동안 그를 크게 잘못 보았으며 그는 양식 있고 실질적이며 마음씨 좋은 훌륭한 양반이라고 확신”(convinced that I had been much mistaken in him, and that he was a sensible practical good-hearted prime fellow; 155)하기에 이른다.

이처럼 교활한 자의 재빠른 태도 변화와 아첨에 쉽게 생각이 바뀌는 등 핍의 속물 의식은 그가 만나게 되는 사람들의 태도로 인해 조장되고 구체화되고 있다. 부와 사회적 지위를 동일시하는 이런 시대적 분위기는 신사를 속물에 다름 아닌 것으로 만들었는데, 핍 역시 이러한 사회적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핍의 타락은 미리 결정된 사건들의 결과”(Pip’s fall was the result of predetermined events; 17)라는 로버트 스탠지의 주장은 상당히 의미있는 통찰로 보인다. 범죄가 오염시킨 사회에서 핍의 ‘타락’, 즉 타인의 가치를 부정하는 ‘속물 근성’은 이러한 사회에서 계층 상승을 이룩하려는 사람에게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심리 현상인 것이다. 런던으로 떠나기 전날 밤 핍은 꿈 속에서 “여행의 실패” (failures of journeys; 159)를 경험하는데, 이는 자기의 마차를 말들이 끄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끌고 있었기 때문이다. 말이 끌어야 할 마차를 사람이 끄는 것은 핍이 사람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범죄가 만연한 사회에 발을 들어 놓게 됨을 암시하는 동시에, 그가 그러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

사회의 속물 의식을 내면화할 것임을 예고한다. 꿈 속에서의 여행이 실패로 돌아간다는 것은 핍이 삶의 여정에서 도덕적인 타락을 겪을 것이며, 종국에는 그의 신사 되기가 실패할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신사가 된 핍에게서 죄수와 신사라는 두 가지 정체성은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 과연 핍은 죄수 정체성을 벗어 던지고 신사 정체성으로 완전히 진입한 것인가?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그에게는 이 두 가지 정체성이 혼재되어 있다고 말할 수 밖에 없다. 자아 정체성이 생기기 시작할 때부터 내면에 형성되어 그를 따라다닌 죄수라는 자아 정체성은 신사가 된 이후에도 여전히 그의 의식의 저변에 자리잡고 있다. 핍은 이처럼 쉬이 사라지지 않는 죄수 정체성으로부터의 탈출구 내지 도피처로서 신사 정체성을 획득하려고 했지만, 텍스트는 여러 가지 묘사를 통하여 외면상으로는 신사가 된 핍이 여전히 죄수 정체성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함을 보여준다. 신사가 된 핍이 상징적으로는 죄수라고 읽힐 수 있다는 점을 다양하게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핍이 런던에 도착해서 처음 타는 삯 마차는 귀족 가문의 마차였음을 암시하는 화관 문양 장식이 달린 훌륭한 마차이지만, 쇠막대 살이 붙어 있는 것이기도 하다. 디킨스는 이러한 장치를 통해 런던에서의 핍의 삶에 신사라는 상류층 신분과 감옥의 영향력 내지 죄수 정체성이 혼재할 것임을 암시하는 듯 보인다. 나아가, 핍이 런던에서 처음 방문하게 되는 곳은 범죄자들을 상대하는 재거스의 사무실이었고, 그리고 그가 그곳에서 먼저 안내되는 방에는 권총, 칼, 죄수의 얼굴을 본뜬 석고상 등이 자리 잡고 있었다. 또한 다음으로 안내되는 공간도 죄수들을 공개적으로 채찍질하는 곳인 동시에 교수대가 보관되어 있는 장소였다. 핍의 유산 문제를 관리하는 대리인이 변호사인 재거스이므로 그의 사무실은 자연히 핍의 런던 생활의 핵심적 활동 반경이 되는데, 이 곳과 그 주변에 이렇게 죄수를 상징하는 많은 장치들이 놓여있는 것은, 이제는 신사가 된 핍의 삶에 여전히 범죄와 감옥의 어두운 긴 그림자가 드리워질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도로시 반 겐트에 따르면 『위대한 유산』 에 나타나는 범죄는 크게 부모 내지 후견인들이 아이에게 저지르는 범죄, 그리고 계산된 사회적 범죄라는 두 가지 종류로 나타나는데, 이 두 범죄들은 모두 사람을 마치 사물처럼 수단으로 대하는

사고방식으로 인해 발생되고 있다(Van Ghent 134). 이러한 범죄의 대표적인 희생자가 주인공 핍인데, 그가 어릴 적에 당한 학대라는 범죄에는 가해자들이 지닌 이러한 사고 방식이 그 중심에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제 런던에서 살게 된 핍의 삶에도 범죄가 스며드는 것은 그가 이러한 사고 방식이 사회에서 통용되는 일반적인 사고 형태 내지 삶의 방식이라고 믿으면서 그것을 은연중에 내면화 했기 때문이다. 핍이 꿈꾸어 온 런던 사회는 돈으로 신사가 된 그로 하여금 이러한 사고 방식을 내면화 함을 통해 여러 가지 죄를 짓게 함으로써 그를 속물성의 노예가 되게 한다.

이러한 속물 의식은 특히 핍이 에스텔라와 더불어 새티스 하우스를 소유하는 욕망에 눈이 멀어 평생 자기에게 애정을 가지고 도와준 착한 조를 밀어내는 죄를 범하는 데서 결정적으로 발현된다. 조가 찾아올 것이라는 비디의 편지를 받자, 핍은 "상당한 심리적 동요와 창피함, 그리고 자신의 신분에 맞지 않는다는 날카로운 느낌"(considerable disturbance, some mortification, and a keen sense of incongruity; 218)을 가진다. 핍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만약 내가 돈이라도 줘서 그가 오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면 나는 틀림없이 그렇게 했을 것이다"(If I could have kept him away by paying money, I certainly would have paid money; 218)라고까지 말한다. 자신에게 한 없이 다정했던 조의 방문을 기쁘지 않게 받아들이고, 나아가 돈으로 조와의 관계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에서 핍의 속물 의식은 정점에 달한다. 그는 조의 과도한 태도에 얼굴을 찡그리기도 하고, 그가 안절부절 못하며 모자를 계속해서 만지작거리자 자기 손으로 모자를 낚아채 치워 버린다. 이렇게 속물 의식을 드러내는 당시의 자기 모습에 대해 화자는 "그때 나는 이 모든 것이 전부 내 잘못이라는 것을, 그리고 내가 조를 좀 더 편하게 대했다면 조도 나를 좀 더 편하게 대했을 거라는 것을 깨달을 만한 양식이나 자각이 전혀 없었다"(I had neither the good sense nor the good feeling to know that this was all my fault, and that if I had been easier with Joe, Joe would have been easier with me; 222)고 고백한다. 자기 잘못에 대한 이러한 반성은 아직은 화자만의 것이지만, 주인공 핍도 자신이 잘못했다는 의식을 어렴풋이 가지고 있었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는 조가 나가고 난 후 정신을 차리자 마자 급히 그의

뒤를 쫓아 달려나가기도 하고 다음 날 “밀려드는 회한의 물결에 처음 얼마 동안 휩싸이기”(in the first flow of my repentance; 225)도 한다. 자신이 잘못했다는 이러한 의식은 그에게 내재한 도덕적 감수성의 결과로 볼 수 있지만, 핍은 이것을 지속적으로 억누른다. 이는 그가 애초에 신사가 되려는 욕망을 심어준 에스텔라의 관점에 따라 세상을 보려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바로 이 점은 그로 하여금 상스러운 사람을 하대하는 그녀의 태도 역시 자신의 것으로 수용하므로, 그에게 신사가 되고 신사로 살아간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이런 류의 속물 의식을 갖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자신이 이렇게 일종의 죄수라는 어렴풋한 인식을 애써 억누르는 것은 사회적 신분 상승 욕구와 그것에 수반되는 우월 의식, 그리고 자신의 과거에 대한 수치심이 죄의식을 압도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핍은 예전에는 자기가 범죄자와 연루되어 있다는 의식이나 소외되고 쫓기는 듯한 자신의 처지에 대한 인식에서 자신을 죄수라고 여겼었다면, 이제는 양심과 도덕의 차원에서 죄인이라는 의식이 어렴풋이나마 싹트게 된다. 조셉 하인즈(Joseph A. Hynes)는 매그위치, 해비샴, 심지어는 핍 자신조차도 핍에게는 감옥을 상징한다고 주장한다(270). 이는 앞의 두 인물과 핍의 연결고리에 대한 의미 있는 통찰로 볼 수 있으며, 핍이 갖는 죄수와 신사라는 두 정체성의 혼재에 관한 필자의 논의와 맥을 같이 한다. 하인즈는 핍이 이러한 감옥들로부터 해방되는 과정에 대해서 다소 두리뭉실한 설명을 하는데, 필자가 볼 때 핍은 신사가 되기 전에는 조 부인이나 펌블추크, 매그위치, 그리고 해비샴에게 구속되어 있었다면, 신사가 되고 난 후에도 여전히 매그위치와 해비샴에게 구속되어 있으며 나아가 계층 의식에 예속되어 속물성에 갇힌 죄수가 되어 버린 것이다.

> 나는 한 가지 생각에 빠진 채 그 긴 시간을 전부 보냈다. 그것은 내가 이 모든 감옥과 범죄의 오염에 둘러싸여 있다는 것이 참으로 이상하다는 생각이었다. 어린 시절 어느 겨울날 저녁, 고향 마을의 쓸쓸한 습지에 나가서 놀다가 그 세계와 처음으로 우연히 마주친 일부터 시작해서, 그 후 그것이 두 차례나 다시 나타나 마치 희미해지기는 했지만 없어지지 않은 하나의 얼룩처럼 내 삶에 새로이 묻어 나왔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이렇게

새로운 방식으로 내 행운과 출세 속에 스며들어 나타났다는 것은 참으로 이상했다. . . .

그런데 짧은 그 한 순간 또다시 내 마음 속을 스쳐 지나간 그 이름 모를 그림자는 대체 무엇이었을까?

I consumed the whole time thinking how strange it was that I should be encompassed by all this taint of prison and crime; that, in my childhood out on our lonely marshes on a winter evening I should have first encountered it, that it should have reappeared on two occasions, starting out like a stain that was faded but not gone; that it should in this *new way* pervade my fortune and advancement. . . .

What was the nameless shadow which again in that one instant had passed? (264; emphasis mine)

이 인용문은 죄수 정체성이 자신의 삶을 줄곧 따라오고 있다는 점을 핍이 날카롭게 의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죄수 매그위치와의 어릴 적 마주침과 그 이후 메신저와의 두 차례의 만남은 모두 핍으로 하여금 죄수와 연루되어 있고 그들과 더불어 쫓기는 비참한 상태를 공유하고 있다는 자의식을 갖게 했다. 이러한 자의식은 핍이 그토록 의식적으로 억압하고 외면하려고 했던 것으로서, 그는 이 자의식을 상기시키는 메신저와의 만남 자체 또한 잊어버리고 그 기억으로부터 도피하려고 한다. 메신저와의 첫 대면 후 핍은 그가 준 지폐가 "수많은 날 동안 나에게 악몽"(a nightmare to me, many and many a night and day; 79)으로 다가왔다고 말하며 결국 그로 하여금 "줄칼이 누가 그것을 쥐고 있는지는 알 수 없는 채 어떤 문에서 나와서 나를 향해 다가오는"(the file coming at me out of a door, without seeing who held it; 79) 꿈을 꾸게 한다. 여기서 핍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는 줄칼을 쥔 사람이 분명히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대면 이후에도 핍은 죄수들이 탄 마차에서 내리자마자 죄수들이 젓는 보트와 감옥선을 떠올리며, "내가 느낀 공포가 전혀 뭐라고 규정할 수 없는 막연한

것”(my fear was altogether undefined and vague; 230)이었다고 말한다. 이처럼 핍이 느끼는 공포와 그것의 대상이 막연한 이유는 그가 느끼는 공포의 실체가 반복되는 죄수들과의 대면을 통해 자신이 범죄, 그리고 죄수와 연관되어 있다는 ‘막연한 자의식’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의식은 핍이 자신에게 매그위치의 돈을 전달해 준 죄수와 마차를 같이 타는 장면에서 “마차에 함께 타고 있다는 그 기묘한 우연의 일치로 인해, 나는 어느 순간에고 그가 듣는 자리에서 나를 내 이름과 연결하는 뭔가 다른 우연의 일치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the coincidence of our being together on the coach, was sufficiently strange to fill me with a dread that some other coincidence might at any moment connect me, in his hearing, with my name; 228−229) 하는 성격의 것이다.

핍의 막연한 자의식은 위에 길게 인용한 장면, 즉 에스텔라의 마차를 기다리며 생각에 잠기는 장면에서 되살아난다. 범죄와 감옥의 세계가 “희미해졌다”(faded; 264)는 것은 핍이 유산을 상속 받고 신사가 됨으로써 자신으로 하여금 죄수 정체성을 갖게 했던 죄수와의 연결고리를 끊어진 것으로 간주해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그것이 “없어지지는 않았다”(not gone; 264) 것은 사실 범죄와 감옥의 세계가 “새로운 방식”(new way; 264)으로 핍의 삶에 스며들어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즉, 핍은 다른 사람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범죄가 만연한 런던 사회 속에 살면서 그 속에 융화되어 똑같은 범죄를 자신도 저지르게 되기에, 범죄와 감옥의 세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핍의 마음을 스쳐 지나간 “그림자”(shadow; 264)는 자신이 범죄에 새롭게 연루되었으며, 따라서 속물성에 예속되었다는 자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자의식은 이전에 죄수들과의 대면으로 인해 느끼던, 자신이 범죄 및 감옥과 연관되어 있다는 자의식에 의해 더욱 촉발되고 강화되고 있다. 이처럼 신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핍은 죄수 정체성에서 벗어 나지 못했고, 결국 두 가지 정체성이 그 안에 여전히 혼재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는 외면적, 형식적으로는 신사로 변신했지만, 내면적으로는 여전히 죄수로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단순히 신사가 되는 것은 죄수 정체성으로부터의 진정한 해방이나 참된 탈출구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3.4 새로운 신사 정체성의 확립과 인격적 성장

핍은 처음에는 자신의 속물 의식에 대한 분명한 자각이 없이 신사의 지위를 누리다가 자신이 신사가 되게 끔 만들어준 유산의 출처가 죄수인 매그위치임을 깨닫게 되자 강한 혐오감과 수치감, 그리고 깊은 자괴감에 휩싸인다.

> 하지만 무엇보다도 날카롭고 깊은 고통은 내가 조를 저버린 이유가 죄수, 즉 무엇인지도 모르는 죄를 저질렀으며 얼마든지 내가 생각하면서 앉아 있는 이 집에서 잡혀 나가, 올드 베일리 입구에서 교수형을 당할 수 있는 죄수 때문이었다는 사실이었다.
>
> 무슨 일이 있어도 이제는 조나 비디에게 돌아가지 못할 것이었다. 내 생각에 그것은 무엇보다 내가 그들에게 무가치한 행동을 했다는 의식이 컸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어떠한 지혜도 그들의 순박함과 충실함이 주었던 위안보다 더 큰 위안은 줄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한 짓은 결코, 결코, 결코 되돌릴 수 없는 행위였다.
>
> 사납게 휘몰아치는 비바람 소리에서 나는 추적자들의 소리를 들었다.

> But, sharpest and deepest pain of all – it was for the convict, guilty of I knew not what crimes, and liable to be taken out of those rooms where I sat thinking, and hanged at the Old Bailey door, that I had deserted Joe.
>
> I would not have gone back to Joe now, I would not have gone back to Biddy now, for any consideration; simply, I suppose, because my sense of my own worthless conduct to them was greater than every consideration. No wisdom on earth could have given me the comfort that I should have derived from their simplicity and fidelity; but I

could never, never, never, undo what I had done.

In every rage of wind and rush of rain, I heard pursuers. (323-324)

이렇게 매그위치와 재대면하고 신사 정체성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과정에서 핍이 가장 통렬하게 인식하는 것은 자신이 조와 비디에게 속물처럼 구는 크나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사실이었다. 여태껏 그가 에스텔라의 태도를 따라 하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한 어렴풋한 자각을 억눌러 왔었는데, 자신이 신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죄수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안 이제는 자신이 신사로 행세했던 것이 그다지 떳떳한 것이 아니라 수치스러운 것이었음을 깨달으면서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게 된다. 핍이 자기의 잘못에 대한 이러한 자각을 하는 시점에서부터 이미 성숙한 상태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있는 화자와 점차 인격적 성숙의 과정을 밟고 있는 주인공 핍의 간극은 좁혀진다. 이에 따라 핍의 태도에 대한 화자의 비판도 확실하게 사그라지지만, 정작 핍은 조와 비디에게 느끼는 죄책감이 너무 막대하기에 어떠한 속죄의 행동도 할 수 없다고 말하며 실행에 옮기지 못한다.

그럼에도 이미 반성의 길에 접어든 핍은 자기가 자유롭게 사는 신사가 아니라 실상은 사회가 구축한 속물성에 예속된 죄수이자 그것의 노예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소설의 막바지에 이르러 열병에 시달릴 때에 핍은 자신이 "건물 벽에 박힌 한 장의 벽돌이었음"(that I was a brick in the house-wall; 462)을 자각하고, 이제 "건축업자가 집어 넣은 그 현기증 나는 자리에서 제발 좀 빼달라고 간청하고"(entreating to be released from the giddy place where the builders had set me; 462) 있다. 이러한 그의 모습에서 그가 범죄가 만연하고 그것을 저지르게 하는 사회의 영향력에 예속되지 않고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저항과 결단으로 오히려 이러한 것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자세를 보이게 됨을 알 수 있다.

이 지점에 이르면 죄의식을 비롯한 핍의 의식 형성에 외부적인 사회적 요인이 더 이상 타율적으로 작용하지 않게 된다. 핍은 "내가 심연 위로 철커덩거리며 빠르게 회전하고 달려가는 거대한 그 증기기관의 강철 지렛대였지만, 그 증기기관을

중지시키고 거기에서 내가 차지하고 있는 부분을 망치로 쳐서 떼어내 달라고 애원하는"(that I was a steel beam of a vast engine, clashing and whirling over a gulf, and yet that I implored in [my] own person to have the engine stopped, and my part in it hammered off; 462) 환상을 경험한다. 이러한 환상은 무엇을 시사하는가? 그것은 핍이 자기를 둘러싼 사회 시스템 속에 주체 의식 없이 타율적으로 침몰된 채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회 체제의 파워를 인식하면서 그것에 대한 주체적인 판단과 행동을 하게 됨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핍은 사회적 신분 상승을 향한 열망에만 골몰하여 타인의 가치를 부정하고 심지어 그들을 자기 욕망 성취의 수단으로 사용하게 만드는 당대 사회적 분위기의 치명적인 영향력 내지 결정론적 힘에서 의식적으로 벗어나고자 한다는 것이다. 그는 범죄가 오염시킨 사회의 핵심에 죄가 있음을 간파하고, 그 자신은 이러한 사회의 일부가 되기를 거부한다. 실제로 그가 어떠한 행동을 하는 지는 차치하고라도, 이러한 생각의 바탕에는 자신과 매그위치 같은 사회적 약자들을 억누르고 그들의 꿈을 좌절시킴으로써 지배력을 유지, 강화하는 기득권 사회에 대한 비판의식이 깔려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의식 내지 통찰은 핍이 그런 사회 속에서 삶을 영위해가면서 발견한 중요한 깨달음 중 하나이다. 결과적으로, 사회의 잘못된 영향력 행사에 대해 바로 인식하고 비판을 할 수 있는 그의 이러한 주체적이고 사회비판적인 의식은 그가 인격적으로 성숙해졌고 건강한 자의식을 지니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된다. 다시 말해, 핍은 앞서 2장에서 언급한 감시, 법, 감옥 등의 사회 체계와 속물 의식을 갖게 하는 사회의 계층 의식에서 점차 벗어남에 따라 인격적 성숙의 단계에 도달하는 것이다.

매그위치와의 재대면은 이러한 자각을 핍에게 싹트게 하지만, 동시에 핍에게 또 다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매그위치와의 재대면 후 핍의 의식은 "비바람이 사납게 휘몰아칠 때마다 나는 추적자들의 소리를 들었다"(In every rage of wind and rush of rain, I heard pursuers; 324)고 되뇌는 것으로 이어진다. 어릴 적처럼 다시금 죄수와 엮이게 되면서 자신이 매그위치와 같이 쫓기는 죄수 정체성이 그의 의식에 다시금 복원되는 것이다. 이에 핍은 자신이 "어떤 사슬에 묶여 있고 또 얼마나 단단히 묶여 있는지 깨닫기 시작한다"(What I was chained to, and how

heavily, became intelligible to me; 331).

한편 매그위치의 출현은 해비샴이 자신의 은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한다는 점에서 새티스 하우스와 관련된 핍의 오랜 환상을 벗겨낸다. 그는 자신이 해비샴의 노리개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녀가 에스텔라를 자신의 짝으로 고려해 오지 않았다는 것도 간파하게 된다. 핍은 이제서야 해비샴이 만들어 자기에게 둘러 씌운 환상이라는 굴레 속에 갇혀 있었음을 인식하게 되고 이것에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이다.

앞서 핍에게는 죄수 정체성과 새티스 하우스가 표상하는 신사 정체성이 결코 화해될 수 없는 것임을 살펴보았다. 그는 매그위치와 다시 만나기 전부터 자신에게 두 정체성이 동시에 존재함을 인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매그위치가 자신의 후견인임이 밝혀짐에 따라 자신의 신사 정체성 자체가 죄수에 의해 확립될 수 있었던 것이라는 자의식을 갖게 되면서 크나큰 수치심을 느낀다. 즉, 신사라는 지위와 죄수 정체성이 떼어낼 수 없이 '얽혀 있음'을 인식하자, 핍은 신사 정체성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가지게 되고 결국 그런 정체성의 허울을 벗어 던지게 된다. 나아가 죄수의 돈 때문에 조와 비디를 버렸다는 자각은 그로 하여금 유산을 더 이상 받아 쓸 수 없다고 판단하게 하는데, 이로써 자기를 신사로 만들어 주었던 물질적인 기반 또한 붕괴되는 것이다.

그런데 속물성의 노예라는 상태로부터의 자유는 핍이 매그위치라는 한 사람을 온전히 책임지게 됨에 따라, 즉 헌신과 희생이라는 조의 가치를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실천하기 시작하면서 얻어진다. 애초에 핍이 매그위치를 돕기 시작하는 동기는 그의 목숨이 자기에게 달려 있기 때문에 그를 붙잡히게 놔두어 버리면 자기 자신을 그의 살인자로 여기게 될까 두려워서였다. 하지만 그에 대한 책임 의식이 강해짐에 따라 핍은 점차 적극적으로, 그리고 진심으로 그를 돕게 된다. 무엇보다 그의 태도가 변하는 결정적인 계기는 매그위치가 바로 자신이 선망하고 이상화하던 에스텔라의 부친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는 순간이다. 앞서 핍은 "프로비스로부터 내가 움츠러드는 이유 중 얼마나 많은 부분이 에스텔라에게로 돌려질 수 있는지"(how much of my shrinking from Provis might be traced to Estella; 353)는 언급할 필요도 없이 자명한 문제라고 말한 바 있는데, 이제 에스텔라와

매그위치의 관계가 밝혀지자, 핍은 “내가 그토록 걱정하며 보호하는 그 사람에게 그녀를 그토록 오랫동안 둘러싸고 있던 낭만적인 감정의 후광을 일부나마 전이시킬 수 있어서 기쁜 마음이었다”(I was glad to transfer to the man in whose preservation I was so much concerned, some rays of the romantic interest that had so long surrounded her; 408)고 말하며 죄수인 그에게 진정으로 애정 어린 마음을 지니게 된다. 길모어는 이 사건이 핍이 의식적으로 분리시켜왔던 범죄 세계와 신사 세계가 명확히 구분되는 것이 아님을 그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죄의식에 시달리는 신사와 신분 상승을 추구하면서 그가 저버린 대장간 아이 사이의 내적 분열을 극복하게 하는 계기가 된다고 말한다(Gilmour 141). 이러한 주장은 이 사건이 핍의 내적 성장에 기여하는 바에 대해 정확하게 통찰한 것이라고 보여진다.

그런데 이것이 핍의 정체성 문제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 되는 또 다른 이유는, 이를 계기로 그의 의식을 줄곧 사로잡아왔던, 매그위치와 엮여 있다는 사실이 더 이상 그로 하여금 죄수 정체성을 갖게 하는 것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즉, 죄수에 대한 인식이 바뀜에 따라 자신과 매그위치 사이의 연관성을 부정적인 것으로 보지 않게 된 것이다. 죄수 정체성은 그의 기대처럼 신사 정체성을 확보하므로 벗겨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결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없다’는 인간에 대한 바른 이해와 사랑으로 극복된다. 이것이야말로 속물적 신사상과는 다른 이상적인 인간형으로서의 도덕적 신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소설에 만연한 범죄는 인물들이 다른 인간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인데, 해비샴은 세상을 향한 자신의 복수를 위해 에스텔라와 핍을 이용하고, 매그위치도 신사를 만들겠다는 자신의 야망을 위해 핍을 소유하고자 한다. 따라서 핍은 이들의 피해자였다고 볼 수 있는데, 그는 그들을 기꺼이 용서하고 스스로도 매그위치를 재산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기로 결심함으로써 그들의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 이로써 핍은 아직 비디와 조에게 속죄는 하지 못했지만 앞서 살펴본 비디와의 말다툼 장면에서 “신사는 남을 부당하게 대해서는 안 된다”(a gentleman should not be unjust; 150)고 했던 그녀의 말을 구현하는 인물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핍이 조와 비디의 관계에서 적극성을 보이며 주체적인 속죄를 하는 것은

자신이 헌신적으로 보살피던 매그위치가 죽은 이후, 그 자신이 열병에 걸렸을 때 조의 간호를 받고 회복되면서부터이다. 조와 비디에게 속죄하기 이전에 핍은 자신에게 잘못한 바 있는 매그위치를 최선을 다해 보호해주고 돌보아주면서 자신의 죄의식을 어느 정도 해소하는 동시에 인격자라는 새로운 정체성의 바탕이 되는 도덕적 감수성을 되찾는다. 그것은 매그위치가 자신의 후견인임이 밝혀진 이후로 자신을 신사로 만든 근거가 되었던 그의 유산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일체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잘 드러난다. 물론 처음에 그의 유산을 외면했던 이유는 매그위치가 죄수이기에 갖는 혐오감 때문이었다. 조와 비디를 하대했다는 죄의식에 더해 그것이 죄수의 돈 때문이었다는 데서 오는 환멸감은 핍으로 하여금 죄수와 그의 유산 모두를 거부하도록 만든 것이다. 그러나 핍이 매그위치를 돌보게 되고 애착을 가지게 됨에 따라 그는 "현재와 같이 내 모든 생각과 계획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내 후원자에게서 더 이상의 돈을 받는다는 것은 비정한 사기 행위일 것"(that it would be a heartless fraud to take more money from my patron in the existing state of my uncertain thoughts and plans; 381)이라고 생각하기에 이른다. 이는 핍이 도덕적 감수성을 회복했음을 분명히 드러내 보여주는 대목이다. 웨믹이 그토록 많은 휴대 가능한 재산을 잃은 것이 안타깝다고 말하자, 핍은 "내가 생각하는 것은 불쌍한 그 재산의 주인뿐이랍니다, 웨믹 씨"(What I think of, Wemmick, is the poor owner of the property; 451)라고 말한다. 자신을 위해준 매그위치의 안전이 확보되지 못하고 결국 형을 받게 된 상황에서 핍은 차마 양심상 그의 재산을 확보하려는 시도를 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처럼, 이제 핍이 매그위치의 재산을 받지 않는 것은 결코 혐오감 때문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에 그는 강 위에서 상징적인 죽음의 고비에서 벗어난 후 매그위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 왜냐하면 이제 그에 대한 나의 혐오감은 모두 녹아 없어졌으며, 쫓기고 부상당하고 족쇄에 묶인 채 내 손을 꼭 쥐고 있는 이 사람에게서 나는 오직, 내 은인이 되고자 했던 사람, 그리고 나에 대한 깊은 애정과 감사와 관대함의 감정을 기나긴 세월 동안 조금도 변함없이 간직해 온, 그런 사람의

모습만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에게서 나는 오직, 조에게 배은망덕하게 행동했던 나 자신보다 훨씬 훌륭한 인간의 모습만을 발견했던 것이다.

For now, my repugnance to him had all melted away, and in the hunted wounded shackled creature who held my hand in his, I only saw a man who had meant to be my benefactor, and who had felt affectionately, gratefully, and generously, towards me with great constancy through a series of years. I only saw in him a much better man than I had been to Joe. (446)

이 대목에서 핍은 뉘앙스가 다르지만 '사람'을 지칭하는 두 단어(creature, man)로 매그위치를 부르고 있다. 이러한 호칭의 대비를 통해 핍은 자신이 이전까지 그를 잘못 대했다는 점과 함께 이제는 자기에게 선의를 베푼 그에게 충실하게 대하게 되었다는 사실까지 부각시키고 있다. 매그위치는 결국 핍 안에 내재해 있던 선한 감정을 이끌어내고, 나아가 그가 조에 대해서 갖고 있던 죄의식을 속죄하는 대상이 된다. 다시 말해, 조에게 차마 자신의 막대한 죄의식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지 못하는 핍은 도리어 자기에게 잘못한 바 있는 매그위치에게 자신이 그에 대해 가졌던 혐오감을 속죄하고 헌신함으로써 자신의 죄의식의 일부를 해소하게 된다. 매그위치는 핍이 자신의 죄와 책임을 깨우치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의 모습을 보도록 도와주면서, 결과적으로 핍의 죄의식이 해소되는데 기여하는 것이다. 이 같은 죄의식의 해소가 핍으로 하여금 매그위치까지 죄수라는 신분과 무관하게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며, 매그위치는 그를 마음이 젠틀한 사람, 즉 매튜 포켓(Matthew Pocket)의 관점에서 볼 때에 '진정한 신사'(true gentleman; 181)로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다.

수감된 매그위치가 "신사가 나한테 속해 있다고 알려지는 건 이제 좋지 않다"(It's the best as a gentleman should not be knowed to belong to me now; 447)고 말하며, 그가 자신을 우연히 찾아온 것처럼 가장하길 바랄 때에도, 핍은 "저는 당신을 결코 떠나지 않겠습니다"(I will never stir from your side; 447)라고

답한다. 이제 핍에게는 자신의 신사 정체성, 평판, 그리고 돈보다도 자신에게 잘못하기도 했지만 애정과 은혜를 베풀어 준 매그위치라는 한 인간에게 '충실하게' 대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이처럼 자신의 속물성을 자각하고 사람을 외양이나 신분에 따라 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됨에 따라 더 이상 매그위치와의 관계를 수치로 여기지 않는 핍의 모습은 그가 자신의 내면과 삶에 치명적이었던 죄의식과 수치심을 극복한 새로운 인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 죄수 정체성으로부터의 해방은 그에게 죄의식을 생기게 한 부정적 자아관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신사 정체성을 던져버리는 것은 예전의 자신에 대해, 그리고 매그위치처럼 경멸을 불러일으키는 대상들과 엮임으로써 가졌던 수치심을 사라지게 함으로써 그에게 인격적 성숙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정체성을 벗어 던지면서 핍은 그를 줄곧 구속하고 감금해왔던 모든 상징적인 감옥들부터 탈출하게 되고, 진정한 자유인이라는 새로운 자기 정체성을 찾는다. 이런 감옥들은 무엇보다 죄인이라는 원형적 죄의식의 굴레, 그리고 속물적 신사 개념이 수반하는 물질과 외양을 좇는 욕망의 굴레였다.

앞의 논의에서 죄책감이 죄스러운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고, 죄의식은 이러한 죄스러움이 마음의 깊은 곳에 자리잡아 내면화된 것을 의미한다고 했는데, 수치심 역시 죄의식처럼 부끄러움이 마음 속 깊이 자리잡아 내면화된 것을 의미한다. 어릴 적에는 핍이 에스텔라의 경멸 때문에 계급 의식에 따른 수치를 느꼈다면, 이제 그는 조와 비디에게 속물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자의식에서 비롯된 새로운 수치심을 갖는다. 후자가 핍의 도덕 의식과 연관된 것이라면, 전자는 그의 열등 의식과 직결된 것이다. 조 부인의 계급 의식과 열등 의식이 해비샴 같은 이들을 우러러보는 동시에 핍을 학대하게 했다면, 핍의 열등 의식 또한 남을 하대하는 속물 의식을 가지게 하는데 기여했다. 따라서 계급 의식과 관련된 수치심에서 벗어나는 것은 속물성을 벗어 던지는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계급 의식에서 벗어난 핍에게 이제 수치심이란 죄의식과 동일한 것이 된다. 핍은 지난날의 과오에 대한 통렬한 반성을 통해, 그리고 그러한 반성에서 오는 수치심과 죄책감을 조에게 용기 내어 고백함을 통해 그것들을 해소하게 되는 것이다.

사실 핍은 어릴 적 환경과 예민한 성격으로 인해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성격을 갖게 된다. 소설의 8장에서 핍은 자신이 예민함을 가지게 된 배경을 설명하면서 누나가 자신을 손수 길렀다고 해서 그것이 자신에게 폭력적인 억압을 가해도 된다는 권리를 그녀에게 부여된 것은 아니라는 확신을 가졌다고 고백한다. 이에 따라 핍은 "내가 정신적으로 소심하고 매우 예민하게 된 주된 원인은 바로 혼자서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이런 확신을 늘 가슴에 품고 살아간 탓에 있다"(and to my communing so much with [this assurance], in a solitary and unprotected way, I in great part refer the fact that I was morally timid and very sensitive; 63)고 말하는 것이다. 핍이 소극적인 성격을 가지게 된 또 다른 이유는 어른들이 그를 억압하며 그로 하여금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이다. 나아가 핍은 자신의 유일한 지지자인 조가 부인의 행패를 참고 고통당하기만 하는 것을 보고 자랐기에, 그런 조의 태도를 배우며 닮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하던 핍은 매그위치의 안위에 대한 책임을 짊어지게 되면서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를 허버트와 함께 처리해 나가며 적극성을 띠게 된다. 이런 적극성이 처음으로 전면에 드러나는 행위는 그가 에스텔라를 향해 열변을 토로하는 장면이다. 핍은 드럼믈과 결혼할 것이라는 에스텔라의 말에 "미스 해비샴에게 이끌려 그렇게 치명적인 나락으로 떨어지는 일만은 하지 말아 다오"(do not let Miss Havisham lead you into this fatal step; 363)라고 말한다. 핍은 자신과 마찬가지로 그녀도 해비샴에게 조종당하는 인형이자, 그녀의 감옥에 갇힌 노예임을 에스텔라에게 자각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그는 자신의 상태에 대한 자각을 함과 동시에, 에스텔라에게도 그녀가 처한 상황에 대한 자각을 깨우쳐 주려는 주체적인 면모를 보인다.

죄의식에 시달리며 괴로워하던 핍의 수동적 내지 소극적 자세가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으로 변모된다는 점은 그가 건강한 도덕적 감수성을 회복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이런 모습은 이제 그의 인격적, 도덕적 성숙의 발판이 된다. 핍의 주체적인 태도는 적극적인 배품의 행위로 이어지는데, 부인의 행패에 대해 인내하면서 핍에게 항상 헌신했던 조처럼, 그도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 대한 헌신과 희생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일례로, 핍은 해비샴의 도움을 받아 허버트가

클라리커 상사(Clarriker and Co.)에 일할 수 있도록 하여 종국에는 그가 그 회사의 동업자로 자리잡게 되는 데 결정적으로 이바지한다. 이에 대해 도움을 줄 것을 약속한 후, 해비샴은 핍에게 자신이 잘못했음을 통렬히 고백하며 자신을 용서해달라고 하는데, 이때 그의 반응은 주목할만하다. 매그위치에게 보인 반응과 유사하게 핍은 지금껏 자기를 이용해 온 그녀에게 "저 역시 가슴 아픈 잘못들을 저질렀습니다. 제 인생은 분별 없고 은혜를 모르는 인생이었습니다. 당신에게 모질게 대하기에는 저는 용서와 지도가 너무나 많이 필요한 사람입니다"(There have been sore mistakes; and my life has been a blind and thankless one; and I want forgiveness and direction far too much, to be bitter with you; 398)라고 고백하는 것이다. 이처럼 조와 비디에게 잘못했다는 의식은 그로 하여금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게끔 하는데, 여기서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면서 갖는 죄의식은 도덕적 성숙의 계기가 될 수 있음이 드러난다. 달리 말해, 핍은 죄의식을 통해 내적 성장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그는 남이 자신에게 잘못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조처럼, 해비샴이 자기에게 준 상처를 생각하지 않고 타인의 고통만을 생각하는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로 거듭난다.

자신에게 헛된 환상의 굴레를 씌우던 해비샴이나 비윤리성을 내비치게끔 예속하던 속물성과 같은 상징적인 감옥들에서 벗어난 핍은 가치관과 삶의 스타일이 달라지면서 인격적 성숙을 보이는데, 이러한 성숙의 단계에 도달하기 까지는 세 차례의 상징적인– 실제로 죽음의 위기이기도 하지만 그의 인격의 정화의 측면에서– 죽음의 고비를 통과해야만 했다. 핍이 겪은 첫 번째 상징적 죽음은 올릭에게 유인 당하여 그로부터 살해 협박을 받을 때인데, 죽음을 목전에 두고 핍이 걱정하는 것은 정작 죽음 자체보다도 "죽음 이후에 자신이 잘못 기억될 것이라는 두려움"(the dread of being misremembered after death; 425)이다. 그는 조 및 비디의 한결 같음과 그것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속죄를 하지 못하고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고 죽는 것에 대해 극심한 두려움을 느끼며, "조와 비디는 내가 그날 밤 얼마나 미안해 했는지 결코 모를 것이다"(Joe and Biddy would never know how sorry I had been that night; 425)라고 말하는 것이다. 나아가 이 장면에서 올릭이 조 부인의

살인범이 바로 그 자신임을 밝히는 순간, 핍은 자신이 누나의 살인과 관계가 있다는 비이성적인 죄의식을 몰아낼 수 있게 된다(Weissman and Cohan 122). 이것은 핍의 의식 세계와 인격 성숙에 있어 상당히 의미 있는 사건인데, 그 이유는 비이성적 죄의식의 해소야말로 그에게 도덕적 감수성이 되살아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주기 때문이다.

핍은 두 번째와 세 번째 상징적인 죽음을 연이어 겪게 된다. 두 번째 죽음은 강 위의 추격 소동 때 물 속에 빠지는 사건인데, 물 속에 잠김을 통하여 그는 자기 중심적 태도를 고수하며 자신에게는 계급적 수치를 느끼고 타인에게는 속물 의식을 내비쳤던 자신의 과오를 상징적으로 씻어낸다. 반 겐트는 디킨스에게 있어서 강이란 접촉하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동시에 분리된 개인들과 계급들을 합일시키는 상징적인 기능을 하는 장소라고 설명한다(Van Ghent 132). 핍은 강물에 빠진 이후 한층 더 변화된 시각과 태도를 보이며 매그위치와의 관계 또한 더욱 공고해진다. 그리고 자신의 내면에 드리웠던 불안의 어두운 그림자를 해소하고, 이타적이고 희생적인 태도를 취함으로써 내적인 평화를 찾게 된 것이다. 매그위치의 거친 손에 혐오감을 느끼던 핍은 이제 그의 내면의 선한 측면을 보게 되어 그가 자신 때문에 귀국했다는 것이 가슴 아프게 생각된다고 고백한다. 하층 계급 사람들을 경멸하고 심지어 조까지도 부끄러워하며 속물적이고 자기 중심적이던 그는 이제 죄수 매그위치를 위해 청원서를 밤낮으로 쓰는 동시에 손가락질 받는 재판장에서까지 그의 손을 놓지 않은 채 곁을 지키면서도 전혀 수치심을 느끼지 않을 만큼 성숙해진 모습을 보인다.

세 번째 상징적 죽음은 매그위치가 죽은 후, 그가 극심한 열병에 시달리며 사경을 헤매던 사건인데, 이 때 핍은 조의 극진한 간호로 회복된다. 겨우 정신을 차린 핍이 용기를 내어 처음 하는 말은 자기를 간호한 사람이 조가 맞냐고 물어보는 것이다. 조가 그렇다고 다정한 목소리로 답하자, 핍은 “제발 화난 얼굴로 저를 봐주세요, 조, 저를 때려 주세요, 조. 제 배은망덕함을 꾸짖어 주세요. 제발 저를 이렇게 잘 대해 주지 말아 주세요”(Look angry at me, Joe. Strike me, Joe. Tell me of my ingratitude. Don’t be so good to me; 463)라고 절규하면서 자신이 그에게 품고 있던 극심한 죄의식을 고백하며, 자책하는 식으로 용서를 구한다.

이러한 상징적인 죽음과 재생, 그리고 이어지는 속죄의 과정을 거치면서 핍의 죄과는 청산되고 그의 죄의식도 해소되어 간다.

그런데 조가 다시 자신을 덜 편하게 대하기 시작하고 편지를 남긴 채 떠나자, 핍은 이번에는 대장간으로 그를 찾아가 참회의 심정으로 자신의 속마음을 남김없이 털어 놓겠다고 다짐한다. 그는 이제 조와 비디와의 관계에서까지 적극성을 보이며 그들에게 하지 못했던 속죄의 행위를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다. 이 시점에 이르면, 화자 핍과 주인공 핍의 의식 수준이 완전한 일치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러한 일치는 핍이 진정한 신사로 성장했음을 의미한다(성은애 251). 그런데 핍은 비디에게 청혼할 것 또한 다짐하는데, 이러한 자신의 마음을 그 스스로가 설명하는 대목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핍은 그녀를 사랑한다고는 언급하지 않은 채, "만약 네가 나를 그때의 반만큼이라도 다시 좋아할 수 있다면"(If you can like me only half as well once more; 472) 이라고 말하며, 자신에 대한 그녀의 변함없는 애정이 결혼의 근거가 될 수 있음을 언급한다. 나아가 "내가 얼마나 겸손해졌고 뉘우치는 사람이 되어서 돌아왔는지 그녀에게 보여 줄 것이다"(I would show her how humbled and repentant I came back; 472)라고 하는데, 이런 핍의 말은 비디와 결혼하려는 그의 핵심 동기가 애정이라기보다는 그녀를 향한 속죄의 마음이었음을 시사해준다.

이렇게 애정에서 비롯되지 않은 핍의 청혼 시도는 결국 좌절되고 마는데, 이로 인해 핍은 마지막까지 여성들과 관계를 맺을 기회를 박탈당한다. 이제 그는 인격적으로 한층 성숙해졌기에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충분히 여성과 애정 관계를 맺을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그러한 관계를 맺을 대상이 부재하게 된다. 종국에 그는 허버트와 클라라(Clara Barley)의 집에서 함께 살게 된다. 물론 그는 그들의 관계를 도우면서 그들과 행복을 공유하지만, 여성과의 사랑에 기반한 자신만의 가정을 이루지는 못하는 것이다.

핍은 결혼을 해야 한다는 비디의 말에 "하지만 비디, 난 그럴 것 같지 않아. 난 이제 그들의 집에 너무나 완전히 정착한 상태라서 결혼 같은 건 가능성이 전혀 없어. 난 이미 꽤 늙은 노총각이야"(but I don't think I shall, Biddy. I have so settled down in their home, that it's not at all likely. I am already quite an old

bachelor; 481) 라고 말하면서 자신만의 가정을 이루기 어려움을 고백하며, 스스로도 그것을 이룩할 생각이 없음을 내비친다. 커트 하토그(Curt Hartog)는 핍의 인생이 매그위치, 조 부인, 해비샴처럼 남에게 상처를 준 인물들과 상징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실제 죽음을 맞이하는 이들과는 다르게 열병이라는 상징적인 죽음을 겪고 나서 재탄생하지만 여전히 과거의 짐을 안고 축소된 삶의 가능성을 지닌 채 살게 된다고 주장한다(262). 핍이 여성과 관계를 맺을 기회를 박탈당하고, 이를 되찾을 노력 또한 하지 않는다는 점은 이러한 주장의 맥락에서 볼 때 설명이 가능하다.

핍은 어쩌면 당연한 귀결일 수도 있겠지만, 오랫동안 흠모해왔던 에스텔라와도 연인이 되는데 실패한다. 에스텔라는 소설의 마지막 장면에서 핍에게 "우리는 서로 헤어져서도 계속 **친구**로 남아 있을 거야"([We] will continue *friends* apart; 484; emphasis mine)라고 말하며 둘의 관계를 명료하게 정리한다. 이처럼 에스텔라와 핍의 관계가 상호 간의 사랑으로 끝난다고 볼 수 없지만, 욕망의 대상이었던 그녀가 마지막에 핍에게서 받았던 애정의 진정성을 알아보고 그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다는 사실은 그에게 그 자신의 남성성을 확인시켜주는 결과를 낳는다. 즉, 에스텔라는 핍의 애정에는 응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그가 충분히 여성과 애정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임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이다.

다시 정체성에 관한 논의로 돌아가보면, 션 그래스(Sean C. Grass)는 핍의 진정한 정체성은 감옥에 의해 주입된 그의 죄의식을 이야기해야 함을 깨달을 때 비로소 발견된다고 한다(184). 핍의 죄의식이 온전히 감옥에 의해 주입된 것인가 하는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실제로 핍의 새로운 정체성 확립은 조와 비디를 포함한 모두에게 자신의 과오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함을 통해 죄의식을 털어 내고 나서야 완성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핍이 궁극적으로 확립하게 된 정체성은 앞서 언급한 바대로 훌륭한 인격자로서의 새로운 신사 정체성이다. 이러한 새로운 정체성은 죄의식 해소에 덧붙여 타락한 사회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고 자신의 신분이나 외양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시선을 더 이상 의식하지 않고 주체성을 회복하면서 얻어진 것이다. 하인즈는 이 소설의 주요 인물들이 자신의 역할, 위치, 재산 등을 의식하지

않고 그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볼 때 비로소 구원된다고 말한다(Hynes 271, 275).[7] 이는 핍의 죄의식과 신사 되기의 핵심에 놓여 있는 매그위치와 해비샴 등이 '사람이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의식을 버리고 본래 자신에게 내재해 있던 인간적인 면모를 보이게 되면서, 또 그들이 핍에게 잘못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용서받게 되면서 종국에는 모두 구원 받는다는 점을 바로 통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핍이 주체적이면서 적극적으로 재거스에게 에스텔라에 관한 비밀을 따져 물으며 웨믹의 인간적인 면모에 호소할 때, 재거스는 웨믹의 이중생활을 알게 되는데, 그 순간 재거스의 인간적인 면모가 핍에게 드러난다. 웨믹에게 즐거운 집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재거스의 얼굴은 미소짓는 것과 같은 표정으로 누그러지며"(Mr. Jaggers relax into something like a smile; 412), 핍에게도 "격의 없는 미소를 지어"(smiling openly; 412) 보인다. 이어지는 대화에서 핍은 재거스가 상대에게 죄의식을 가함으로써 즐거움을 느끼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그들의 비밀을 철저히 지킬 줄 아는, 어쩌면 속물적이었던 자신보다도 타인에게 충실한 사람임을 알게 된다. 이처럼 핍이 그 자신을 속박한 죄수 정체성 및 신사 정체성을 벗어 던질 때, 자기의 새로운 정체성이 확립되고 재거스와 같은 인물까지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디킨스는 기성 생활에 침윤된 인물도 인간적인 면모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재거스의 힘과 영향력의 부정적인 측면을 깡그리 지워버리는 것은 아니다. 잠깐 누그러졌던 재거스와 웨믹도 의뢰인이 등장하자 곧바로 위압적이고 사납게 변하는 데, 이런 모습은 재거스와 같은 인물과 그가 휘어잡고 있는 사회가 쉽게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시사한다.

핍이 죄수와 신사라는 두 자아 정체성으로 인해 혼란을 경험하는 것처럼 웨믹도 월워스(Walworth)와 리틀 브리튼에서 보이는 두 가지의 상반된 태도로 인해 분열되어 있는 인물이다. 디킨스는 웨믹의 분열된 모습을 통해 도덕적 감수성을 지닌 사람이 계층 의식과 범죄로 물든 사회 속에서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시사하고 있다. 웨믹은 핍과 달리 종국에 사회 내에서 자신의 자리를

[7] 나아가 하인즈는 이 소설이 거의 모든 주요 인물들이 '리틀 브리튼'의 웨믹에서 '월워스'의 웨믹으로 전환되는 이야기이며, 그들이 그 자신을 마치 다른 사람인 것처럼 간주하지 않을 때에야 비로소 구원된다고 말한다(271).

유지하게 되지만, 이제 핍에게는 어느 정도 지워진 뉴게이트 감옥의 얼룩이 그에게는 여전히 선명하게 남아 있다. 하지만 자기 아버지(Aged P)를 지극정성으로 모시는 웨믹의 태도는 핍으로 하여금 어쩌면 제2의 아버지나 다름없는 조를 무시하고 있는 자신의 태도를 되돌아보게 한다. 말하자면 웨믹은 핍으로 하여금 잃어버린 도덕적 감수성을 되찾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해보면, 비록 감옥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는 못하지만 모순으로 가득한 사회 속에서 이중적인 삶의 방식을 통해 도덕적 감수성을 유지해나가는 웨믹이야말로 어떤 면에서는 핍이 벗어 던진 속물적 신사상의 차선적인 대안이 될만한 인물로 볼 여지가 있다.

길모어는 '신사다움'이 빅토리아조 사람들을 매료시킨 것은 그것이 단지 계급이나 훌륭한 인격자를 지칭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양자, 즉 사회적 계급과 도덕적 속성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개념이기 때문이었다고 주장한다(Gilmour 4). 그런데 필자가 볼 때, 이러한 균형은 쉽게 유지될 수 없는 것이기에 디킨스가 핍의 성장을 통해 최종적으로 그려내고 있는 신사상은 신사 계층 바깥에서 신사 개념을 사유할 기회가 있었던 자만이 할 수 있는 그 개념에 대한 급진적인 재구성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말하자면, 신사다움의 핵심적인 가치로 인격적 덕목을 강조했지만, 여전히 신사의 중산 계급적 이상을 지향했던 새뮤얼 스마일스(Samuel Smiles)보다 디킨스가 더 급진적인 작가가 될 수 있는 것은 계급과 무관한, 혹은 계급보다 우월한 가치로서 사랑과 용서, 그리고 도덕적 감수성을 기반으로 하는 고결한 심성을 신사다움의 핵심적인 가치로 보는 그의 세계관 때문이다.

4. 결 론

이상으로 『위대한 유산』의 주인공인 핍이 갖는 죄의식과 정체성이 변주되는 과정을 추적해 보았는데, 죄의식과 죄수, 신사 정체성은 모두 양가적인 의미를 지닌다. 즉, 이것들은 그에게 부정적이면서 동시에 긍정적인 영향과 결과를 낳았다. 원형적 죄의식은 핍에게 부정적 자아관을 갖게 한 것으로써, 그로 하여금 근본적으로 자신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게 하고, 나아가 자신에게 잘못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되는 모든 일에 극심한 처벌을 예상하도록 했다. 그런데 자신의 윤리적인 잘못에 대한 자각을 통해 생긴 새로운, 도덕적 죄의식은 핍에게 내재해 있던 도덕적 감수성이 복원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즉, 죄의식은 그로 하여금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게 하고, 속물적 신사로서 살아온 자신의 삶에 대한 성찰을 낳는다. 따라서 죄의식은 종국에 핍으로 하여금 참회하게 함을 통해 인격적 성숙으로 나아가게끔 하는 기폭제로 작용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죄의식은 어쩌면 그가 '고결한 인간'(gentle man)이 되기 위한 필수적인 기반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2장에서 죄의식의 결과로 에스텔라와 조를 각각 이상화함을 살펴보았는데, 이상화의 이 두 가지 국면도 각기 상반되는 의미를 갖는다. 에스텔라의 경우에 이상화가 그녀의 주체성을 부정하는 것이었다면, 조의 경우에 이상화는 실제로 본받을 만한 인물에게서 선한 인격자로서의 이상적 인간상을 발견함으로 인해 핍으로 하여금 '영혼의 안내자'(guiding spirit; 477)를 갖게 하는 것이었다. 소설이 조에 대한 이상화로 끝나지 않지만 그럼에도 핍은 이상화의 결과로 계속해서 도덕적 감수성을 삶의 지침으로 삼게 된다.

핍이 이처럼 도덕적 감수성을 되찾는 데는 자신을 구속했던 죄수와 신사라는 두 가지 정체성으로부터의 해방이 결정적으로 작용한다. 얼핏 볼 때는 그가 이 두 정체성을 순차적으로 가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런던에 간 이후부터 이것들은 그에게 혼재하고 있었으며 그를 이중으로 구속하는 것들이 되었다. 신사가 되기 전에 가졌던 죄수 정체성은 그로 하여금 자신이 실제 죄수들은 물론 감옥과 연루되어 있으며, 나아가 죄수들과 마찬가지로 쫓기는 처량한 처지에 있다고

생각하게 한 것으로 그의 의식을 유령처럼 따라다니며 괴롭힌 것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런던에 간 이후 핍에게 새로운 방식으로 나타나는데, 이제 그는 자신이 외양적으로는 신사이지만, 실은 사회가 강요한 속물 의식에 예속된 것이나 다름없는 죄수임을 깨닫게 된다. 이처럼 죄수 정체성은 나중에는 자신의 상태에 대한 자각을 이끌어내는 것이므로 인격적 성숙을 향해 나아가는 초석으로서의 긍정적 기능을 하기도 한다.

그런데 신사 정체성은 정반대의 의미에서 양가적 의미를 갖는다. 그것은 우선 '무가치함'이라는 자기 인식을 극복할 탈출구로서의 사회적 신분 상승이 성취된 결과이기에 핍을 마치 동화의 주인공으로 만드는 것과 같은 긍정적인 의미를 갖는 듯 했다. 하지만 결국 그는 그 결과로 인해 당대 사회의 계층 의식과 신사상을 내면화해 속물성을 갖게 되고 죄를 저지르게 된다. 이처럼 신사 정체성은 자신의 이러한 상태에 대한 자의식을 억누르게 하는 것이기에 그의 의식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이렇게 볼 때, 핍의 성장에 있어 죄수 정체성과 신사 정체성은 모두 탈피해야 하는 것이지만, 성숙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전자와 후자가 그에게 끼치는 영향은 상반된다고 할 수 있다.

핍이 인격자로서의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된다는 사실에 있어 그가 타인을 이상화하는 데서 벗어난다는 점은 결정적이다. 그는 이상적 여성에 대한 숭앙자의 모습을 벗어 던지고 여성을 이성으로써, 있는 그대로 보려고 노력하며, 이를 통해 본인의 남성성도 인정받게 된다. 또한 앞서 기술한대로, 소설은 핍이 사회 속에서 타인을 이상화하는 것으로 종결되지 않고, 자신의 타락을 초래한 사회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사회 밖에서 자리 잡고 주체적인 삶을 영위해 가는 것으로 마무리됨으로써 주인공의 독립성, 자율성, 주체성을 확보해 주고 있다.

그러면 이런 과정을 통해 주인공 핍이 과연 성장한 것인지, 또 성장했다면 그 성장의 의미는 무엇인지에 관해 학자들의 견해는 분분하다. 바이스만과 코한(Judith Weissman and Steven Cohan)은 핍의 성장 문제를 프로이트식 정신분석학으로 읽어 내는 평자들인데, 이들은 핍이 비디에게 청혼하는 것은 오이디푸스 단계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보면서 이러한 트라우마는 종국에도 해결되지 않았다고 해석한다. 결국 핍은 허버트 가족의 일원이 되었지만, 성적

파트너가 없으므로 어릴 적 조와 조 부인의 집에서 살 때처럼 그들의 아들인지 형제인지가 모호하며 부모-형제 관계의 혼선이 생긴다고 말한다(122-123). 필자는 핍이 비디에게 청혼하는 것은 그녀에 대해 남아 있는 그 자신의 죄의식을 속죄하고자 하는 행위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청혼이 좌절되고 자신만의 가정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핍의 성장 문제와 직결된 것이라기보다, 자신의 삶에 드리워졌던 어두운 과거의 흔적을 떠안고 살아야 하는 핍이 어느 정도 한계지워진 삶을 살게끔 하려는 작가의 의도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위대한 유산』을 트라우마적 경험이 인간을 결정짓는다는 현대 심리학의 주장을 예고하는 소설로 읽을 수 있다. 하지만 주체성을 찾고 인격적으로 성숙한 핍의 청혼 문제를 오이디푸스 단계와 연결 짓거나, 허버트와 클라라의 결혼 생활을 돕고 행복을 공유하는 그가 그들의 아들과 같은 처지에 있다고 보는 것은 과잉된 해석인 동시에 정신분석학적인 환원주의적 해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소설의 결말과 관련해 수많은 논쟁이 있어왔는데, 험프리 하우스(Humphry House)나 존 루카스(John Lucas)처럼 원래의 결말이 합당한 것이며 디킨스가 결말을 바꾼 것은 잘못이라고 보는 평자들이 있는 반면, 리비스(Q. D. Leavis)나 제롬 메키어(Jerome Meckier)처럼 디킨스가 바꿔 쓴 결말이 더 바람직하며 제대로 된 결말이라고 보는 평자들 또한 있다. 20세기 후반에 이르면 상반되는 두 입장 가운데 후자가 좀 더 우세를 보이기 시작하는데, 필자 역시 바뀐 결말이 제대로 된, 보다 나은 결말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점에서 보다 더 확실한 근거를 갖는다.

우선, 전자의 입장을 옹호하는 평자들은 수정된 결말이 핍과 에스텔라의 결합이 암시되기에 결혼으로 끝나는 상투적이고 행복한 결말과 다름 없다고 보는데, 필자는 바뀐 결말이 그들의 결합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앞서 핍이 진정으로 사랑한 것이 에스텔라가 아니라 그녀에게 투영한 자신의 이상적인 자아 이미지라고 주장한 바 있는데, 그는 이후에 그녀를 있는 그대로 보려고 하지만 그것은 쉽지 않음이 드러난다. 따라서 에스텔라를 핍에게 사랑의 대상이라고 단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이는 핍이 비디에게 "내가 한때 가련한 환상이라고 불렀던 그것은 모두 사라져버렸어, 비디. 그래, 모두 사라졌어"(But

that poor dream, as I once used to call it, has all gone by, Biddy, all gone by; 482)라고 고백하고, 바로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말을 하는 동안에 내 마음속에 그날 저녁 그녀를 위해 그 옛 저택의 터를 다시 방문할 생각을 비밀리에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Nevertheless, I knew while I said those words, that I secretly intended to revisit the site of the old house that evening, alone, for her sake; 482)고 토로하는 데서 드러난다. 에스텔라가 아무리 변화를 겪어도 핍은 그녀와 자신의 어릴 적 관계가 뇌리에 남아 있기에, 마치 자기 '인생의 별'과 같았던 동시에 자신의 삶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운 이와 평범한 애정의 관계로 들어가기는 어려운 것이다. 서로의 관계에서 두 사람 모두 이러한 상황을 잘 인지하고 있다. 이에 핍은 그녀에게 "우리는 친구야"(We are friends; 484)라는 말을 두 차례나 반복하고, 에스텔라 또한 그에게 우리는 서로 헤어져서도 계속 친구로 남아 있을 거야"([We] will continue friends apart; 484)라고 말하는 것이다.

나아가, 첫 번째 결말을 선호하는 평자들은 에스텔라가 부드러운 여자로 변하는 것은 기적적인 일이기에 이성적으로 수긍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필자는 이 점에 대해서도 달리 생각한다. 핍이 종국에는 어릴 적 트라우마와도 같던 죄의식을 어느 정도 해소하는 데 성공하듯이, 에스텔라가 어릴 적부터 모진 여자가 되도록 교육받은 것 또한 어느 정도까지는 변화될 수 있는 것이었다. 에스텔라가 마치 '심장이 없는 여자'처럼 길러졌지만, 자신에게 애착을 보이는 핍에게 자신의 마음을 솔직히 고백하며 경고하고, 거짓으로 다정하게 대하는 위선적 행위를 하지 않은 것을 보면 그녀에게 여전히 인간적인 면모가 남아 있음이 드러난다. 소설의 마지막에 이르기 전부터 변화의 가능성은 그녀에게 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점들에 입각해 필자는 수정된 결말이 더 합당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에스텔라의 변화야말로 어쩌면 도덕적 각성에 도달하는 핍의 정신적 여정과 상응하는 것이라고 본다.

다시 핍의 성장 문제로 돌아와서, 캐트린 셀(Kathleen Sell)은 핍의 성장 문제를 섹슈얼리티 및 남성성 문제와 연결 짓는다. 그녀는 핍이 신사 개념의 실체를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치가 빚어낸 자신의 정체성을 없앨 수 없었기에, 조의

대장간으로 돌아갈 수도 또는 비디와 결혼할 수도 없이 반쪽자리 삶을 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셀에 따르면 수치가 이성애적 욕망에 바탕을 둔 빅토리아조 주인공으로서의 정체성 확립을 실패하게 만든다는 것이다(Sell 221). 필자는 그가 대장간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은 수치가 만들어낸 그의 정체성을 없앨 수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교양과 예절, 품위와 더 풍족한 삶을 경험한 핍이 어릴 적처럼 조와의 대장간 생활로 돌아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라고 본다. 나아가 이 단계에 이르면 핍이 갖는 정체성은 이성애적 욕망에 초점이 맞추어진 빅토리아조 주인공으로서의 정체성이 아니라, 도덕적 감수성을 삶의 지표로 삼은 인격자로서의 새로운 신사 정체성으로 변모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신사는 신분적인 개념이 아닌 이상적인 인간상으로서의 신사 개념으로, 셀의 주장은 사회 내에서의 성공 및 정착이라는 성장의 패러다임과 달리 주인공으로 하여금 도리어 타락한 사회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고 심지어 그런 사회를 탈출하게 함으로써 주인공의 성장을 드러내 보이려고 한 디킨스의 깊은 의도를 놓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모레티(Franco Moretti)는 성장소설(Bildungsroman)이 유동성(mobility)과 내면성(interiority)을 보여주는 전형으로서의 상징적 청년(youth)를 만들어냈다고 말하면서, 근대성(modernity)에 내던져졌지만 그것에 상응하는 문화를 결여한 유럽이 근대성에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성장소설에서 새로이 구성된 청년을 상징적 구심점으로 만들고자 했다고 주장한다(5). 이 소설에서 디킨스는 역으로 근대성을 구현하는 자본주의 산업 사회의 민낯을 근대적인 청년의 여정을 통해 파헤치며 꼬집고 있다. 모레티에 따르면, 성장 소설은 플롯의 측면에서 '분류 원칙'(classification principle)과 '변형 원칙'(transformation principle)을 따르는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Moretti 7). 결혼과 같은 특정한 플롯 상의 결말을 향해 나아가는 '분류 원칙' 소설과 달리 『위대한 유산』은 성장을 표상하는 내러티브 도구인 결혼으로 끝나지 않고 서사적으로 열린 결말을 향해 나아가기에 '변형 원칙'을 따른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분류 원칙' 소설처럼 이 소설은 죄의식의 해소와 그로 인한 성숙이라는 분명한 '결과'를 향해 나아가며 이 점이 중요하게 작용하므로, 엄밀히 말해 『위대한 유산』은 두 원칙을 모두 따르고 있는

소설이라고 볼 수 있다. 모레티는 성장소설이 두 원칙 중 어느 하나를 극단적으로 따르면 성장소설 자체가 사라진다고 말한다(Moretti 9). 『위대한 유산』이 성장소설이고, 훌륭한 성장소설인 이유는 소설 속에 이 두 원칙이 공존하는 동시에 완벽한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즉, 자유와 행복, 정체성과 변화 등 서로 상반되지만 근대 서구 사고방식에서 동등하게 중요한 가치들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

초기 독일에서 이상적인 형태의 성장소설이 상정하는 성장은 개인과 사회의 조화를 실현할 가능성을 꿈꾸는 것이었으며, 그것이 교양(Bildung)의 최종적인 목표였다(Slaughter 93). 『위대한 유산』은 종국에는 사회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주인공을 그려내기에 이러한 성장의 정의와는 다른 종류의 성장을 그리는 소설처럼 보인다. 하지만 성장소설이 점차 반항적인 경향을 가진 개인과 순응을 요구하는 사회 사이의 투쟁을 그리는 모든 소설을 포괄하는 용어로 발전하게 되면서[8], 가혹한 사회 현실과 자본주의가 장악한 도시 생활의 계층화 문제를 탐구하기 위해 앞서 언급한 이상적인 성장소설의 패턴을 변형시킨 『위대한 유산』 또한 성장소설의 범주에 들어오게 된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핍이 기존에 자신이 속해 있던 사회의 통념과 시각으로부터 벗어남으로써 도덕적 성숙을 이룬다는 점이다. 속물 의식을 강요당하고 범죄가 만연한 사회에서 성장한다는 것은 초기 독일의 이상적인 형태의 성장소설이 상정하는 성장과는 다른 의미를 가질 수 밖에 없음을 작가는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위대한 유산』 에서 디킨스가 그린 성장은 사회규범의 내면화와 사회 내로의 편입을 통한 성공이 아니라 그러한 사회의 영향력에서 벗어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처럼 플롯 상으로 『위대한 유산』은 엄연한 성장 소설이다. 그런데 이 소설이 성장소설인 진정한 이유는 핍이 처음에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갖게 된 죄의식에 대해 반응하는 태도의 변화에서, 나아가 타인에 대해 갖는 시각과 태도의 변화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죄의식 때문에 고통 속에 있다가 그것의

[8] 조셉 슬로터(Joseph Slaughter)는 이렇게 의미가 확장된 성장 소설이 보이는 플롯의 전형적인 특징으로 1)가족의 안정성을 벗어나 독립의 위험성을 감수하고, 2)시골에서 도시로 이주하며, 3)한 사회 내에서 자리 잡고 생산적인 구성원이 되는 것 등을 꼽는데(94), 『위대한 유산』은 이러한 플롯 상의 특징들을 모두 공유하고 있다.

실체를 직시해 속죄할 수 있는 의식 수준에 도달하고, 한 단계 나아가 자신에게 잘못한 바 있는 인물들을 한없이 용서하면서 심지어 그들에게 헌신하는 데까지 이르는 핍의 모습은 분명 그가 성장했음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디킨스에게 성장이란 자기 욕망의 성취나 타락한 사회로 진입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부패한 사회로부터의 탈출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그것은 우선 자기 자신과 타인을 있는 그대로 보고자 할 때, 그리고 사회에 의해 강요되었든 또는 스스로 그렇게 했든 간에 자기 중심으로 살아오던 삶에서 타자를 위한 헌신의 삶으로 변화할 때 얻어지는 것이다. 이처럼 도움이 필요한 상대를 도울 줄 아는 도덕적 감수성의 확보와 동시에 그러한 윤리적 의식을 바탕에 두고 스스로의 결단에 따라 삶을 주체적, 독립적으로 살아나가는 것이야말로 당대 영국 사회에 대한 통찰로 사회 비판의 완숙기에 달한 디킨스가 후기작인 이 소설에서 그리고 있는 빅토리아조 주인공의 성장이다.

인용문헌

1. 일차문헌

Dickens, Charles. *Great Expectations*. Penguin Books, 2003.

----. *Hard Times*. Penguin Books, 2003.

----. *Oliver Twist*. Oxford UP, 2008.

2. 이차문헌

강석진. 「감시와 강요된 대화: 『막대한 유산』」. 『근대영미소설』 10.2 (2003): 5-26.

문상화. 「디킨즈의 신사되기: 『위대한 유산』에 나타난 핍의 사회적 성장 분석」. 『인문학연구』 43 (2012): 33-51.

----. 「『위대한 유산』에 나타난 여성성과 남성성의 갈등」. 『영어영문학21』 28.3 (2015): 81-97.

박금희. 「저술하는 주인공으로서의 핍-신사 개념의 해체와 재구성」. 『영어영문학21』 28.2 (2015): 115-136.

백낙청. 「디킨즈 소설 속의 빅토리아조 신사」. 『세계의 문학』 19 (1981): 32-55.

성은애. 『Charles Dickens 문체의 소설적 기능 연구: *Bleak House*와 *Great Expectations*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1994.

----. 「매그위치의 귀환: 『막대한 유산』과 『잭 맥스』」. 『안과밖』 16 (2004): 65-86.

윤혜준. 「두 서기 이야기: 『돔비 부자』의 카커와 『막대한 유산』의 웨믹」. 『안과밖』 7 (1999): 81-96.

이인규. 「찰스 디킨즈의 『위대한 유산』 연구(1)」. 『어문학논총』 26 (2007): 195-209.

----. 「『위대한 유산』의 '신사' 주제 재론」. 『19세기 영어권 문학』 15.1

(2011): 115-140.

----. 「『위대한 유산』의 결말 논쟁 재론」. 『영미문학연구』 25 (2013): 37-65.

장남수. 「핍의 성장과 신사 이데올로기」. 『현대영미어문학』 16.2 (1998): 509-529.

----. 「『막대한 유산』 다시 읽기」. 『현대영미어문학』 26.2 (2008): 163-182.

Barizilai, Shuli. "Dickens' *Great Expectations*: The Motive for Moral Masochism." *American Imago*, vol. 42, no. 1, 1985, pp. 45-67.

Brooks, Peter. "Repetition, Repression, and Return: *Great Expectations* and the Study of Plot." *New Literary History*, vol. 11, no. 3, 1980, pp. 503-26.

Carlisle, Janice, editor. *Great Expectations,* Bedford, 1996.

Chesterton, G. K. *Charles Dickens: A Critical Study*. Dodd, Mead & Company, 1906.

Ciugureanu, Adina. "The Victim Aggressor Duality in *Great Expectations*." *Journals of Literature and the History of Ideas*, vol. 9, no. 2, 2011, pp. 347-61.

Dessner, L. J. "*Great Expectations*: The Tragic Comedy of John Wemmick." *A Review of International English Literature*, vol. 6, no. 2, 1975, pp. 65-80.

Forster, E. M. *Aspects of the Novel*. Harcourt Brace Jovanovich, 1985.

Foucault, Michel. *Discipline and Punish: The Birth of the Prison*. Translated by Alan Sheridan, Vintage Books, 1975.

French, A. L. "Beating and Cringing: *Great Expectations*." *Essays in Criticism*, vol. 24, no. 2, 1974, pp. 147-68.

Garis, Robert. *The Dickens Theater*. Clarendon, 1965.

Gilmour, Robin. *The Idea of the Gentleman in the Victorian Novel*. George

Allen & Unwin, 1981.

Gordon, Andrew. "Jaggers and the Moral Scheme of *Great Expectations*." *Dickensian*, vol. 65, no. 357, 1969, pp. 3–11.

Grass, Sean C. "*Great Expectations*, Self–Narration, and the Power of the Prison." *Stones of Law, Bricks of Shame: Narrating Imprisonment in the Victorian Age*, edited by Jan Alber and Frank Lauterbach, University of Toronto Press, 2009, pp. 171–90.

Gribble, Jennifer. "Pip and Estella: Expectations of Love." *Sydney Studies*, vol. 2, 1976, pp. 126–38.

"Guilt." *APA Dictionary of Psychology*.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09.

Hara, Eiichi. "Stories Present and Absent in *Great Expectations*." *ELH*, vol. 53, no. 3, 1986, pp. 593–614.

Hartog, Curt. "The Rape of Miss Havisham." *Studies in the Novel*, vol. 14, no. 3, 1982, pp. 248–65.

Hennessee, David. "Gentlemanly Guilt and Masochistic Fantasy in *Great Expectations*." *Dickens Studies Annual*, vol. 34, 2004, pp. 301–28.

House, Humphry. *The Dickens World*. Oxford UP, 1942.

Hynes, Joseph A. "Image and Symbol in *Great Expectations*." *ELH*, vol. 30, no. 3, 1963, pp. 258–92.

Ingham, Graham. "The Superego, Narcissism and *Great Expectation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analysis*, vol. 88, no. 3, 2007, pp. 753–68.

Ioannou, Maria. "'Simply because I found her irresistible': Female Erotic Power and Feminism in *Great Expectations*." *Dickens Quarterly*, vol. 29, no. 2, 2012, pp. 142–50.

James, Henry. "*Our Mutual Friend*." *The Nation*, 21 Dec. 1865, pp. 786–87.

Jordan, John O. “The Medium of *Great Expectations*.” *Dickens Studies Annual*, vol. 11, 1983, pp. 73–88.

Kelly, Mary Ann. “The Functions of Wemmick of Little Britain and Wemmick of Walworth.” *Dickens Studies Newsletter*, vol. 14, 1983, pp. 145–49.

Kim Myungjin. “Psyche as an Ideological Phenomena: A Bakhtinian Approach to Dickens’ Minor Characters in *Great Expectations.” British and American Fiction*, vol. 17, no. 2, 2010, pp. 71–93.

Kucich, John. “Action in the Dickens Ending: *Bleak House* and *Great Expectations*.” *Nineteenth-Century Fiction*, vol. 33, no. 1, 1978, pp. 88–109.

Lauby, Daniel G. *Sadomasochistic Fantasy in Dickens’s Great Expectations*. 2017. University of South Florida, MA thesis.

Leavis, F. R. *The Great Tradition*. Chatto and Windus, 1948.

Leavis, F. R. and Q. D. *Dickens the Novelist*. Chatto and Windus, 1970.

Leavis, L. R. “The Dramatic Narrator in *Great Expectations*.” *English Studies*, vol. 68, no. 3, 1987, pp. 236–48.

Levine, Julie Anne, and Alison Beth Levine. “The Psychodynamics of Shame and Guilt in *Great Expecta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Applied Psychoanalytic Studies*, vol. 9, no. 1, 2012, pp. 62–66.

Lucas, John. *The Melancholy Man: A Study of Dickens’s Novels*. Methuen, 1970.

Lukacs, Georg. *The Theory of the Novel: A Historico-philosophical Essay on the Forms of Great Epic Literature*. Translated by Anna Bostock, MIT Press, 1971.

Matos Caro, Angel D. *Materializing the Specter: The Scapegoat and the Victorian Bildungsroman*. 2011. University of Puerto Rico, MA thesis.

Meckier, Jerome. “Charles Dickens’s *Great Expectations*: A Defense of the Second Ending.” *Studies in the Novel*, vol. 25, no. 1, 1993, pp. 28–58.

Meisel, Martin. “The Ending of *Great Expectations*.” *Essays in Criticism*, vol. 15, no. 3, 1965, pp. 326–31.

Miller, Hillis J. *Charles Dickens: The World of His Novels*. Harvard University Press, 1958.

Millhauser, Milton. “*Great Expectations*: The Three Endings.” *Dickens Studies Annual*, vol. 2, 1972, pp. 267–77, 372–73.

Moretti, Franco. *The Way of the World: The Bildungsroman in European Culture*. Thetford Press, 1987.

Morgentaler, Goldie. “Meditating on the Low: A Darwinian Reading of *Great Expectations*.” *Studies in English Literature 1500–1900*, vol. 38, no. 4, 1998, pp. 707–21.

Moynahan, Julian. “The Hero’s Guilt: The Case of *Great Expectations*.” *Essays on Criticism*, vol. 10, no. 1, 1960, pp. 60–79.

Newsom, Robert. “The Hero’s Shame.” *Dickens Studies Annual*, vol. 11, 1983, pp. 1–24.

Orwell, George. *Dickens, Dali and Others*. Harcourt Brace Jovanovich, 1946.

Paris, Bernard J. “*Great Expectations*.” *Imagined Human Beings: A Psychological Approach to Character and Conflict in Literature,* New York University Press, 1997, pp. 119–43.

Pearlman, E. “Inversion in *Great Expectations*.” *Dickens Studies Annual*, vol. 7, 1978, pp. 190–202, pp. 259–60.

Pykett, Lyn. *Charles Dickens*. Palgrave, 2002.

Rawlins, Jack P. “Great Expiations: Dickens and the Betrayal of the Child.” *Studies in English Literature 1500–1900*, vol. 23, no. 4, 1983, pp. 667–83.

Sadrin, Anny. *Great Expectations*. London: Unwin Hyman, 1988.

Schor, Hilary. “‘If He Should Turn to and Beat Her’: Violence, Desire, and the Woman's Story in *Great Expectations*.” Carlisle, Bedford, pp. 541–57.

Sell, Kathleen. “The Narrator's Shame: Masculine Identity in *Great Expectations*.” *Dickens Studies Annual*, vol. 26, 1998, pp. 203–26.

Slaughter, Joseph R. “Bildungsroman/Kunstlerroman.” *The Encyclopedia of the Novel*, edited by Peter Melville Logan, vol. 1, Wiley–Blackwell, 2011, pp. 93–97.

Stange, Robert G. “Expectations Well Lost Dicken’s Fable for His Time.” *College English*, vol. 16, no. 1, 1954, pp. 9–17.

Stein, Robert A. “Pip's Poisoning Magwitch, Supposedly: The Historical Context and Its Implications for Pip’s Guilt and Shame.” *Philological Quarterly*, vol. 67, no. 1, 1988, pp. 103–16.

Steward, Douglas. “Anti–Oedipalizing *Great Expectations*: Masochism, Subjectivity, Capitalism.” *Literature and Psychology*, vol. 45, no. 3, 1999, pp. 25–50.

Stone, Harry. “Fire, Hand, and Gate: Dickens' *Great Expectations*." *Kenyon Review*, vol. 24, no. 4, 1962, pp. 662–91.

Tambling, Jeremy. “Prison–Bound: Dickens and Foucault.” *Essays in Criticism*, vol. 37, 1986, pp. 11–31.

Tomalin, Claire. *Chales Dickens: A Life*. Penguin, 2011.

Trotter, David. Introduction. *Great Expectations*, by Charles Dickens, Penguin Books, 2003, pp. vii–xx.

Van Ghent, Dorothy B. “On *Great Expectations*.” *The English Novel: Form and Function*, Rinehart, 1960, pp. 125–38.

Weissman, Judith and Steven Cohan. “Dickens' *Great Expectations*: Pip's Arrested Development.” *American Imago*, vol. 38, no. 1, 1981, pp. 105–26.

Williams, Raymond. *The English Novel from Dickens to Lawrence*. Hogarth, 1970.

Abstract

Guilty Consciousness and Quest for Identity:

A Study on Pip's Growth in Charles Dickens' *Great Expectations*

Yesum Chon

Department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thesis is an in-depth study on the variations, consequences, and meanings of Pip's guilty consciousness and quest for identity. Guilty consciousness is the main psychological phenomenon dominating Pip's mind and life, on which his identity is based. By means of analyzing Pip's guilty consciousness, we can reach fuller understanding of his personality and life. This thesis does not see Pip's guilty consciousness as a universal phenomenon of human psychology, but rather approaches it as his unique psychological phenomena, paying attention to the specific contexts of life in which he was placed, and to the unusual experiences he underwent.

Chapter 2 identifies the factors that caused Pip's guilty consciousness. His guilty consciousness is fundamentally aroused by the neighboring adults and appears in the form of a negative self-consciousness which makes him consider himself worthless. And this abstract and obscure 'primal sense of

guiltiness' develops into 'moral sense of guiltiness' due to his own ethical wrongdoings. His moral sense of guiltiness makes Pip distort his own reality, idealizing Estella and Joe. His idealization of the two characters is, however, quite different to each other. In Estella's case, Pip projects his idealized self-image into her; in Joe's case he idealizes him as a man of good faith. In other words, Pip idealizes Estella in an effort to get rid of his negative views on his own identity, but his idealization of Joe comes from his perception that Joe stands for a guideline for his own life.

Chapter 3 focuses on the fact that Pip has two seemingly contradictory self-identities, convict and gentleman. His deep-rooted consciousness that he is associated with convicts and that his status is not different from theirs, leads to his self-identity as an imaginary convict. Later, he thinks he has escaped that fetter of identity since he became a gentleman. He is, however, again imprisoned in a symbolic jail, which is snobbery, and goes through a moral failure. As the source of his great expectations is revealed, he realizes that he has been imprisoned by symbolic jails such as Ms. Havisham and Magwitch, and that his attitude and behavior have been immoral. After he goes through several symbolic deaths, he makes amends for good people around him: Joe and Biddy. As a result, he obliterates his irrational sense of guiltiness, and establishes a new identity of true gentleman, not as a notion of social position but as a desirable human character, by escaping from the fetters of previous self-identities.

In conclusion, this thesis re-reads the novel, neither simply as a flat comic novel with a lot of exaggerations, nor simply as a novel full of a series of social criticism, but as a novel in which the narrator as hero with a psychological complexity and depth explores his own arduous quest for identity.

Keywords: Charles Dickens, *Great Expectations*, guilty consciousness, self-identity, convict, gentleman, snobbery, growth

Student Number: 2017-26575